머 리 말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민족해방에 관한 문제는 최대의 민족사적과제로 제기된다.

하지만 민족해방의 념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20세기 초엽 하나의 민족이 영영 죽어 자기의 존재를 마치는가, 하나의 나라가 세계지도우에서 영영 빛을 잃어버리고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실로 운명적인 문제로 나섰다.

1905년 지구 동반구의 작은 나라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민족은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 당시 우리 민족에게 차례진 운명이였다.

5 000여년의 유구한 민족사가 섬나라 오랑캐들에 의하여 무참히 끊기우고있었으나 그 누구도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저 피를 뿌리며

항거하였지만 나라와 민족의 독립은 의연히 꿈으로만 남아있었다.

민족수난의 그 암담하던 시기 항일의 기치높이 20성상의 간고한 혈전을 벌리여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준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이 계시였으니 그이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독립의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거점으로 하여 최악의 조건에서 강대하고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와 맞서 수십성상의 기나긴 세월 피어린 민족해방성전을 벌려 이 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였다.

온 겨레는 백두산을 우러러 위대한 수령님을 항일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희세의 령장으로, 온 민족을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주정신을 가다듬고 필승의 신념을 다지였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항일의 총적목표를 조국해방위업실현에 두고 그것을 끝까지 이룩하신 영웅적장거로 하여 우리 민족사와 세계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남조선에서 출판된 어느 한 도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김일성**장군! 그분은 현대조선이 낳은 민족적영웅이시다.

민족적영웅이란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여기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직접 장렬한 전투를 벌린이를 가리킨다. …

김일성장군! 그이는 오늘 우리 민족의 영웅일뿐아니라 앞으로 민족사가 영원히 기념할 영웅이시다. 그이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의사를, 우리 근로인민의 리익을 가장 정확하게 대표하고있으며 민족의 재건을 세계사적행정과 일치시켜 추진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종래의 영웅과 그 범주를 달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렇다. **김일성**장군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영웅적인 지도자이시다. 민족으로는 위대한 영웅이며 인민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인것이다.》

오늘도 백두의 산발마다에, 압록강의 굽이굽이마다에 그리고 만주의 드넓은 광야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는 그이의 20성상에 걸친 항일의 혈전사와 민족사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한두권의 책에 다 담을수 없다.

본사편집부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1940년대 전반기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탁월한 령도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겨레에게 나라를 찾아주신 해방의 은인이시라는 내용을 담은 이 도서를 내놓는다.

차　　례

서장 ·· 6

1장　필승의 신념안고 조국해방위업을 완수하자 ······ 35

소할바령에서 ···36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50

자력독립, 필승의 신념································· 67

미래에 대한 락관 ··· 78

2장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93

소부대활동으로 일제를 련속 타격 ················· 94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 파견 ··················107

총검을 헤치고 국내에로 ···························· 119

《조선아 만방에 웨치라 백두광명성

탄생을!》···131

쉰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사연 ·····················139

반일애국력량과의 단합을 위하여 ·················155

도처에 타오른 전민항쟁의 불길 …………………170

3장 원동훈련기지에서의 나날에 ……………………187

국제련합군결성 ……………………………………188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209

훈련을 실전과 같이………………………………224

북만의 전우들과 함께…………………………… 241

4장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위하여………………… 255

백학산비상회의 ……………………………………256

력사에 전할 숭고한 의리의 세계……………… 272

항일대전에서의 승리 ………………………………284

5장 새 조선이 나아갈 길 ………………………… 301

새 조선건설로선 제시 ……………………………302

개선……………………………………………………… 318

《**김일성**장군의 노래》……………………………333

종장 ……………………………………………………… 349

서 장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최대의 애국위업이며 긴절한 민족사적과제이다.

이 과제를 성과적으로 이룩하자면 민족해방투쟁의 진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이끌어줄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한다.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구현한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이의 령도밑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피어린 유격전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초 조성된 안팎의 정세는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을 시급히 개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대륙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짧은 기간에 광활한 동북3성을 강점한 일제는 《후방의 안전》이라는 명목밑에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조선인민과 일제와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엄혹한 시각에 우리 민족은 분연히 일떠서 폭력적진출로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나섰다.

한편 이 시기 일제의 만주침공과 중국 동북변방군의 총퇴각으로 만주지방의 국민당통치가 와해되고 일제의 통치기구가 아직 서지 못하여 전 만주는 무정부상태에 처하여있었다. 광범한 중국인민들은 일제의 만주강점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반일구국운동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대전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일찌기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면서 총대의지, 총대신념을 굳히신 수령님께서는 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을 결성하시고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원인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이어 주체19(1930)년 6월말부터 7월초에 걸쳐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오늘 조선민족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영영 쓰러지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워 재생의 길을 찾느냐 하는 생사기로에 처하여있다고, 전민족이 궐기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광복의 서광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반일투쟁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독립은 남이 가져다줄수 없으며 평화적방법으로는 절대로 일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간직하시고 무르익혀오신것으로서 혁명투쟁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울데 대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에서 무장투쟁으로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선군혁명로선을 천명하신데 이어 주체20(1931)년 12월 중순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며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선군로선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벌릴뿐 아니라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여 결사항전을 벌려야 한다는 선군로선은 국가적인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받을수 없었던 당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강대한 일제를 타승할수 있는 민족해방의 유일한 처방이였다.

조선을 강도적인 방법으로 타고앉은 일제는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침략자였다.

결국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을 타승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들의 광신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명치유신후 신흥일본이 근 70년동안 이룩해놓은 모든것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반면에 강대한 침략자들과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나라의 국력은 너무도 보잘것없었다.

군사력에 대하여서는 더 론할 여지조차 없었다. 현대적인 산업에 토대한 경제의 장성과 신식군사력은 고사하고 황궁을 지킬 군대마저 온전한것이 없었던것이 20세기 초엽 조선의

현실이였다.

그러다보니 을미사변, 아관파천과 같은 치욕을 남기게 되고 나중에는 일제의 군화발에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민족적의분을 참지 못해 의병운동과 독립군운동도 벌려보았다.

하지만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에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지리멸렬되여가고있었다.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태의연하게 실력양성론(준비론)과 외교론에 현혹되여있었다.

그러한 력사적시기에 유격전으로 강대한 일제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신 민족적영웅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사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명백한 리론도 없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행리론에 대한 사대와 교조에 빠져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로선이 누구에게나 쉽게 접수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때까지 무장투쟁의 형식으로는 정규전과 유격전의 두가지가 알려져있었다. 여기서 기본은 정규전으로, 유격전은 일시적이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있었다.

사람들속에서는 유격전을 대중운동이 이미 실지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오고있을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인식되여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리론과 경험이였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은 고사하고 민족군대의 전신으로 될만 한 그루터기조차 없었던 형편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맞선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대중봉기 역시 시기상조였다.

아직 전체 인민이 봉기를 일으킬만 한 준비도, 그 지도력량도 마련되여있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대중봉기로 일제를 때려부실수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벌리게 될 항일무장투쟁은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이 기본전투형식으로 되여야 한다는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결단을 내리신것이다.

명월구회의에서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의 형식과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벌려야 강대한 일제침략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된것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1931년 12월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회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 기초하여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일제를 때려부시기 위한 항일대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였다.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판에서 선포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은 카륜회의에서 천명되고 명월구회의에서 구체화된 선군혁명로선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세계혁명운동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선군사상이 창시되고 그를 구현한 선군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조국해방위업을 총대로 개척하고 그 종국적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 혁명적기치가 마련되게 되였다.

1934년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군의 비할바없는 전략전술적우월성으로 유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전쟁은 사상과 정신력의 대결인 동시에 적아간의 전략전술의 대결이다.

비록 수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전략전술만 잘 선택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면 능히 대적도 물리칠수 있다는것은 오랜 전쟁

실천이 보여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수령님께서 유격전을 결심하면서 그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내세우신것은 정규전법과 구별되는 변화무쌍한 유격전법의 능숙한 활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투쟁의 나날 **《유격대동작》**과 **《유격대상식》** 등 유격대활동의 모든 원칙과 방법들, 전법들을 규범화하여 내놓으시고 전투들마다에서 그것을 령활하게 적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두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과 무송원정, 여러차례의 국내진공작전들과 고난의 행군과정, 대부대선회작전을 비롯한 모든 작전들과 동녕현성전투, 로흑산전투, 무송현성전투, 간삼봉전투, 서강전투, 대마록구전투, 홍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 등 크고작은 전투들에서 그 어느 병서나 전쟁실천에서도 있어보지 못한 다양하고 천변만화하는 유격작전과 전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시며 군사적우세를 떠드는 적들을 완전히 수세에 몰아넣고 련속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시였다.

싸움으로 날이 밝고 싸움으로 날이 저무는 간고한 유격투쟁의 나날 유인매복전법(라와전법), 기습소탕전, 동성서격전법, 이정화령, 이령화정전술, 일행천리전술, 망원전술, 선회전술 등 령활한 새로운 유격전법들이 수많이 창조적용되였다.

일제는 방대한 《토벌》무력을 동원하여 항일유격대를 완전

히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맹공장추전술》, 《참빗전술》, 《요점배치전술》, 《포위소탕전》 등 저들의 모든 실전경험있는 전법과 전술들을 다 적용하였지만 신출귀몰하는 항일유격대의 위력에 완전히 제압되여 된타격만 받군 하였다.

하기에 적들도 《일본군의 병서나 용병술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고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조선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던 시기 몸소 부대를 이끄시고 국내에로 진출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통쾌하게 족쳐버리시였다.

주체26(1937)년 6월 4일 수령님의 지휘밑에 진행된 보천보전투는 우리 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국해방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을뿐아니라 아시아의 《제왕》처럼 행세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면상을 군사적으로 보기 좋게 후려갈긴 력사적인 전투였다.

밤 10시 수령님께서 울리신 한방의 총소리를 신호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보천보에 도사리고있던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소방회관, 우편국 등 일제의 침략기관들을 순식간에 소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다음날 추격해온 일제의 《토벌대》를 구시산에서 통쾌하게 족쳐버린 다음 지양개마을에서 군민련환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6월말에는 이른바 《정예》를 자랑

하던 조선주둔 제19사단소속 함흥74련대를 포함하여 근 2 000명의 대병력을 간삼봉에서 통쾌하게 족쳐버림으로써 자기의 군사적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보천보전투!

이는 단순히 국경연선의 자그마한 거리를 들이친 습격전투가 아니였다.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는데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다,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근>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 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입니다.》

보천보전투는 《무적》을 자랑하던 일제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타격이였다.

일제는 《후두부를 꽝하고 강타를 당한것 같다.》, 《천날동안 베여들인 새초를 한순간에 태워버린듯 한 한을 남겼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보천보전투에 대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질가봐 엄격한 보도관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손바닥으로는 결코 해빛을 가리울수 없듯이 조선인민

◇자료◇

보천보전투와 관련한 회상자료

《나(주, 고다마 요시아끼—전 갑산경찰서 순사부장)는 1933년부터 일본이 패전한 후인 1946년까지 함경남도에 있었습니다. 1933년부터 약 6년간 갑산경찰서에서 순사부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백두산일대에서는 **김일성**장군이 령도하시는 항일빨찌산부대가 활동하고있었는데 그들은 대단한 용맹을 떨치고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동료들사이에 수군거릴뿐이고 누구나 입밖에 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1937년 6월초 어느날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갑산경찰서에서는 보천보가 **김일성**장군부대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다는 급보를 받고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산에는 수비대, 산림경비대 등이 조직되여있었으며

혁명군의 보천보전투승리소식과 함께 일제의 패배상은 날개라도 돋친듯 방방곡곡으로 메아리쳐갔다.

우리 인민들은 보천보전투소식을 듣고 《보천보에서 왜놈들이 몰살당했다.》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기뻐하였다.

당시 《동아일보》(1937년 6월 9일부)는 《태풍이 지나간 뒤의 보천보》라는 제목을 달고 이렇게 보도하였다.

《보천보의 주요건물들은 모두 하루밤사이에 재가 되고

그들은 밤낮없이 항일유격대의 습격에 대비한다 하면서 맹훈련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에 있어서도 굉장하였습니다.

보천보습격의 급보를 받고 갑산에 있던 이 부대들이 인차 보천보로 갔었는데 신출귀몰하는 항일유격대는 그 어데서도 찾아볼수 없더라는것이였습니다. 손을 써볼 념두도 내지 못하고 돌아온 갑산응원대들의 이야기인즉 보천보주재소의 담벽은 총탄에 맞아 벌둥지처럼 되였고 경찰관들의 시체와 부상자들만이 여기저기에 널려져있었다는것이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항일빨찌산부대의 공격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등도 다 불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실로 보천보전투는 일본의 군사, 경찰관계자들에게 있어서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큰 타격으로 되였습니다.

그후 나는 경찰관을 그만두고 운송회사에서 택시업을 하게 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아도 당시 진행된 보천보전투는 조선력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였습니다.》(《시대》 1969년 12월호 시대사 48페지)

말았다. 주재소는 가련하게도 벌의 둥지같이 되고 면사무소는 아직 연기가 몰몰 나고 기둥과 들보가 탄 시커먼 숯덩이만 앙상하게 남았으며 문서더미도 모두 타서 바람에 재만 날리고있었다.》

려운형선생은 현지로 달려가 조선인민혁명군의 복수의 총탄에 벌둥지가 된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제눈으로 확인하고 일제의 멸망은 시간문제이라는것을 확신하였다.

신문을 통해 보천보전투소식을 읽게 된 김구선생은 창문을 열어제끼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번이나 고함을 질렀다.

그때 그는 중일전쟁이 림박하니 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은 뒤골목으로 다 자취를 감추는 판국에 **김일성**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에까지 쳐들어가서 왜놈들을 정면으로 후려친것이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 림시정부가 **김일성**장군을 후원해야겠다며 백두산쪽으로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다고 한다.

어제날 만국평화회의장 문전에 나타나 일본의 죄악을 고발하며 렬강들에게 독립을 구걸하던 조선이라는 약소국에 당시 세계5대강국의 하나라고 우쭐대던 일제침략군을 사정없이 쳐갈기는 혁명군대가 있으며 그 군사들이 일제가 축성한 《금성철벽》을 바람처럼 넘어들어가 침략자들을 호되게 징벌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

켰다.

도메이통신, 《도꾜니찌니찌신붕》, 《오사까아사히신붕》 등 일본의 출판보도물들과 《만주일일신문》, 《만주보》, 《대만일일신보》를 비롯한 중국의 신문들, 이전 쏘련의 따쓰통신과 《쁘라우다》, 《크라스노예 즈나먀》, 쏘련에서 발간되던 잡지 《태평양》은 물론 에스페란트어잡지 《동방사자》도 보천보전투에 대한 소식을 위해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1930년대에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로선과 방침, 투쟁방략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군대의 사상정신적 및 전략전술적우월성에 의거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국해방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전체 조선민족이 참가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항일대전승리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민족이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망하게 된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고 교훈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에 있어서는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여기에 귀착되고있었다.

하지만 온 민족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문제는 성스러운 위업인 동시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20세기 초엽까지도 온 민족의 단합을 위한 옳바른 리념이나 그 참다운 본보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더우기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밑에 놓여있는 민족을 일떠세워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 힘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여 민족해방을 이룩하는것은 특출한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위인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력사적시기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혀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과 단결의 기치를 주고 온 민족의 거족적인 항전으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절세의 위인이 계시였으니 그이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일찍부터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는데서 단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을 개시하시면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독립성업의 근본전제로 내세우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해방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단순히 총을 든 무장력들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의 애국투쟁으로 전환시키고 마침내 민족전체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였다는 여기에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탁월한 령도의 비범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에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성스러운 반일투쟁에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카륜의 언덕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조선민족이 들고 나아갈 기치로 뚜렷이 명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리념만을 절대화할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밑에서 민족성원들은 동일한 민족성,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현실적기초를 가진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남는것은 외세와 매국노들뿐이라는것이 수령님의 주장이시였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민족대단결만 이루어내면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수령님의 철의 신념이시였다.

당파나 리념에 앞서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며 민족성원들의 애국심에 기초하고있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독창성이 있었다.

선행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 출신과 경력, 재산과 지식정도의 차이 심지어 거주지와 성별에 이르기까지도 론의의 대상이 되고 단결의 장애로 되였다.

하지만 일제를 증오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해 일제와의 싸움에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만이 아니라 그가 지주나 자본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날 공산주의운동을 했건 민족주의운동을 했거나에 상관없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민족해방이라는 성스러운 위업을 위해 뭉치자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거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사상이였다.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나날 각이한 경력의 사람들을 차별없이 안아 반일대오에 세워주신 여기에는 애국심에 불타는 민족해방성취라는 숭고한 리념외에 다른것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에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광범한 대중을 하나로 굳게 결속시켜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 일찌부터 큰 힘을 넣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실것을 결심하고계시였다.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남호두회의이후부터 시작되여 1936년 3월 하순에 있은 미혼진회의에서 구체화되였으며 이에 따라 조국광복회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여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성원들과 명망있는 애국인사들이 망라되였다.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험난한 행군과 련속되는 전투를 조직지휘하시면서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몸소 작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무송현 동강에서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여시고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대회에서는 회의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신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숭고한 애국열로 전민족에게 단결을 호소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은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지지찬동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겨레가 한데 뭉쳐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된다면 나라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열렬히 호소한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은 만사람의 격정을 불러일으키였다.

조국광복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공동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상설적인 통일전선

◇자료◇

조 국 광 복 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건하시고 령도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

조국광복회는 10개 조항으로 된 강령과 규약 그리고 창립선언을 가지고있었으며 기관지로 잡지 《3.1월간》을 발행하였다.

조국광복회는 그밑에 현위원회, 구위원회, 지회, 분회 등의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여기에 수많은 군중을 묶어세웠다.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으며 유일한 강령

조직체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조국해방의 날을 더욱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강의 밀림속에서 지펴올린 조국광복회의 불길을 전체 조선민족을 일떠세우는 료원의 불길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조직에 보다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몸소 천도교의 박인진도정도 만나주시였다.

박인진도정은 천도교교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

과 규약을 가지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결속할수 있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진 포괄적이고 전일적인 통일전선조직체였다.

동시에 전 조선과 만주일대는 물론 일본본토에까지 자기의 조직을 꾸리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애국의 기치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력량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밀고 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

였다.

도호를 문암으로 쓰고있는 그는 1909년에 입도한 후 천도교의 여러급의 교직을 맡아보다가 1932년에 지원포의 도정으로 되였다.

그 당시 천도교는 전국적으로 29개의 포를 설치하였는데 주로 풍산, 삼수, 갑산, 장백 등지를 포괄하였던 지원포는 전국의 천도교포들중에서 가장 큰 포조직의 하나였다고 한다. 박인진도정은 일명 령북도정이라고도 불리웠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는 풍산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맨 앞장에서 1 000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관청에 돌입하다가 몸에 적탄을 받고 중상을 당하였다.

그후 3년동안의 옥중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독립군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후원하는 사업에 몸을 깊숙이 잠그었다.

독립군이 별로 맥을 추지 못하고 타국땅으로 쫓겨가게 되자 풍산땅의 깊은 산골로 솔가이주하여 전교실과 야학방을 차려놓고 마을사람들에게 천도교 교리도 선전하고 애국정신도 주입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박인진도정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반일성전을 승리로 결속짓고 광복을 이룩하려면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 민족단결은 반일에 민족의 총력을 기울일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책이며 민족대승의

길이다, 천도교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척왜》에 성공하고 《보국안민》을 도모할수 없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조선독립을 이룩할수 없다, 다른 반일애국력량도 다 묶어세워야만 승산을 내다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민족대단결을 꼬는 단심줄이 되여 조국광복회두리에 뭉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면 그가 누구이든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안고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하며 조선사람이라면 모든것을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꼬는 단심줄이 될 때 우리 민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하기에 박인진도정도 수령님께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도 나무랄데 없이 훌륭하고 장군의 의견도 천만번 지당하니만큼 전국의 300만 교도들을 모두 조국광복회에 가입하도록 해볼 생각이라고 흥분하여 말씀드렸던것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국광복회조직에 합류하려는 이러한 흐름속에 남만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의 참모장이였던 윤일파가 서신으로 수령님께 조국광복회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반일전선에서 긴밀한 련계를 가질것을 희망해왔다. 한때 상해, 베이징, 천진 등 중국관내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종사한 박씨성을 가진 독립운동자는 불원천리

하고 만주까지 찾아와 조국광복회 남만대표였던 리동광을 만나 앞으로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서 조국광복회사업을 광범히 전개해나갈것을 약속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는 김활석의 휘하에 있던 독립군의 잔존세력이 최윤구를 선두로 조선인민혁명군에 스스로 편입하였다.

조국광복회는 창립되자마자 국내에는 물론 중국지방을 비롯한 조선민족이 사는 모든 거주지들 지어 일본땅에도 그 조직을 넓혀나갔으며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였다.

조국광복회를 전체 조선민족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 만들어 민족해방위업을 다그쳐오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세력들의 압력과 전횡속에서도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신성한 권리를 견결히 고수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명실공히 민족해방을 목표로 한 민족적위업으로 굳건히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조선의 해방을 위해 나선 투사들에게 있어서 민족해방은 민족최대의 숙원이고 목표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모든 투쟁과 활동이 이

목표실현에 복종되여야 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가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한다고 하여 자기 조국을 해방하고 자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할 신성한 권리마저 포기해야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와 열하원정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철의 론리로 매개 나라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태도와 함께 매개 나라와 민족이 지닌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백한 립장을 밝혀주시여 나라의 독립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고 우리 겨레의 독립투쟁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민족의 운명을 롱락하려던자들의 책동을 저지시키고 민족해방의 신성한 권리와 투쟁로선을 지켜내기 위한 수령님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 견결한 투쟁이 있었기에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1930년대에 민족해방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었다.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이렇듯 1930년대에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군사적 및 대중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었다.

［일화］

눈덩이를 굴려 깨우쳐주신 리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동강에로의 행군길을 이어가고있던 주체25(1936)년 3월 하순에 있은 일이다.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총멘 대오속에서 나이든 한 사민이 유표하게 눈에 띄였다.

그가 바로 리동휘의 영향밑에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뛰여들어 군비단의 한 성원으로도 활동한바 있는 《대통령감》 리동백이였다.

경신년 대《토벌》에 군비단이 흩어지자 그는 공산주의운동에 몸을 잠그었지만 파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고말았다.

돛도 키도 노도 다 없는 난파선마냥 바람이 부는대로, 파도가 떠미는대로 좌왕우왕하던 그는 파쟁의 세계에 침을 뱉고 화룡의 깊은 벽지에서 은둔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진정한 민족해방투쟁의 길에 나설수 있었다.

그무렵 전민족을 반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울 조국광복회 창립준비를 다그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행군의 휴식참에 리동백과 민족통일전선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프랑스, 에스빠냐, 중국 등에서는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같은 정당들과 로동운동단체들이 있어 정당, 단체들의 련합으로

인민전선결성이 가능하였지만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정당이나 합법단체도 사실상 없는것과 같은 조건에서 통일전선체조직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대통령감》의 견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눈덩어리 두개를 주시면서 합쳐보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히시고 작은 눈덩이 하나를 빚으시여 눈우로 굴리시였다.

잠간사이에 리동백이 합친것보다 더 큰 눈덩이를 만드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선생은 두 정당련합으로 한덩이를 만들었고 나는 작은 구심력을 굴려 그보다 더 큰 덩이를 빚었습니다, 이래도 꼭 정당이 있어야만 통일전선체조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시였다.

리동백은 요지경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수령님께서 만드신 눈덩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그것 참 오묘한 리치올시다. 그렇지만 눈덩이는 눈덩이고 정당이야 정당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는 흔연히 웃으시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자연현상가운데는 사회의 현상과 리치상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란 말입니다라고 하시며 길림시절부터 시종일관 고수해오신 통일전선정책과 각계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을 결속시키는데서 새 세대 혁명가들이 축적해놓은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통일전선이란 반드시 정당단체들의 련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당단체설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조가 된다. 군중이 있고 령도핵심만 있으면 능히 통일전선체를 내올수 있다. 목적과 지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열사람이건 백사람이건 묶어세워야 한다는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나의 견해이다. 우리는 이런 립장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켜왔다. …

그제서야 리동백은 뒤더수기를 툭툭 치며 웃었다.

《역시 교조가 문제이군.》

[일화]

사령부귀틀집에서의 청수봉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밀영에서 박인진도정일행을 만나시였을 때였다.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시계를 보시더니 밖으로 나가시였다.

교인들은 수령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있었다.

전령병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어서빨리 법랑식기에 깨끗한 물을 한그릇 떠오라고 이르시였다.

전령병이 의아해하자 수령님께서는 천도교인들에게는 밤 9시가 되면 청수를 봉전하는 법도가 있다고 조용히 일깨워주시였다.

천도교에는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등 교인들이 반드

시 준수해야 하는 5관공덕이 있다.

놋그릇에 청수를 떠서 모시는것을 청수봉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도교세계에서 단 하루도 어길수 없는 법도였다.

청수는 천지의 근본을 상징하며 거기에는 천지의 은덕을 잊지 않으려는 교인들의 맹세가 담겨져있다.

천도교의 시조인 최제우가 효수를 당하는 최후순간에도 청수를 떠놓았기때문에 교인들은 시조의 령혈을 상징하는 청수봉전을 전통적으로 법도화, 관습화해온것이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방으로 들어오시여 박인진도정에게 청수를 봉전할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물그릇을 상가운데 놓도록 하신 수령님께서는 도정에게 성지의 물인데 놋그릇대신 법랑그릇에 담아오게 해서 안되였다고, 놋그릇이 아니라고 나무람마시고 어서 청수를 모시라고 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놀라 굳어졌던 도정은 감개무량해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천도교를 숭상치도 않는 장군님네 군영에 와있으면서 제 어찌 감히 청수봉전을 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학당란때 동학도들은 전장에서도 매일 청수를 떠놓고 주문을 외웠다던데 도정어른께서 수십년간이나 지켜온 법도를 우리 밀영에 왔다고 해서 어찌 어기겠습니까? 어서 마음놓고 주문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

수령님께서는 굳이 사양하는 도정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

에도 인륜적평등과 신앙의 자유보장을 밝히고있는데 무신자의 앞이라 하여 신앙심이 남달리 강한 도정님이 평시의 법도를 단 한번만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자신께서 오히려 미안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거듭 청수봉전을 권하시였다.

잠시후 사령부귀틀집에서는 천도교인들의 청수봉전이 진행되였다.

도정은 청수를 모시고 앉아 21자의 주문을 외웠다.

거듭 세번을 외운 다음 물 한모금을 마시고나서 숙연한 자세로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백두산곡의 청수가 참 별맛입니다. 우리 나라 조종이 마시던 물로 청수봉전을 하였으니 오늘 저녁 일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장군과 같은 무인이 우리 교의 법도를 이처럼 존중해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였다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1 장

필승의 신념안고 조국해방 위업을 완수하자

소할바령에서

1940년대에 이르러 국내외정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1939년 9월 파쑈도이췰란드의 뽈스까침공을 계기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은 1940년 봄부터 유럽 전 지역을 휩쓸면서 세계적판도로 급속히 확대되고있었다.

불의의 침공으로 뽈스까를 강점한 파쑈도이췰란드군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1억 770만명의 인구가 사는 단마르크와 노르웨이, 룩셈부르그와 네데를란드, 벨지끄, 프랑스 등의 광대한 령토를 강점하고 전선을 계속 확대해나갔다. 파쑈이딸리아는 도이췰란드측에 가담하여 동남유럽과 동북부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도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끝내지 못한채 동남아시아 지역에로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미쳐날뛰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1938. 2.), 《국민징용령》(1939. 10.) 등과 같은 악법들을 련발하면서 조선청년들을 학도병, 징병, 징용의 명목밑에 강제로 끌어가 저들의 총알

받이로,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다.

당시 일제가 조선청년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끌어갔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설복하여 모집에 응하도록 하는것으로써는 좀처럼 예정수자를 채울수 없었다. 그래서 군이나 면(촌) 등의 로무계가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불의에 남자가 있는 집의 침실을 습격하였으며 혹은 논이나 밭에서 일하고있는 한복판에 트럭을 돌리고 다짜고짜로 거기에 실었다.》(《조선신화》(일문) 창원사 1952년판 320페지)

일제가 저들에게 원한을 품고있는 식민지의 청장년들까지 대포밥으로 끌어갈 지경이 되였으니 병력의 부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9. 18사변후 7. 7사변전까지 일제는 만주에서만도 근 20만명에 달하는 병력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일제가 보유하고있는 전략물자의 예비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다.

1937년 하반기까지만 하여도 1920년대에 생산한 탄알들을 사용하였다면 1940년 하반기부터는 1939년이후에 생산한것을 쓰고있었다.

일본의 정계도 매우 복잡하였다.

사흘이 멀다하게 내각이 교체되였고 군부가 여러파로 갈라

져 옥신각신하다나니 작전에서 통일성과 협동도 보장할수 없었다.

게다가 로자간의 모순, 군민간의 모순, 종주국과 식민지간의 모순이 폭발직전에 이르고있었다.

전반적인 정세는 일제의 멸망이 시간문제이며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 날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릴수 있는 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10년간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방침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8월 각지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정간부들을 돈화현 소할바령으로 부르신 후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회의장소로 향하시였다.

소할바령은 돈화현과 안도현의 경계를 타고 뻗어내린 할바령의 꼬리부분이다.

주력부대가 어느 한 수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목단령의 남쪽경사면 오솔길을 따라 령마루로 치달아오르고 있는데 방차대에서 적의 대부대가 바싹 붙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무렵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쏘중량방면에서의 동시작전》도 불가능하며 아시아제패의 야망도 실현할수 없다고 인정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해보려고 전례없는 《토벌》공세를 감행해나섰다.

일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안도현을 중심으로 화룡, 연길, 돈화, 화전, 무송은 물론 국내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백두산동북부의 험한 골짜기들에까지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는데 써먹을 도로를 건설하였다.

이 군용도로들의 건설정형은 《노조에토벌사령부》를 거쳐 관동군사령부에까지 매일같이 보고되였다.

령만 떨어지면 이 도로들로 조선과 동북땅 여기저기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활동하고있는 지역으로 숱한 병력들이 쓸어들판이였다.

그것도 모자라 곳곳에 야전비행장들까지 건설하였다.

한편 일제는 《노조에토벌사령부》를 길림에서 연길로, 연길에 있던 《동지구토벌대》사령부는 도문으로 옮기려고 획책하면서 많은 병력을 조선인민혁명군《토벌》에로 내몰고있었다.

이날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적들도 바로 그런 부대들중의

하나였다.

정황은 참으로 위급하였다.

자칫하다가는 령마루에서 적들과 이마를 맞대고 싸워야만 하였다.

대원들은 이런 정황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질가 하는 생각을 안고 행군을 계속하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오솔길옆의 수림속으로 들어가 은페할것을 지시하시였다.

잠시후 수백명이나 되는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행군해가던 오솔길을 따라 헐레벌떡하며 지나가고있었다.

잡관목수림속에 들어가 전투준비를 갖추고 은페해있던 대원들은 이제나저제나 사격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뜻밖에도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되 먼저 사격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였다.

대원들모두는 의아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대원들에게 여기서 적들과 싸우는것은 불리하다고 하시면서 수많은 적들이 좁은 오솔길에 들어서서 행군하는 조건에서 적들과 싸워서 몇놈이나 소멸하겠는가, 잘못하면 적들의 포위에 걸려들어 고생할수도 있고 정황으로 보아도 적과 싸우는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또 이 일대에서 중요한 회의도 해야겠는데 적들과 여기서 싸워서는

안된다, 우리가 총소리를 내면 이모저모로 불리하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과 전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부대는 안전한 지대를 차지하고 철저히 위장하였다.

한참후에 적들의 선두척후에 이어 본대가 들어섰다.

오래동안 《토벌》에 내몰리여 그런지 몰골이 말이 아니였다. 어데서 떠났는지 걸어가는 꼴을 보니 지쳐서 한발자국을 움직이기도 힘들어하였다. 장교놈의 벼락치듯 하는 호통소리에 겨우 대오가 유지되여 움직이고있었다.

한바탕 족쳐댔으면 그 자리에 다 거꾸러지게 할수 있을것만 같았다.

지루하게 지나가던 적행군대오가 멀리 사라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대원들에게 왜놈들을 한바탕 족치고싶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대원들은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러나 지금은 안된다고, 총소리를 내면 우리의 위치가 폭로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삽시간에 여기에 《지구토벌대》요, 《소지구토벌대》요 하는 놈들이 다 집중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회의도 할수 없고 회의대표들도 찾아올수 없게 될것이라고, 저놈들은 우리가 대석두일대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고 달려가는 놈들이므로 실컷 가서 할바령

산줄기를 뒤져보라고 놔두어야 한다고, 그사이에 우리는 여기서 회의를 하면 된다고 하시였다.

대원들은 그제서야 수령님의 의도를 알게 되였다.

지휘성원들이 회의장과 숙영지를 어디에 정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어디는 어디겠는가, 적들이 한시간씩이나 지나가면서도 우리 부대가 있는 곳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또 저들이 지나간 곳에서 우리가 숙영하며 회의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것이 뻔하지 않는가, 여기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짜기가 있겠는데 그곳에는 샘물도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회의장소는 적들이 지척에서 오가는 오솔길옆에 정하여지게 되였다.

회의장소의 앞에는 새초밭이 펼쳐져있었다.

후날 적들은 길손들의 왕래가 빈번한 그 위험한 곳에서 유격대가 보란듯이 숙영지를 꾸리고 회의를 하였다는것을 알고 너무도 놀라와 기절초풍하였다.

소할바령회의는 1940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지난 10년간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잘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잘하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당, 정권, 무력을 창건할수 있는 준비를 갖출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회의과정에 크게 론의된 문제는 앞으로의 전략적단계를 혁명적대사변의 시기로 규정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조국해방을 성취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물론 지금도 일본군대는 강하다, 그러나 망해가는 군대이다, 일본군이 망해가는 군대라는것은 관동군의 정예라고 하는 공군부대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실만 보고서도 알수 있다, 도주자와 의거자가 속출하기때문에 중일전쟁마당에서도 그 단속을 하느라고 쩔쩔맨다고 한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본이 패망할 날도 오래지 않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데서 일본의 국책이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을 리용하여 동남아시아를 치자는 속심을 공공연히 내비친것으로서 만일 일본이 그쪽으로 진출하는 경우 그것은 그들자신이 제 무덤을 파는 길로 되리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였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나서는 전략적과업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선혁명의 중추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는것입니다.》

이 전략적과업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이 명시되여있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은 적아쌍방의 정치군사적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동원되는 최후결전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 결전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매개 대원들이 종전보다 몇등급 높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조국이 해방되면 그들이 핵심이 되여 새 조국건설도 해야 하였다.

최후결전과 새 조국건설, 이 두가지는 우리 나라의 력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략적과제였다.

결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신해줄수 없었다.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 해야 하고 우리 민족이 해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으신것은 장기간의 민족해방투쟁과정을 통해 마련된 주체적력량뿐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참가한 지휘성원들에게 우리가 주인이 되여 최후결전을 벌릴 때 남들이 스스로 우리를 도와주면 좋은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동무들, 수준을 두세등급씩 높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지휘성원들은 다들 자신이 있다고 대답올렸다.

수령님께서 전민을 무장시켜 항쟁에 동원시킬수 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도 해낼수 있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이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의에서 이 안이 제기되자 적이 도처에서 대무력으로

달려들 때 우리가 대부대로 맞서지 않고 소부대로 대결하게 되면 각개격파당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사람들에게 대부대전성기는 지나갔다, 대부대로 와와 밀려다닐 때가 아니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적들이 대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단꺼번에 그물에 잡아넣어 일망타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대부대작전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적들의 계책에 빠져 자멸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말하자면 호박을 쓰고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격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소부대단위로 움직이면서 싸움도 하고 대중정치사업도 하면 식량도 쉽게 해결할수 있고 기동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식량을 해결하려다가 적들에게 희생되였는가, 그런데 그렇게 목숨과 바꾼 식량도 대부대가 나누어 먹다나니 얼마 못 가고 인차 바닥이 나군 하지 않았는가, 소부대로 활동하게 되면 적의 력량도 최대한으로 분산시킬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봄과 여름에 진행한 소부대타격전의 전 과정이 증명해준다고 말씀하시였다.

원래 최후발악하는 적들과 정면으로 맞서 력량을 소모약화시키는것은 유격대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많은

적을 소멸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격전쟁의 요구에도 어긋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여야만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최후발악하는 조건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 일제에게 끊임없는 타격을 주면서 자기의 력량을 보존축적해나갈수 있다고 보시였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다.

그래야만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도래할 때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배합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면 수많은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를 편성하여 광범한 인민들을 조직화하고 각성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릴수 있었으며 민족주체적력량을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소조들이 광범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확대하며 인민대중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일제의 패망의 불가피성을 알려주어 결정적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결전에 호응해나설수 있도록 그들을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조선과 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소부대군사활동을 령활하게 전개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처에서 령활한 습격전투를 끊임없이 벌려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대중속에서의 정치활동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하는 동시에 적의 무력배치상태와 군사요새지, 군사시설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매개 전사들과 지휘간부들이 정치의식수준을 높이고 풍부한 군사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리론학습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유격전술에 정통하고 현대전에 필요한 선진군사지식과

각종 병종기술을 배울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으로 세계의 모든 혁명적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방침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항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소할바령회의는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그에 맞는 전략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와 해방된 조국에서의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소할바령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은 새로운 전략적단계, 항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소부대군사정치활동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활동조건은 날이 갈수록 간고해졌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군사적공세와 경제적봉쇄, 사상적와해공작 등 일제의 발악적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토벌》공세가 더욱 악랄해지는 속에 식량난까지 겹쳐들었다.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자 대렬안에서는 일부 동요하거나 승리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로되였다. 지어 변절자들까지 나타났다.

사령부가 맹산촌오지에 자리를 잡았을 때였다.

어느날 대원들은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만주일판을 뒤덮은 일제《토벌대》의 발악적인 공세가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오안에서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것이다.

발재툰에서는 왕청유격대에서 중대장까지 하였던 변절자가 나타나 감히 《귀순》을 떠벌였고 황구령에서는 한 대원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사령부의 위치를 맹산촌오지로 옮기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놈이 변절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자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하는 바람에 저장해 놓았던 겨울나이식량마저 적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였다.

일부 대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준엄한 현실은 량심과 의리가 없이는 신념을 지켜낼수 없으며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10월 중순 사령부직속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지휘관, 대원들이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나가도록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실 목적에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였다.

정세는 엄혹하고 더 간고해진다. 우리 혁명위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가 독립되리라는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있는바이지만 그런 날이 언제쯤 오겠는가 하는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10년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 싸웠지만 그런

고생을 이제 5년 더 하게 될지 10년 더 하게 될지 그것은 찍어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것이다. …

마디마디 심금을 울리는 말씀에 장내는 숨소리마저 멎은듯하였다.

모두가 자기들이 걸어온 시련에 찬 길과 오늘의 준엄한 난국을 생각하면서 신념과 의지, 량심과 의리에 티가 없었는가를 돌이켜보게 하는 순간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물론 이 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난관보다 몇배, 몇십배 더 큰 난관도 있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려비도 주고 길량식도 주겠다. 그리고 투쟁을 중도반단한데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겠다. 힘이 약하고 신심이 모자라서 대오를 떠나는거야 어떻게 하겠는가. 갈 사람은 가라. 그러되 인사는 하고 가라. …

순간 주위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깃들었다.

그것은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도 끝까지 혁명을 하겠다는 신념의 선언이였다. 원쑤를 치고 기어이 해방의 날을 안아

오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였다.

혁명은 억지로는 못한다, 그러나 고난은 일시적이며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굳게 확언하시는 그 말씀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장군님, 혁명이 성공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일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장군님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동지들을 배반하고 산에서 내려가 적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살바엔 여기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과 생사를 같이하겠습니다.》

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민족해방투쟁의 길에 바친 자신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들모두를 힘껏 포옹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잊을수 없는 그때를 회고하시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맹산촌오지에서 열린 회의, 그것은 서로 떨어질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되는 사령관과 전사들의 혼연일체, 지도자와 대중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다시한번 확증한 회의였습니다.》

1941년 봄에 들어와 정세변화에서 충격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이전 쏘련과 일본사이에 중립조약이 체결된것이였다.

일제가 쏘련과의 중립조약을 체결한것은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한것이였다.

당시 일제는 호시탐탐 쏘련을 침공할 북진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일본과 파쑈도이췰란드는 쏘련을 칠 때 서로 협력하기로 밀약하였으며 우랄을 경계로 하여 쏘련의 광활한 령토를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한쪽씩 차지한다는 분배안까지 짜놓았다.

그런데 국력이 딸리는 일본으로서는 아직 쏘련침공이 시기상조였다.

일본군부에서는 남진론이 우세하였다.

동남아시아를 타고앉아 전략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해두었다가 파쑈도이췰란드가 쏘련에 치명상을 입힌 다음 원동으로 쳐들어가 우랄계선까지 단숨에 집어삼키자는것이 일본의 속심이였다.

쏘련과의 중립조약은 이 시간표에 따르는 하나의 사기극이였다.

일본의 속심을 모르지 않는 쏘련이였다.

하지만 일본과 파쑈도이췰란드의 합작에 의한 동서협공을 피하고 동서 량면전쟁을 지연시킬 전략적의도와 목적에서 1941년 4월 13일 일본과의 중립조약에 조인하였다.

일제는 쏘일중립조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사상적공세에 열을 올리였다.

어용출판물들은 쏘련과 일본이 중립조약을 체결했고 일본군은 중국에서 계속 승리하고있다, 인민혁명군은 고립되였으며 바다에 뜬 좁쌀알과 같다, 독립할 가망이 없는데 투항하라는 내용의 글들로 지면을 어지럽혔다.

일제의 주구들과 변절자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몇명 안되는 소부대를 이끄시고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을 지도하고계시였다.

큰곰의골림시비밀근거지에서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을 지도하고계시던 수령님께서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집단부락에 대한 습격전투를 조직하기 위해 정찰조를 파견하시였다.

정찰조는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서 신문 한장을 얻어가지고 와 수령님께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을 보고나신 후 대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보라고 하시였다.

신문을 받아읽던 대원들의 눈은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신문에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된 내용이 실려있었기때문이였다.

특히 신문에서 쓰딸린과 일본외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고 일부 대원들은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이 어떻게 적대국인 일본과 손을 잡을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종잡지 못해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신문을 보고나니 소감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였다.

◇자료◇

쏘일중립조약

1941년 4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쏘련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조약.

쏘련은 당시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한 반쏘전쟁의 위험이 커가고있던 조건에서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이췰란드, 일본 두 파쑈세력의 자기 나라에 대한 동시적인 공격을 막으려고 하였다.

한편 일제가 이 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쏘련으로 하여금 원동지방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게 한 다음 유리한 시기에 쏘련에 대한 배신적공격을 감행하며 당면하게는 북방의 쏘련과의 무력충돌을 일시 피하면서 남방에 대한 침략을 확대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자신께서 이미 예견하고있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약이 체결되게 된 내막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였다.

그제서야 대원들은 그처럼 의혹을 자아내던 쏘일중립조약의 진속을 알수 있었다.

다음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손에 총을 잡고 싸움의 길에 나설 때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자는데 있었다.

조약은 쌍방간에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호상 령토완정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것, 체약국중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일방은 중립을 취할것,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기한만료 1년전에 페기통고가 없으면 다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조약조인과 함께 일제는 몽골인민공화국, 쏘련은 《만주국》의 령토완정을 존중하며 그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이 조약은 도이췰란드와 일본간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쏘련의 대도이췰란드전쟁수행에 일정하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쏘련정부는 일제가 쏘일중립조약자체를 파괴유린한 조건에서 1945년 4월 5일 이 조약을 페기하였다.

과연 우리가 남의 힘을 믿고 내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고 생각했는가.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반일애국의 기치밑에 2천만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일심단결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자고 생각했다. …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동무들은 쏘련이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있는가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인인 우리가 신심을 잃고 나앉는다면 일제의 구두발에 짓밟혀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겨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외적의 침입을 제힘으로 물리쳐온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라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고, 지난 10년동안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조선인민혁명군이 있으며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의 기치밑에 반일광복을 지향하는 수십수백만의 각계각층 군중이 있다고 하시였다.

일부 대원들이 순간이나마 마음속의 동요를 가져왔던 자신들을 심각하게 돌이켜보고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제의 앞날도 멀지 않았다.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놈들의 운명도 그리 오래갈것 같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제힘으로 끝까지 싸워이기고야말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한다.

나는 동무들이 앞으로 꼭 그렇게 싸우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

밤은 깊어갔지만 대원들은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고 조국해방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올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가 일시적이나마 대오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데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사실 그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자 앞날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은 쏘련과 일본이 전쟁을 해야 조선해방을 위한 결정적계기도 마련될수 있고 쏘련과 같은 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일본도 타승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랄수 없게 되였다고 비관하면서 대렬에서 떨어져나가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도현 대전자를 거쳐 어느 한 림시비밀근거지에서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을 지도하시던 1941년 봄 어느날이였다.

그때 공작을 나갔던 어느 한 소조에서 한명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도현 왕바버즈라는 곳에 소조를 책임지고 나갔던 지갑룡이 쏘일중립조약체결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고 사상적동요를 일으키던 나머지 도주하고말았던것이다.

지갑룡의 변절사건의 진상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즉시 행군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아니나다를가 그때 멀리 골짜기아래에 적들이 나타났다.

소부대는 재빨리 림시기지에서 철수하여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였다가 그곳에 달려들어 헤덤비는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갈기고 쭉 빠져 자취를 감추었다.

며칠후 각지에 나갔던 소조성원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게 되였다.

그들은 지갑룡의 배신행위를 알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지갑룡으로 말한다면 근 10년이나 유격대생활을 해온 자였다. 공로도 세워 중대장까지 했던 경력을 가지고있었다.

혁명군생활을 몇년밖에 못한 다른 대원들에 비하면 대단한 선배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 그가 배신의 길을 걷다니…

모두가 이 믿어지지 않는 엄연한 현실앞에서 치를 떨고있을 때 수령님께서는 소부대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였다.

지갑룡의 배신행위가 쏘련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이 빚어낸것

이라고 서두를 떼신 그이께서는 지난날 일부 지휘성원들이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쏘련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였으며 그로 하여 쏘련에 대한 의존심이 무장대오안에 조성되였다고, 결과 우리의 일부 대원들속에서 쏘련에 대한 사대주의가 생겨나고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는 민족허무주의가 조장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지갑룡의 배신은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데로부터 생긴 사건이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이 없으면 혁명가의 생명은 끝장이라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자기 힘, 자기 인민의 힘을 믿는데서 생기며 자기 령도자, 자기 집단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갑룡은 혁명의 신념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마저도 다 줴버린 인간추물이다, 10년동안이나 생사를 같이하던 동지들과 집단을 버리고 원쑤의 품으로 기여들어가는 놈을 량심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수 없다고 단죄하시고는 근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노래에도 있다싶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고 합시다. 그런 패배주의자, 사대주의자가 없어지면 우리의 대오는 더욱 순결해질것이며 더욱 강철로 다져질것입니다. …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던 수령님께서는 오늘의 교훈에서 찾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대원들모두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희에 찬 눈길을 주고받을 때 수령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시작할 때 우리의 힘,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자고 했지 남의 힘을 넘겨다보면서 그것을 믿고 혁명을 하려고 생각한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조선혁명을 완수할만 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 있어도 큰 힘이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고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들이 국내에 쫙 퍼져있으며 그 주위에 각성된 우리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뭉쳐가고있다. 그들은 투쟁목표를 명백히 알고있으며 투쟁방식과 방법도 알고있다. 투쟁목표와 방법을 아는 인민은 반드시 거족적힘으로 들고 일어날것이다. 그때의 그 힘을 생각해보라. 그 힘은 저수지의 보뚝이 터진듯, 산사태가 인듯 막을수 없는 거대한 힘이다. 우리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은 이 위대한 힘을 똑바로 볼줄 알아야 하고 이 위대한 힘을 발동시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본래 혁명이란 자기자신의 사상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것이지 누가 가져다주는것도 아니고 사고

팔고 하는것도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앞길에 어떤 불바다, 가시덤불이 가로놓인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용감무쌍하게 앞으로만 나아갈것이다. …

그이의 말씀이 끝나자 온 대오가 일어섰다.

서로 팔을 끼고 환호를 올리는 그들의 심장마다에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조선혁명을 완수할 신념의 맹세가 세차게 고패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0(1941)년 6월 백두산지구의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조 및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지난 4월 13일에 체결된 쏘일중립조약의 정치군사적 및 계급적본질에 대하여 천명하시고나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러자면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성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그래야

제정신을 가지고 제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성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소할바령회의방침대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책임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조국해방의 날을 더욱 앞당기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백산밀영에서 계획하신 일을 끝내시고 백두산밀영으로 돌아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 이번 회의정신에 따라 국내와 장백일대의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정세의 추이로 보면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한 쏘도전쟁의 발발이 시간문제로 되고있다는데 대하여서와 모두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대사변준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곳 사업은 전적으로 김정숙녀사에게 맡긴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백두산밀영을 뜨는 기간 녀사께서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도록 하시였다.

이튿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의 군사정치활동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소부대를 이끄시고 백두산밀영을 떠나시였다.

［일화］

사연깊은 꼬치떡

사령부직속부대가 하마탕부근의 산속에서 숙영하게 되였을 때였다.

백초구골안에서 되게 얻어맞은 적《토벌대》가 언제 또다시 달려들지 모르는 형편에서 대원들은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있었다.

지형조건을 예리하게 살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잘못하다가는 대낮에 적의 포위속에 들수 있다고, 이런 때는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대로 적의 턱밑에 들어가 숨는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소부대는 하마탕마을가까이의 야산에까지 내려가 이삭만 잘라가고 대는 그냥 밭에 서있는 조밭가운데 은페하게 되였다.

조밭고랑에 들어가 꼬박 하루낮을 보냈는데 《토벌대》놈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적들은 이런 곳에 유격대가 숨어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헤매면서

허탕을 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적들과 조우전을 할 때 가마가 깨여져서 밥을 지어 먹을수 없는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안타까운 눈길로 조발고랑에 맥없이 드러누워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였다. 닦은 강냉이로 끼니를 때고있는 대원들생각으로 가슴이 아프시였던것이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정숙녀사께서는 한 대원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그를 데리고 샘물터로 가시였다.

샘물터에 이른 대원이 영문을 몰라하자 녀사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꼬치떡을 만들어보자고 하시고는 마른 싸리나무가지를 주어오라고 이르시였다.

그가 너무 좋아 얼른 마른 싸리나무삭정이를 한아름 안고 돌아오니 녀사께서는 벌써 배낭에서 비옷을 꺼내여 그것을 펴놓고 그우에서 밀가루반죽을 하여 꼬치떡을 빚고계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원에게 꺾어가지고 온 싸리나무가지에 꼬치떡을 꿰고 불을 피우라고 하시였다.

그는 모닥불을 피우고 녀사가 가르쳐주신대로 싸리나무가지에 꼬치떡을 꿰여 불에 굽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꼬치떡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누렇게 구워졌다.

잠간사이에 꼬치떡을 다 만드신 김정숙녀사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였다.

꼬치떡을 받아드신 수령님께서는 무척 놀라와하시며 어떻게

이런것을 다 만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사께서 웃으시며 간단히 설명해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머리를 쓰면 좋은 방도가 나온다고 하시며 어서 대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시였다.

꼬치떡이 도착하자 맥없이 누워있던 대원들이 환성을 질렀다.

그리고는 저저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하, 이거 정숙동무덕에 세상에 없는 떡을 다 먹어보는구만.》

《야! 이 꼬치떡 찰떡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구만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예요.》

자력독립, 필승의 신념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부대를 이끄시고 백두산밀영을 떠나신지 얼마 안되던 1941년 6월 22일이였다.

이날 새벽 파쑈도이췰란드는 불가침조약을 짓밟고 이전 쏘련에 대한 배신적인 무력침공을 불의에 감행하였다.

쏘도전쟁이 개시되자 일제는 등이 달아 날치면서 쏘만국경일대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하였다.

조만간에 쏘일전쟁이 터질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소부대는 왕청방향으로 행군길을 다그치고있었다.

어데 가나 일제《토벌대》가 누렇게 깔려있었다. 신작로에는 물론 산꼭대기와 골짜기 등 없는데가 없었다.

소부대의 행군로상에는 경도선철도가 놓여있고 로두구라는 거리가 있었다.

이곳을 통과해야만 사방대수림으로 통하는 산발에 붙을수 있었고 그래야 목적한 곳으로 갈수 있었다.

연길현 로두구는 적들의 군사적거점의 하나로서 관동군의 헌병대와 특수부대, 위만군과 경찰 등이 틀고앉아있는 곳이였다. 낮에 이 부근을 통과하는것은 매우 위험하였다.

이러한 형편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야간에 로두구부근에서 철도를 횡단하여 수림지대에 자취를 감출것을 결심하시였다.

그런데 대오가 적들의 삼엄한 경계지점들을 피하면서 행군하다나니 철도를 건너서기 전에 날이 밝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대통로결에 있는 농가들에 들어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휴식하도록 하시였다.

점심때쯤이였다.

누르스름한 양복을 입은자들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문을 벌컥 열어제끼며 방으로 들어섰다.

협화회놈들이였다.

수령님께서 우리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직방 말해주자 놈들은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화회 회장이라는자가 가져온 신문을 보고 쏘도전쟁이 일어난것을 알게 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자에게 우리가 마을을 떠난 다음 경찰에 가서 **김일성**부대가 대낮에 로두구시가지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통보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그 보고를 받은 적들은 **김일성**부대가 저들의 코앞에서 밥도 해먹고 여유작작하게 낮잠까지 자고 갔다니 천하에 이런 변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하였다.

한명의 손실도 없이 왕청현 쟈피거우림시비밀근거지에 도착하신 수령님께서는 6월 30일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파쑈도이췰란드의 쏘련침공과 관련하여 급변한 안팎의 정세를 분석하신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소부대, 소조들은 물론 국내지하조직성원들과 인민들속에서도 자력독립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쟈피거우회의후 연길현 명월구와 왕청현

십리평일대에서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과 지하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국내 온성일대의 형편을 료해하시였다.

그곳의 실태도 다른 지역들에서와 마찬가지였다. 신념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속에서 일시나마 마음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온성지구에 나가 두만강연안일대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에게 확고한 자력독립사상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며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1년 7월 중순 소부대를 이끄시고 십리평을 떠나 온성으로 향하시였다.

석두하자를 지나 골방령을 넘어 국내 온성땅이 마주보이는 어느 한 산기슭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온성지구에서 활동하고있던 소부대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두만강을 건너 온성군 풍리리 탁상골에 이르시였다.

탁상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야산이였다.

하지만 여러 갈래의 산발들과 잇닿아있어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유리하고 회의에 참가할 성원들이 모이기에도 편리한 곳이였다.

그때 이곳에는 18채의 농가가 있었는데 모두가 1930년대

전반기부터 지하조직에서 활동하거나 그 영향밑에서 유격대를 도와나선 사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밤 소부대책임자와 온성반일회책임자로부터 이곳 형편을 자상히 알아보시였다.

그 시기 온성농민상조회사건으로 이곳의 수많은 조직성원들이 왜놈들에게 붙잡혀가고 조직은 파괴되였었다.

소부대책임자는 그동안 투옥된 조직성원들이 감옥안에서 벌린 투쟁과 감옥에서 나온 후 생활 그리고 이곳 온성지구 당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과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이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간악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의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있기마련이며 그러한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과정에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해왔고 그속에서 수많은 혁명가의 대오가 자라났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직을 복구정비하고 확대강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놈들의 폭압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직을 보호하는 사업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탁상골 소나무숲속에서 두만강연안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정치공작원 및 지하혁명조직

책임자회의를 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국내와 두만강연안일대에서의 일제의 책동과 주민들의 사상동향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필승의 신념안고 우리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한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고 쏘도전쟁이 일어난 후의 내외정세를 상세히 분석하신데 이어 조성된 정세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의 힘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앞에 나서는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성원들과 인민들에게 내외정세의 발전추세와 일제멸망의 불가피성,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사대주의사상경향을 뿌리뽑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하여서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잘 깨우쳐주어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하겠다는 강의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음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도 광범한 대중을 필승의 신념과 자력독립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반일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결속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핵심을 료해장악하고 조직들을 끊임없이 늘여 그 두리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력량을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힘이 일정하게 준비되고 축적됨에 따라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일제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과 략탈정책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국내의 모든 조직들이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서와 그를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가 끝난 후 온성지구 당핵심성원들을 따로 만나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온성지구 당조직의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온성지구 당조직은 온성농민상조회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된 관계로 일시 파괴되였고 또 그들이 석방된 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일투쟁을 벌렸지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소부대는 쏘일중립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사람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사대주의사상과 신념이 부족한 현상들을 제때에 바로잡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도 잘하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온성지구 당조직을 시급히 복구발전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고나서 조성된 정세하에서 혁명가들이 견지하여야 할 신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확고한 자력독립의 사상과 필승의 신념이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정세가 어려워지고 정황이 복잡해질 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혁명적신념마저 저버리게 된다.

필승의 신념이 없으면 어렵고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동요하거나 떨어져나갈수 있다는것을 지나온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수 있다.

오늘 조성된 준엄한 정세는 확고한 자력독립의 사상과 필승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굴함없이 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동무들은 이 어려운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

급변하는 정세와 일제의 검거선풍앞에 주눅이 들어있었던 온성지구 당핵심성원들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수령님의 말씀에서 확고한 자력독립사상과 필승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성지구에서의 사업을 마치시고 그날 저녁 두만강을 건너 쟈피거우림시비밀근거지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월 28일 왕청현 쟈피거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신 목적은 쏘일중립조약의 체결과 쏘도전쟁의 발발로 국제무대에서 생긴 정세의 격변과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장병들과 소부대성원들에 대한 사상동원을 하자는데 있으시였다.

쏘도전쟁의 발발을 두고 소부대성원들속에서는 론의가 분분하였다.

쏘도사이의 전쟁이 조선혁명에 유리한 전망을 열어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쏘련이 동서에서 두 강국의 협격을 받게 되면 조선혁명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세계정세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쏘련침공이 현실로 될 때 가늠해볼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이런 론의를 시급히 하나의 견해로 통일시키고 모든 대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로 그들을 더욱

더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쟈피거우에서 회의를 여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소할바령회의후 각지에 파견되였던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활동정형을 총화하신 다음 국제정세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쏘도전쟁의 전망을 보나, 쏘일중립조약의 장막속에서 일제의 책동에 의하여 첨예화되고있는 쏘일간의 모순으로 보나 전반적정세는 항일혁명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유리하게 변화발전하고있다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에게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또한 조성된 어려운 정세하에서 우리자체의 힘을 굳게 믿는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자신이라는 자각과 우리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도래하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래하는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력량을 철저히 준비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 소조활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차후 소부대활동방향에 대하여서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쟈피거우회의후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두만강연안과 국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실천적모범에 고무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은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오안에서 사대주의의 사

상적요소들을 뿌리뽑고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속에서는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조성되기만을 기다리거나 다른 나라의 힘에 의거해보려던 사대주의사상이 없어지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투쟁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되였다.

미래에 대한 락관

사상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타락한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세계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없다.

싸움에서의 승패는 무엇보다 군대의 사상과 정신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창해의 일속》, 이 말은 바다속의 좁쌀알만 한 존재라는 뜻으로서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비속화하여 한 말이였다.

실지로 안도의 밀림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 당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무장대오가 100만의 일본관동군, 비행기와 땅크와 같은 현대적무기로 장비한 정예무력에 파렬구를 내며 나날이 승승

장구하고 강화발전되게 된 근본비결은 바로 사상정신적우월성에 있었다.

1936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로령과 시난차, 서강, 대영 등 여러 전투들에서 거둔 성과를 몹시 부러워하던 구국군 부대장 만순은 위대한 수령님께 김사령은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싸우기에 련전련승하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군인들의 정신상태라고 말씀해주시였다.

항일유격대의 사상정신상태가 항일대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고 확신하신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초기부터 대원들모두를 불굴의 애국신념과 굳센 의지를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담대한 배짱가들로 키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바로 이 나날에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일떠선 로흑산의 전설과 천교령의 기적이 이룩되고 고난의 행군정신이 창조되였다.

민족의 정기가 사멸당하던 엄혹한 정세속에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우리 겨레를 조국해방성전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한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전투와 같은 국내진공작전들이 단행되였다.

항일투사들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날아오는 적탄도 한

가슴으로 막아나섰으며 사령부로 가장하고 수천의 적을 달고 나팔소리를 울렸다.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개척하고 세계혁명전쟁사에서 첫 육탄영웅으로 기록된것도 항일의 투사였다.

항일투사들은 적들의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혀를 끊으며 혁명적지조를 지켰고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사형장에서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다. 기어이 살아 원쑤를 치기 위해 혁명가요를 부르며 썩어들어가는 자기의 발을 양철톱으로 스스로 자른 투사도 있었다.

항일투사들은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소유자들이였을뿐아니라 미래에 대한 드팀없는 락관을 가지고 민족해방위업의 길에 나선 락천가들이였다.

신념과 의지는 미래에 대한 락관에 기초할 때 더욱더 강한 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사기가 없이 우울하게 생활하는 군대는 단결도 안되며 싸움도 잘할수 없다고 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때일수록 대원들이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1939년 11월 하순 대부대선회작전의 1단계작전인 돈화원

정과정에 있은 가재잡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실례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안도현의 여러 마을들을 동시에 습격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사도백하의 어느 수림속을 행군하고있었다.

두도백하니, 이도백하니, 삼도백하니, 사도백하니 하는 송화강상류일대는 원래 진펄과 원시림이 많아서 포수들도 잘 다니지 않는 지대였다.

인적이 없는 이런 곳으로 내처 행군해가다나니 어데 가서 식량을 구할데가 없었다. 산짐승 한마리 얼씬하지도 않아 부대의 식량사정은 말이 아니였다.

게다가 《토벌대》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식량공작도 할수 없었다.

대원들은 진대나무를 타고넘을 힘마저 없어 매번 그것을 에돌아가군 하였다. 어쩌다가 휴식구령이 내리면 땅바닥에 노그라지든가 아무데나 드러누워 피곤을 풀군 하였다.

출발구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대원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용기를 내라고, 이런 때일수록 기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목적지에 가면 놈들을 일격에 쳐부시고 푸짐하게 차리자고 하시면서 주저앉은 대원들을 부축하여

일으켜세우고 고무해주시였다.

행군이 계속되던 어느날이였다.

부대가 약간 경사가 진 펑퍼짐한 릉선을 따라 내려가고있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휴식할것을 명령하시였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풀썩풀썩 주저앉아 나무등걸에 기대여 비스듬히 드러누웠다.

그이께서는 가까이에 있던 몇몇 대원들에게 릉선을 따라 얼마간 내려가 주위의 정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시였다.

잠시후 릉선을 따라 내려갔던 대원들이 돌아와 개울물이 흐르고있을뿐 별다른 정황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르시고는 몇몇 대원들과 함께 개울쪽으로 내려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군복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찬물속에 들어서시였다.

그리고는 가만가만 돌을 들추면서 그밑을 더듬기 시작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큼직한 가재 한마리를 물가에 던지시자 대원들이 《가재다!》 하고 일제히 환성을 올렸다.

그이의 의도를 알아차린 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개울물에 들어섰다. 며칠씩 굶은 사람들 같지 않게 다들 신바람이

나서 가재잡이를 하였다.

힘들게 대렬을 따르던 대원들까지 승벽내기로 개울물에 뛰여들었다.

산골짜기에는 일시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올랐다.

수령님께서 누가 많이 잡나 경쟁하자고 큰소리로 말씀하시자 사방에서 떠들썩하게 호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펴시고 자그마한 개울에 한벌 덮인 대원들의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였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고된 행군과 허기증으로 비칠거리던 대원들이 언제 그랬더냐싶이 활기를 띠였다.

가재잡이는 대원들의 사기를 일변시켜놓았다.

물론 몇마리의 가재가 그들의 배를 불려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행군로상의 가재잡이는 대원들에게 락천성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희망과 환희를 안겨주었다.

얼마후 부대는 새로운 힘과 용기로 하여 의기충천한 기세로 행군길을 떠났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40년의 5.1절을 안도현 처창즈부근 밀림속에서 맞이하던 때였다.

머리우에서는 일제의 비행기가 삐라를 어지럽게 뿌리면서 돌아쳤고 땅우에서는 《토벌대》가 포위환을 좁히면서 덤벼

들었다.

련일 계속되는 전투로 지칠대로 지친 대원들속에서는 환자가 자꾸 늘어났다.

뭐니뭐니해도 곤난중의 곤난은 식량이 없는것이였다.

소금마저도 완전히 떨어진 형편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여러날을 굶어오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어린 대원들은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온 부대의 비상용식량을 통털어보니 삶은 강냉이 한사발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환자들에게 몇알씩 내여주고나니 남는것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유격대생활이 아무리 간고하다 하지만 5.1절날에 끼니를 번져본 일은 없었다.

그리하여 근처의 도랑에서 개구리잡이를 하게 되였다.

맥이 진해 누워있던 대원들도 두팔을 걷어붙이고 떨쳐나섰다.

수령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으시였다.

5월이라고 하지만 원시림으로 뒤덮인 산골이기때문에 어떤 곳에는 얼음도 녹지 않았으며 아직 개구리의 입도 열리지 않은 때였다.

잠간사이에 퍼그나 많은 개구리를 잡았다.

개구리의 료리도 잘만 만들면 고급료리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부대에는 아무러한 조미료도 없었고 또 그러한 료리재간을 가진 대원들도 없었다.

얼마후 푹 삶은 개구리를 식탁우에 차려놓은 대원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빙 둘러앉았다.

맹물에 삶은 개구리료리, 그것이 5.1절 특식이였다.

며칠째 굶다싶이한 대원들에게는 삶은 개구리료리가 천하별미였다.

생각해보면 눈물겨운 《성찬》이였다.

하지만 누구도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등불을 크게 피우도록 하시고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한몸바칠것을 각오하고 손에 총을 쥔 우리들에게 있어서 락망과 비관, 주저와 동요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혁명도상에 부닥치는 곤난앞에서 락망하거나 비관하며 주저하게 되면 동요가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혁명을 배신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 혁명투쟁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는 심각한 교훈이다, 먼 실례는 그만두고라도 최근에도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당면한 곤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신념을 저버리고 적앞에 투항변절한 비렬

한자들이 나타났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하루를 살아도 량심적으로 사는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가들의 량심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의 무한한 애국적헌신성과 희생성,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 강의성과 인내성에서 표현된다고 말할수 있다고, 우리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것을 각오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자각적인 투사들인것만큼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추호도 더럽혀서는 안되며 그것을 빛나게 수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원쑤를 끝없이 증오하는 정신으로 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으며 동서남해에는 갖가지 물고기떼들이 욱실거린다. 도처에 매장되여있는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잘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동무들이 어린시절의 깊은 추억이 깃들어있는 자기 고

향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내가 나서자란 평양일대만 하여도 사시절 아름다운 모란봉과 만경대, 가을이면 기름진 백미와 달콤한 고구마 그리고 대동강숭어국과 유명한 평양국수를 비롯하여 자랑할만 한것들이 참으로 많다. …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대원들은 시간가는줄 몰랐다.

밀림속의 밤은 깊어가도 누구 하나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우리 비록 개구리료리로 5.1절을 쇠였지만 일제를 타도한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대동강의 숭어료리로 조국광복을 경축하자, 적들이 지금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발악하고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을것이다, 우리모두가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자부심, 혁명가의 자부심도 드높이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더 굳세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우등불에 비쳐진 대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모습들이였다.

그들은 중첩되는 곤난을 락관과 용기로 이겨내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고야말 결의와 신심에 넘쳐있었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나직이 부르기 시작하시였다.

은은한 그이의 노래소리에 실려 평양의 모란봉이며 대동강,

부모형제 기다리는 고향마을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꿈같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이때를 회상하시면서 자신께서 만일 그때 곤난앞에서 팔짱을 지르고 먼산만 쳐다보았거나 대원들에게 개구리료리를 먹인 다음 그들에게 자, 이제는 시장기도 덜었으니 모두 천막으로 헤쳐가라고 말했더라면 대오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명랑하고 활달하지 못했을것이라고 하시고나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개구리를 잡아 명절음식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전우들이 모두 환성을 지르며 두팔을 걷고 떨쳐나선것이라든가 내가 우등불앞에서 밤새도록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에 심취되여 내곁을 떠나지 않은것은 자기 사령관의 모습에서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그 어떤 고난앞에서도 드놀지 않는 배짱을 느꼈기때문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 로정은 풍부한 감정정서를 가진 락천적인 사람들만이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민족해방위업에 한몸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한 항일투사는 최후의 순간에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자랑한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있기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는다고 하였다.

일본교형리들의 철쇄에 묶인 한 항일투사는 반성연설을 한마디만 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에 이 원쑤놈들아, 내 귀가 더러워진다, 혁명가들을 아직도 몰랐느냐고 호되게 꾸짖은 다음 단두대에 올라 조국해방의 날은 멀지 않아 온다고 웨쳤다.

오늘보다 래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래일을 위해서는 꽃나이에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피끓는 투사들이였기에 밀영의 밤에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그려보며 애국의 마음을 굳힐수 있었고 적들의 사면팔방의 포위속에서도 봄정서를 느끼며 씨름판을 펼쳐놓을수 있었다.

끊임없는 전투와 행군의 여가마다 진행된 혁명가요의 창작과 보급, 혁명연극의 창조와 공연, 전투를 끝내거나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나 목재소를 지나면서도 빠짐없이 진행하군 한 연예공연들은 오직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닌 조선인민혁명군만이 창조할수 있는 화폭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은 동서고금에 없는 락천가들의 집단이였다고, 세계에 이름난 군대도 많고 빨찌산도 많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만큼 혁명적랑만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생기발랄하고 전도가 양양한 군대는 없었을것이라고 회고하신것처럼 조국해방의 앞길에 가로놓인 역경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이 세상이 통채로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락천가들의 집단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

조국해방의 길을 열어나간 항일대전의 승리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과 정신의 강자들로 키우신 우리 민족의 참된 아들딸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일화］

몸소 담그신 참나물김치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소부대활동이 적극화되던 1940년 8월 어느날이였다.

수령님의 친솔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는 20여명의 규모로 연길방향으로 나가던 도중 어느 한 산속에서 숙영하게 되였다.

이튿날 이른아침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시여 주변지형을 료해하시고나서 몸소 산나물까지 뜯어가지고 숙영지로 내려오시였다.

대원들도 저저마다 산에 올라가 참나물을 한아름씩 뜯어가지고 내려왔다.

얼마후 대원들이 아침식사준비를 위하여 불을 피우는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식량의 일부로는 죽을 끓이고 참나물을

가지고서는 김치를 담가먹자고 하시였다.

그 말씀에 대원들은 저저마다 환성을 올리며 김치를 먹어본지가 하도 오래되여 김치란 말만 들어도 구미가 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기뻐하는 대원들에게 김치를 담글줄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여기저기서 모른다는 대답이 울려나왔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지, 유격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것을 만들어 먹는 법도 알아야 하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대원에게 밥통에 소금물을 끓이라고 이르시고는 손으로 참나물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기 시작하시였다.

한 대원이 칼로 자르시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것은 모르는 소리다, 나물은 손으로 잘라야 제맛이 나지 칼을 대면 쇠독이 들어 제맛이 안 나는 법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대원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윽하여 참나물을 다 손질하신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밥통의 끓인 소금물에 그것을 담고 뚜껑을 꼭 덮으라고 이르시였다.

얼마후 식사준비가 다 끝났을 때 김치를 담근 밥통뚜껑을 연 대원들은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가지색이 나는 국물과 거기서 풍기는 시큼하고 구수한 냄새가 대원들의 식욕을 돋구어주었던것이다.

이날 참나물김치를 맛있게 먹는 대원들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

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겨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무송에 있을 때 나의 어머님은 자주 이런 김치를 담그어주시였다. 그때 나는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 소금마저 제대로 없는 살림살이였으나 어머님은 반찬 한가지라도 맛있게 해주시기 위해 무진 애를 쓰시였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주시던 훌륭한 어머니였다. 동무들의 어머니도 아니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해주는 훌륭한분들이다. 생각해보라. 이 어머니들이 귀한 자식을 위하여 이런 산나물김치를 담글 때 그 가슴은 얼마나 쓰리였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 김치나마 우리 손으로 담가먹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놈들은 우리 조국을 빼앗았으며 어머니와 아들딸들을 갈라놓았다. …

그이의 말씀은 대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어떤 대원들은 고향집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굽을 훔치기도 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다정하게 둘러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선의 아들딸들은 반드시 조국을 찾아야 한다, 그날은 멀지 않아 꼭 올것이다, 우리는 모든 곤난을 극복하며 원쑤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담그어주신 사연깊은 참나물김치는 대원들에게 두고 온 고향산천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함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원쑤격멸의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하였다.

2 장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 하 여

소부대활동으로 일제를 련속 타격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후 새로운 전략적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갔다.

이 시기 일제는 만주의 항일유격부대들가운데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가장 위험한 력량으로, 저들의 침략전쟁확대의 가장 큰 장애로 간주하였다.

일제는 악명높은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자 1940년 가을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을 《최종적으로 소멸》하기 위한 새로운 《추기 및 동기토벌》작전을 미친듯이 감행해나섰다.

일제는 이때에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없애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놈들은 도문에 새로 《간도지구토벌대》본부를 두고 두만강연안의 각지에 《소지구토벌대》들을 배치하여 이 지역의 산골짜기와 릉선들을 《토벌대》로 한벌 덮어버리였다.

일제는 군사적공세와 함께 사상적공세, 경제적봉쇄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집단부락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쌀과 소금 기타 생활필수품들이 부락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엄중히 단속하였다.

인적이 드문 두메산골과 마을들에도 밀정, 변절자들로 구성된 《귀순공작반》을 들이밀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신출귀몰하는 유격전술로 소부대활동의 시범을 창조하시며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일제에게 련속 타격을 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중순 몇명 안되는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안도방향으로 행군하고계시였다.

대오가 안도현 황화전자의 깊은 숲속에 이르렀을 때였다.

척후를 섰던 한 대원이 급히 되돌아와 수령님께 이런 보고를 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저앞에 적들이 방금 숙영하고 떠나간 흔적과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의 보고를 받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우리가 올 때를 노리고있다가 그만 지쳐서 딴데로 간 모양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경각성있게 행군하자고, 오히려 적들의 뒤를 밟고 가는것이 안전할수 있으니 어서 가자고 태연자약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긴장해진 대원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행군속도를 다그치였다.

어느덧 일행이 수림을 거의 벗어났을 때에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다.

앞에는 넓은 사득판이 놓여있었는데 그가운데로 물도랑이 가로 흐르고있었다.

부대가 연길방향으로 가자면 앞에 가로놓인 사득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런데 그곳은 감탕지대여서 행군해나가기 어려운데다가 적의 병영이 있어 어느때 어느곳에서 적들과 조우하게 될지 모를 일이였다.

대원들모두가 저 사득판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너가겠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해있을 때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휴식구령을 내리시였다.

대오가 휴식하고있는 동안에 해는 기울어 주위가 어둑어둑해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사득판 맞은편쪽에서 반디불같은 불빛이 눈에 피뜩 띄였다.

한 대원이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저 맞은편 숲속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

니다.》

자신께서도 그 불빛을 보았다고 하신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무기와 장구류들을 다시 살피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사득판을 극복할 때와 앞으로 강행군을 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서와 만일 적들에게 발견되였을 경우 취할 행동질서와 집합장소위치 등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대원들은 은밀성을 보장하면서 사득판에서 제일 위험한 지점인 넓은 물도랑이 있는데까지 무사히 진출하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대나무 하나가 길게 가로질러있었다.

어둠속에서 기척을 내지 않고 길이가 10m나 되는 진대나무를 건너간다는것은 몹시 힘든 일이였다.

잘못하여 진대나무에서 미끄러질 때에는 적들이 부대의 행동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이런 때 수령님께서 다리우에 서시여 대원들의 손을 잡아 조심조심 건늬여주시였다.

대원들은 은밀성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무사히 외나무다리를 건너섰다.

수령님께서 맨 나중에 다리를 건너 숲속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갑자기 적들의 기관총과 보총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황을 판단하시고 기관총수에게 적의 기관총을 소멸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장에 서시여 위험한 사득판을 헤치시며 대원들을 이끄시였다.

대오가 큰길쪽으로 한창 빠지고있을 때 척후로부터 또 다른 적들이 앞에서 마주오고있다는 련락이 왔다.

다리목에서 울리는 기관총소리를 듣고 대기했던 적들의 주력이 밀려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곧 대오에 다리쪽으로 되돌아서 행군할것을 명령하시고 일부 대원들만 남기시였다.

이윽고 앞에 나타난 적들의 말소리까지도 거의 들릴 정도로 놈들이 접근했을 때였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적들과의 거리를 가늠해보시던 그이께서는 대원들에게 량쪽에다 대고 사격을 하라고 나직한 음성으로 명령하시였다.

순간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적들의 아우성치는 비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자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옆으로 슬쩍 빠져 산에 오르라고 지시하시였다.

얼마후였다.

대도로 량쪽에서 달려든 적들은 어둠속에서 서로 마주오는 상대방을 조선인민혁명군인줄 알고 있는 화력을 다 동원하여 맹렬히 맞불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산으로 오른 대원들은 풀숲에 자리잡고 앉아서 산아래도로를 척 내려다보면서 통쾌한 심정으로 적들이 싸우는것을 구경하였다.

치렬한 총격전은 무려 한시간나마 계속되였다.

숱한 무리죽음을 내고서야 제편끼리 싸웠다는것을 알게 된 놈들은 악에 받쳐 이렇게 고아댔다.

《어느쪽에서 먼저 총을 쏘았는가.》

《다리를 건너온것이 귀신인가, 유격대인가?》

적들의 비명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만 갔다.

안도현 황화전자부근 사득판전투는 소할바령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가면서 벌린 첫 전투로서 일제의 《추기 및 동기토벌》작전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소부대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월 하순에는 연길현 발재툰일대에서 황화전자에서와는 달리 습격전법과 망원전술을 배합하여 적들에게 또다시 된타격을 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득판전투후 소부대를 이끄시고 연길현 발재툰부근의 도목구수림지대에로 진출하시였다.

연길현 도목구는 안도—명월구사이 대도로를 끼고있을뿐아니라 일제의 《토벌》중심지의 하나인 명월구에서 불과 30리 안팎이였다.

이 지대는 주변에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둘러싸고있었으며 여러 농촌마을들도 가까이에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발재툰부근의 도목구수림속에 림시비밀근거지를 정하시고 소부대의 군정학습을 지도하시면서 여러 소부대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찾아 헤매이던 적들이 이 일대에로 몰려들어 주변의 야산들은 《토벌대》로 뒤덮이게 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 조선인민혁명군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서성대고있는 적들을 선제타격함으로써 놈들에게 혼란을 조성하고 소부대의 차후행동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으실것을 결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투행동에 앞서 대원들을 여러곳에 파견하시였다.

대원들은 도목구수림의 골어구에서 농민으로 가장한 밀정놈들을 잡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의 보고와 밀정들이 토설한 적

정에 기초하여 묘한 방법으로 놈들을 소멸할것을 계획하시고 소부대를 발재툰의 동쪽장대에 오르게 하시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계조직을 빈틈없이 하신 후 소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대원들을 옹근 하루동안 푹 쉬게 하신 수령님께서는 날이 어두워지자 3개의 습격조를 편성하고 매개 조들에 전투임무를 주시였다.

8월 21일 제1, 2습격조는 어둠을 타고 각각 반대방향의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진출하였다. 제3습격조는 다른 임무를 받고 발재툰 뒤산릉선으로 진출하였다.

얼마후 북쪽릉선을 타고 내려가던 제1습격조는 적들이 피워놓은 불무지들을 향하여 기관총과 보총사격을 퍼부었다.

총을 벗어놓고 불무지에 둘러앉아 잡담을 벌려놓고있던 적들은 아우성을 치며 야단법석이였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헤덤비던 적들은 잠시후 대오를 수습하고 산릉선에 대고 대응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습격조원들은 다시한번 놈들에게 집중사격을 퍼부은 다음 옆으로 빠져 장대재에 다시 올랐다.

같은 시각 장대재남쪽릉선을 타고 내려가던 제2습격조도 그쪽에 있던 적들에게 불의사격을 가한 후 놈들을 뒤에 달고 역시 장대재에 올랐다.

이렇게 되여 서로 반대방향에 있던 적들이 조심스럽게 기여들게 되였다.

한편 발재툰 뒤산릉선에 진출한 제3습격조는 장대재근방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다른 적들에게 불의적인 맹렬한 기관총사격을 퍼부은 다음 곧 뒤로 돌아서서 이따금씩 총소리를 내면서 장대재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개의 습격조가 모두 장대재에 이르자 그들을 이끄시고 재빨리 릉선을 따라 내려가시다가 물줄기를 타고 동쪽으로 쭉 빠지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가 빠진줄 모르고 3면에서 동시에 밀려들던 적들은 온밤 제놈들끼리 맞불질하며 싸웠다.

발재툰부근전투는 전술을 령활하게 잘 쓰기만 하면 소부대로써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그야말로 통쾌한 전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안도현 오도양차전투와 황구령전투 등 여러 전투들을 조직지휘하시여 적들에게 련속타격을 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30(1941)년 8월초 적배후를 교란할 목적으로 왕청—라자구사이 도로공사장에 대한 습격전을 벌리시였다.

습격에 앞서 도로공사장에 대한 정찰을 면밀히 조직하신

수령님께서는 우선 라자구와 화피전자방향에 각각 차단조를 배치하며 왜놈군대로 변장한 1개 습격조로 공사장을 불의에 습격하도록 하시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습격조는 위풍당당하게 공사장에 거침없이 들어갔다.

공사장에서 우쭐대며 돌아치던 경비병놈들은 일본수비대가 온줄로 알고 벌벌 떨었다.

그 틈을 리용하여 습격조는 삽시간에 경비병의 무장을 해제하고 공사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였다.

이때 습격조책임자가 사람들앞에 나서며 이렇게 웨쳤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그제서야 공사장의 사람들은 일본수비대인줄로만 알았던 군대가 다름아닌 조선인민혁명군이라니 이런 희한한 변이 있는가고 하면서 모두가 달려와 대원들을 얼싸안고 돌아갔다.

그리고는 간절한 어조로 대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대원들이 수령님께서 몸소 이 자리에 오셨다고 말하자 군중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그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는 군중을 향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나라를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거치른 이국땅에 와서까지 이처럼 왜놈들의 채찍밑에서 편할 날이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동포들의 처참한 정상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일제가 독이발을 갈며 《공산군은 전멸되였다.》고 쉐치고있지만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해있으며 지금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준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멸망의 칼도마우에 놓여있다. 지금 일제는 우리의 성도 빼앗고 말과 글도 빼앗고 민족적인 모든것을 다 빼앗는다. 우리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도 다 짓밟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에게는 앉아서 노예로 죽느냐, 일어나 일제와 결사전을 벌려 살길을 찾느냐 하는 두길밖에 없다. …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단결해야 하며 단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조직은 단결이고 단결은 힘이라고,

여러분들도 자기의 조직을 뭇고 그 주위에 굳게 합심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인민혁명군이 총검을 들고 선봉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호응궐기하여 싸우면 우리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할수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힘찬 호소에 군중들은 환성을 올리였다.

어지간히 밤도 깊어지자 소부대는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도 웬 일인지 사방의 적들은 조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행적만 냄새맡아도 쉬파리떼처럼 여기저기서 달려들던 적들이 필경 통지를 받았을터인데 아무런 반응도 없는것이 가관이였다.

아마도 서뿔리 덤벼들었다가 또 된벼락을 맞을것 같아 강건너 불보듯 하는것이 분명하였다.

정말이지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통쾌한 습격전이였다.

각지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도 소부대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몇개 소부대가 련합하여 큰 싸움도 벌리는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에게 련속타격을 안기였다.

화룡현 쟈피거우, 십리평일대에서 활동하던 한 소부대는 대낮에 십리평집단부락을 불의에 습격하여 그곳에 있던 적들을 몰살시키였다.

왕청현일대에서 활동하던 한 소부대는 로흑산목재소습격전투를 벌린데 이어 백초구 류수촌에서 《토벌》에 동원되였던 적들에게 된타격을 안기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이 벌린 대표적인 전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화룡현 와룡촌전투(1940. 8. 18.), 맹산촌부근전투(1940. 9.), 룡문툰전투(1940. 12. 7.), 용화촌 서화동전투(1941. 2. 24.), 안도현 무주툰부근전투(1940. 9. 2.), 오도양차부근전투(1940. 9. 5.), 사방정자전투(1940. 11. 3.), 태평구습격전투(1941. 4.), 연길현 도흥평전투(1940. 8. 13.), 서흥촌부근전투(1941. 3. 6.), 천보산습격전투(1941. 2.), 서북차습격전투(1941. 2.)…

온 동북땅과 조선의 북부국경지대는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으로 죽가마처럼 끓어번졌다.

일제는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소부대들의 기동령활한 전투활동에 의하여 완전히 피동에 빠지고말았으며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도처에서 녹아났다.

신출귀몰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한 소부대활동에 의하여 일제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였는가 하는것은 적들의 다음과 같은 비밀문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김일성**의 소재는 의연히 명백하지 않는바 혹시 림강현 동북

지구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생각되니 동북지구(의천, 동양차 중심지구, 림강, 장백현경지구)의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여 **김일성**…의 소재구명에 노력하며 2월 12일까지 무송토벌대 본부에 전보보고할것.》(평양헌병대장의 보고 조평헌고 제70호 1941. 2. 12. 《압록강안 비단의 철도파괴기도에 관한 건 보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칠 사이없이 가해지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의 된타격은 일제에게는 전률과 공포를 안겨주었고 광범한 대중에게는 조국해방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신심을 크게 북돋아주었다.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 파견

1940년대 전반기 무장투쟁앞에 나선 전략적과업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다그치는것이였다.

그러자면 이미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무장투쟁을 국내깊이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전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하였다.

이 거창한 사업은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을 도처에 파견하여야 림시비밀근거지를 더 많이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정치적력량,

군사적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고 자력독립을 위한 전민항쟁준비도 더욱 다그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가는데 맞게 소부대, 소조들을 각지로 파견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서 소부대, 소조들을 편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중순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정치일군회의를 소집하시고 변화된 투쟁전략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소부대와 소조 그리고 군정훈련을 하는 부대들로 편성하고 그에 따라 각 부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개편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소부대, 소조들이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서 오래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따라서 군사정치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여야 하는것만큼 소부대를 일정한 전투력을 가진 독자적인 단위가 되게 정치간부들과 군사간부들, 로대원들과 신대원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편성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 규모는 활동지역의 특성과 제기된 임무에 따라 각이하게 정하며 무장은 사명과 임무에 맞게 간편하게 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소부대, 소조들에 해당한 임무와 활동구역을 제시하시고 임무분담에 따라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와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 그리고 정찰을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로 편성하시였다.

그러나 정황에 따라 정찰소조가 정치사업을 하기도 하고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소조가 정찰과 정치사업을 동시에 맡아보는 식으로 다른 임무를 겸해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소부대, 소조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련락체계를 세우시였으며 소부대와 소조안에 당조직들을 내오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부대들에서 소부대편성사업이 짧은 기간안에 성과적으로 끝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 소조편성사업을 끝마치신 후 소부대, 소조들이 의거하여 활동할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의 유격근거지창설경험과 유격근거지를 새롭게 꾸리게 되는 주객관적조건 그리고 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되는 구체적환경 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29(1940)년 9월 상순 간백산밀영에서 진행된 조선

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책임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항일무장투쟁발전의 새로운 전략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로서 림시비밀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1930년대 후반기에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들을 계속 리용하면서 그

◇자료◇

림시비밀근거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활동에 적응하게 창설된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

림시비밀근거지는 극비밀리에 넓은 지역을 류동하면서 활동하게 되는 소부대, 소조활동의 특성에 맞게 림시적이며 비밀적이며 소규모적으로 기지와 활동거점의 형태로 꾸려졌다.

기지는 일정한 지역에 파견된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휘부가 있는 근거지였으며 활동거점은 소부대, 소조성원들이 자기 활동지대안에 림시로 설치한 아지트와 비밀련락소였다.

림시비밀근거지들은 임의의 시각에 필요한 곳으로 빨리 옮길수 있고 지하혁명조직들과의 련계를 가지는데 편리한 지대에 주로 천막이나 산전막 그리고 숯구이막, 자연동굴, 국사당 같은것을 리용하여 설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력사적인 소할바

주변에 류동적이며 소규모적인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새로 수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되 소부대활동의 은밀성과 민활성을 보장할수 있고 비밀근거지와의 련계를 밀접히 보장할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림시적인 성격에 맞게 적당한 지형지물과 기존시설물들을 옳게 리용하면서 간단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령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 소조활동을 위한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은 함경북도 라진, 경흥, 연사, 무산, 청진을 비롯하여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평양시, 황해도 등 전국 각지의 전략적 요충지들과 만주의 넓은 지역에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수많이 꾸리였다.

그 대표적인 림시비밀근거지들은 국내의 연봉림시비밀근거지, 보로지산림시비밀근거지, 어은동곰산림시비밀근거지, 상단산림시비밀근거지, 어명산림시비밀근거지, 백학산림시비밀근거지, 판장림시비밀근거지, 작은가매원림시비밀근거지들과 중국 동북지방의 사방대림시비밀근거지, 큰곰의골림시비밀근거지, 쟈피거우림시비밀근거지, 한총구림시비밀근거지, 로모저하림시비밀근거지, 로흑산림시비밀근거지 등이다.

1940년대 전반기에 꾸려진 림시비밀근거지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그이께서는 일정한 지역에 파견된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지휘부가 있을 근거지는 기지의 형태로 꾸리고 소부대, 소조성원들이 거처할 근거지는 활동거점의 형태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창설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지체없이 림시비밀근거지창설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국내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수많은 소부대, 소조들을 파견하시여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창설하게 하시는 한편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책임자들에게 림시비밀근거지창설사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소조들은 림시비밀근거지창설사업을 은밀히 기동성있게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그리하여 연길현 도목구부근기지, 화룡현 맹산촌부근기지, 안도현 황구령기지, 왕청현 쟈피거우기지를 비롯한 만주의 넓은 지역은 물론 경흥, 웅기, 라진, 무산 등 북부조선일대로부터 국내종심깊이에 이르는 전국 각지의 전략적요충지들에 많은 림시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림시비밀근거지들에는 소부대가 있을 밀영과 통신련락장소, 비밀회합장소, 후방물자보관장소 등을 설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1(1942)년 6월 17일 백두산밀영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조책임자회의와 주체32(1943)년 7월 중순 라진, 경흥, 경원지구에서 소집된 회의들을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의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백두산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조책임자회의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비롯하여 백두산밀영과 간백산밀영, 사자봉밀영, 곰산밀영에 있던 지휘성원들과 사령부직속 소부대지휘성원들 그리고 백두산주변일대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정치공작소조 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발광적으로 확대하고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의 활동지역을 국내깊이에까지 확대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시였다.

당시 일제는 태평양전쟁의 불길을 동남아시아의 전 지역에로 넓혀나가면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폭압과 략탈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과 일제간의 계급적 및 민족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

상공인, 애국적종교인들은 더 말할것 없고 적기관에 복무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반일감정을 가지고 왜놈들이 하루빨리 망하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엄혹한 처지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조성된 정세는 무장투쟁을 전국적범위에로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이로부터 우리는 소부대와 소조들을 국내깊이에 파견하여 정치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지역을 국내깊이에까지 급속히 확대할데 대한 과업과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두만강, 압록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와 북부조선일대는 앞으로 조국해방작전이 벌어질 때 조선인민혁명군이 선차적으로 장악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지대라고 하시면서 무산, 선봉, 라진, 청진, 신의주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와 북부조선일대의 주요지역들에 더 많은 소부대와 소조들을 파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중부조선일대에서 혁명운동을 계속 앙양시키는것이 당면해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함흥, 원산, 평양, 양덕, 해주, 서울, 인천 등지에 소부대, 소조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

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지금까지 남부조선은 혁명적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친 지역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운동을 전국적 판도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일대에 큰 주목을 돌리며 따라서 대구, 부산, 목포, 군산 등 남부조선일대에로 소부대와 소조들을 많이 파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소부대와 소조들을 합리적으로 조절편성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간백산밀영에서 육성한 전민항쟁지도핵심들을 소부대와 소조들에 더 많이 망라시켜 국내깊이에 파견할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회의가 끝난 다음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녀사를 비롯하여 몇몇 지휘성원들을 따로 부르시여 국내 각지에 파견할 소부대, 소조들에 망라시킬 핵심들을 정치군사적인 자질과 투쟁경력, 출신지방을 고려하여 잘 선발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전민항쟁구상에 따라 수많은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이 백두산지구를 떠나 국내외 각지로 파견되였다.

국내의 각지에 파견된 수많은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도처에서 정치군사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그들은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당조직과 조국광복회 하부조직, 반군사조직들을 수많이 내옴으로써 전민항쟁지도 핵심들을 육성하고 대중의 반일반전투쟁을 고조시켰다. 한편 적의 중요군사적거점들과 적배치지 등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였다.

장차 조국해방작전에서 첫 대결장으로 될 두만강하류와 북부동해안일대에 파견된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무산, 선봉, 라진, 청진, 신흥, 함흥 등 중요전략적지대를 장악하고 군중정치활동과 적군사시설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양덕, 덕천지구를 중심으로 중부조선과 남부조선일대에서 활동한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평양, 남포, 순천, 해주, 사리원, 원산, 서울, 대구, 부산, 목포 등지의 반일대중속에 들어가 전민항쟁호소문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해설해주는 등 대중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그리고 활동조건과 지방의 특성에 맞게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 항쟁무장조직을 내오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이 지역들에서 조직된 항쟁조직들은 전민항쟁시기가 도래할 때 적후방에서 배후타격전을 벌리고 무장폭동을 일으키는것을 사명으로 한 전민항쟁조직들이였다.

당시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이 파견되여 활동한 지역은 앞으로 조국해방작전이 벌어지는 경우 조선인민혁명군이 선차적

으로 장악하게 될 북부조선일대와 동해안일대, 혁명운동을 계속 국내에로 앙양시키는데서 중요전략적지대인 중부조선일대와 인구가 밀집되고 로동계급이 많은 남부조선일대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만주와 동만,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일본강점지역 지어 일본령내에까지 뚫고들어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파견한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은 두만강, 압록강연안의 국경지대뿐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조선일대와 부산, 진해를 비롯한 남부조선일대 그리고 멀리로는 일본에까지 침투하여 정치,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렸으며 광범한 반일군중을 전인민적항전에로 준비시키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광범히 파견된데 대하여 일본 내무성 경보국이 작성한 자료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김일성**의 선내(조선과 일본) 량지에의 특수밀정파견에 관한 건

… 최근 본성 조선특파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어 정세에 맞게 엄중 수배할것이다.

특히 해항경비, 렬차이동경찰 실시 등 부, 현에서는 크게 류의할것이다.

1. 파견목적
   … 특별히 파견된 공비로 이루어진 특수밀정을 사용하여 조선 및 일본에서 첩보근무에 종사시키자는데 있다.

2. 파견지점
   도가선, 봉길선의 각 중요군사지점
   조선안의 주요항(청진, 라진, 부산, 목포, 원산, 군산, 신의주)
   일본의 시모노세끼 및 쯔루가

3. 파견원의 년령, 복장, 휴대품
   년령; 20～25살의 조선 만주계남자
   복장; 국방색 제낀형양복에 편상화
   휴대품; 트렁크에 정치, 경제, 문예 등 여러가지 잡지, 세면도구 등을 가지고있다.

그밖에는 자세치 않으나 이 밀정은 일본어에 능하며 본래 교원, 경찰관 등의 경험을 가지고있는자 같은데 언어, 태도 등에서 일본사람과 다른바 없다고 한다.》〔내무성 경보국 소화16년

(1941년) 11월 8일〕

이와 같이 1940년대 전반기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이후 수많은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의 대대적인 파견은 항일무장투쟁과 결합되여 벌어질 전민항쟁준비와 그 심화에서 일대 전환으로 되였다.

총검을 헤치고 국내에로

1942년에 들어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은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를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두만강, 압록강연안은 물론 국내깊이까지 비밀근거지들을 수많이 꾸려놓고 그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시였다.

1942년 초여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은 사령부로 들어섰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나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두만강, 압록강연안 국경지대를 확고히 장악하며 전국적판도에서 각계층 반일대중을 더욱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소부대를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적구의 종심을 뚫고 백두산밀영으로 돌아가면서 중요한 회의들과 소부대, 소조, 지하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휘성원들은 수령님께 이번 행군이 적의 무력이 집중되여 있는 국경경비진과 요새지역을 뚫고 조국땅종심을 횡단하는 로정인것만큼 그 멀고 위험한 길을 걸으시는것을 고려해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들은 지금 그곳들에서는 원쑤들의 준동이 매우 심하니 임무를 주면 자기들이 수행하겠다고 거듭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주는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 하지만 우리 혁명의 요구로 보아 그 청을 받아줄수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인 1942년 6월초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두만강을 건너 조국땅으로 진출하시였다.

함경북도에 있는 증산봉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부대책임자로부터 이 일대의 지형과 적정, 소부대의 활동지역들을 상세히 료해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증산봉바위굴앞 나무밑에서 두만강연안 북부

조선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및 정치공작소조책임자회의를 여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총검의 숲을 헤치고 또다시 조국땅 위험한 지구에까지 나오신 수령님을 뵈오며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며 적후에서 고생이 많았겠다고 격려해주시였다.

회의시작에 앞서 수령님께서는 라진, 선봉, 경흥, 경원, 온성, 회령 등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소부대와 소조책임자들에게 전해 10월 연봉회의에서 주신 과업집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1941년 10월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경원군(당시) 신건리 연봉에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 적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그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간 사업정형을 료해하신 후 국내에서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두만강연안 국경지대를 철저히 장악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일제와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전쟁확대와 관련하여 연봉회의에서 제시한 방침대로 소부대, 소조들과 인민대중을 자력독립과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광범한 세계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의의 전쟁을 하는 파쑈도이췰란드와 일본은 반드시 망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로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광범한 대중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하기 위한 대중단체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각계층 군중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대중에게 국내외정세와 일제의 멸망의 불가피성,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에 대하여 알려주고 조국해방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전인민적항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적정에 대한 정찰을 계속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국내에 있는 소부대, 정치공작소조들의 활동에서 민활성과 은밀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끝마치신 후 곧 소부대성원들을

이끄시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시였다.

그때 그이의 신변을 념려하여 소부대성원들은 적들의 경비진이 2중3중으로 되여있는 요새구역에서 대낮에 행군하는것은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나를 생각해주는 동무들의 그 마음은 고맙다고, 동무들의 그 마음에 떠받들리여 오늘까지 나는 건강한 몸으로 혈전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우리가 싸워온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언제 한번 위험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고, 우리는 그런 위험을 이겨내면서 투쟁을 벌려왔고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산지구전투때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로 뻐젓이 행군했던것처럼 대담하게 놈들의 경비진을 뚫고들어가자고 하시였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증산봉을 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봉(당시)뒤산 림시비밀근거지와 경흥군 철주리 남석림시비밀근거지, 록야리 곰산비밀근거지 등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고나서 무산군 풍산리 독골에 이르시였다.

이곳에서 지하혁명조직 및 반일애국단체 책임자회의를 마치신 수령님께서는 무산군 민봉비밀근거지와 연사지구 국사봉비밀근거지들에 들리시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나서 백두산밀영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로부터 밀영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신 다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부르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수령님께서 전해 6월 백두산지구를 떠나신 다음 인차 장백현 하강구일대에 나가 국내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신데 대하여서와 9월에 연사지구에 나가 국내조직들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필요한 대책을 세운데 대하여 보고하시였다.

녀사께서는 계속하여 백두산동북부와 국내와의 련계를 위하여 지난해 7월에 소부대를 파견하여 화룡현 장산령에 비밀련락소를 꾸리도록 하신 다음 9월에 그곳으로 가시여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을 만나 백두산동북부일대 조직들의 실태를 료해하고 조직들을 더욱 확대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과 국내와 중국 동북지방의 여러곳에 파견하신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정형을 상세히 보고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사이 많은 일을 하면서 수고가 많았겠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다음날부터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지구의 여러 밀영 책임자들을 부르시여 그동안의 활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필요한 지시도 주시면서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서 항일대전전반을 령도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대원들을 먹이고 입히는 문제를 비롯한 후방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높은 절약정신을 가지고 검박하고 깐지게 생활해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경위대원실에서 식생활을 개선하며 식량을 절약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조직지도하시였다.

방식상학에는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와 그 주변에서 나는 여러가지 산나물들과 산열매들로 만든 부식물들, 감자를 가지고 만든 음식물들이 전시되였다.

가지수가 많았을뿐아니라 그 맛도 아주 좋았다.

보기만 해도 희한스러운 전시품들은 식생활을 개선하며 많은 식량을 절약할수 있는 예비를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식상학을 결속지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긴장한 시간을 짜내여 무엇때문에 이런 방식상학을 조직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지금 이 백두산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비밀근거지들과 림시비밀근거지들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있다고, 우리 인민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허덕이면서도 광복된 래일을 바라보며 한줌한줌 자기들의 식량을 덜어내여 근거지들에 들여보내고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러니 우리가 감자 한알, 보리쌀 한줌을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쌀 한알이라도 극력 절약하며 인민들의 지성을 생각해서라도 투쟁을 더 잘해야 한다, 그리고 식생활을 비롯한 모든 생활을 더욱 검박하게 하며 긴장하게 생활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은 대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백두산밀영에서의 나날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패망할 날이 가까와오는데 맞게 국내에서의 전민항쟁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1943년 2월초 또다시 조국땅으로 진출하시였다.

함경북도 연사군 우적골림시비밀근거지에서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함경남도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에 이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진행하기로 되여있는 회의준비정형에 대하여서와 전민항쟁에 대처하여 조직된 신흥무장대의 조직경위와 그 규모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조국해방작전시 적후방중심지대의 여러 지역에서 배후련합작전에 참가할 군사적력량을 어떻게 확대강화하겠는가 하는것이 중요문제로 나서는것만큼 이곳 무장대의 조직과 훈련경험을 지휘관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회의장소로 정해진 두무봉밀영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여기 두무봉에서 회의를 조직하려고 하는것은 회의참가자들에게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마련되고있는 실물을 보여주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각지에서 온 소부대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 지하조직책임자들을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시였다.

당시 밀영에는 수십여명의 훈련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흥군에 있는 광산과 탄광의 청년들 그리고 근거지주변의 농촌청년들과 징병, 징용을 기피하여 산속에 은신하고있던 청년들이였다.

무장대의 훈련정형을 돌아보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해 훈련에서 애국적열성을 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장대원들이 사격도 괜찮게 하며 훈련지도도 잘한다고 치하도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간백산강습소에서 핵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파견함으로써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크고작은 무장대들을

조직하여 훈련을 잘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월 하순 두무봉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소부대, 소조, 지하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신 후 조국해방 3대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3대로선은 첫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으로 일제침략군에게 섬멸적타격을 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은 조국해방3대로선의 중심내용을 이루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급속히 확대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이미 창설된 비밀근거지들을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필요한 지역들에 림시비밀근거지들을 더 많이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3대로선은 둘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호응하여 전인민적봉기를 일으켜 일제의 멸망을 앞당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인민적봉기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일뿐아니라 식민지반봉건사회인 우

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필수적요구로 나선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워 하나의 전투대오를 편성할데 대하여서와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반전투쟁을 계속 벌리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시기에는 전인민적봉기에 일떠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3대로선은 셋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배합하여 배후련합작전을 벌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전술적우세로 타승하여 일제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게 하는 독창적인 전술적방침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장항쟁조직을 도처에 빨리 내오고 늘일데 대하여, 이미 조직된 반군사조직들을 개편강화하고 항쟁조직들의 무장장비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항쟁조직들의 활동거점을 꾸리는 사업,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배후련합작전지휘부를 내오고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할데 대하여 그리고 일제침략군 내부에 대담하게 침투하여 조선인병사들을 각성시켜 배후련합작전에 합세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을 내용으로 한 조국해방3대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앞당겨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기어이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웅심깊은 방략에 탄복하며 그이를 경건히 우러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설한풍을 헤치고 협산준령을 넘어 조국땅깊이 진출하시여 제시하신 조국해방3대로선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게 한 승리의 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후에도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에 나오시여 조국해방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국내의 넓은 지역에서 전민항쟁조직들이 확대강화되였고 우리 겨레의 반일투쟁기운은 더욱 높아졌다.

《조선아 만방에 웨치라 백두광명성 탄생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던 1942년 6월 중순이였다.

소부대를 친솔하고 국내에 진출하시여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일제의 무력이 집중되여있는 1 500여리의 두만강국경지대를 행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에 이르시였다.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로 말하면 백두산지구에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될 밀영지를 잘 꾸릴데 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된 비밀근거지였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국경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신 수령님께서는 1936년 5월 동강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에게 중심적령도거점을 꾸릴 임무를 주어 백두산지구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9월 하순 몸소 국내의 소백수골에 진출하시여 밀영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 소백수골에서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백두산의 깊은 수림지대에 극비의 밀영들을 잘 꾸려 그것이 적들에게 절대로 로출되지 않고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중심적령도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령부밀영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배치할 매개 밀영들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적하여주신 건설원칙과 순차에 따라 백두산지구에는 각이한 사명을 지닌 여러 밀영들이 꾸려졌다.

사령부가 자리잡은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 중심적령도거점이였다.

그 주변에 꾸려진 사자봉밀영, 곰산밀영, 간백산밀영, 선오산밀영, 무두봉밀영, 소연지봉밀영, 쌍두봉밀영, 대각봉밀영, 압록강안밀영 등은 민족의 모든 항쟁력량을 전민항쟁선언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최후승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중요한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다.

국내비밀근거지들은 백두산밀영으로부터 북부와 중부조선

의 곳곳에 부채살처럼 뻗어있었다.

정치공작원들도 백두산밀영에서 국내외 각지로 파견되였다.

백두산밀영에서는 무장투쟁과 국내정치투쟁을 발전시키며 당조직건설, 통일전선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방침들이 채택되고 그 집행이 총화되였다.

이런 의미에서 백두산밀영은 사실상 전민항쟁의 본거지, 책원지라고 말할수 있었다.

이 백두산밀영에 대경사가 났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의 정기를 안고 탄생하신것이다.

천출위인을 맞이한 이날의 백두산은 전날까지만 하여도 무섭게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새벽부터 가뭇없이 사라지고 흐려있던 날씨가 류달리 청명하고 온화해졌다.

백두산밀영 귀틀집주위의 천리수해에는 눈부신 서리꽃들이 피여나 조용히 설레였다.

날씨가 하루에도 수십번이나 변한다는 백두산지구였지만 이날만은 백두산마루에 종일 찬란한 태양이 솟아 빛을 뿌리면서 새봄을 알리듯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였다.

밀영에 있던 대원들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하여 서로 부둥켜안고 눈굽을 적시면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장차 조선을 빛내이실 향도성이 되여주실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을 민족의 대경사로 맞이하고 축복해드린 항일투사들은 백두산에서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 탄생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과 원동의 훈련기지에 알리였다.

이 소식에 접한 투사들은 크나큰 기쁨과 격정에 넘쳐 《백두광명성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면서 백두산밀영주변은 물론 국내 각지의 이르는 곳마다 아름드리나무들에 《아 조선아 겨레들아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린다》,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조선독립의 대통운》, 《조선아 만방에 웨치라 백두광명성 탄생을!》 등의 글발들을 새기여 온 나라 인민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였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던 격동적인 시기에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항일투사들은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을 만경대가문의 경사로만이 아니라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갈 후계자의 탄생으로, 조선민족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민족적경사로, 대통운으

로 맞이하였다.

진정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은 민족의 태양과 더불어 인류를 곧바른 자주의 한길로 이끌어줄 주체의 향도성을 맞이한 해돋이였다.

소부대를 이끄시고 소백수골에 자리잡은 백두산밀영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드님을 품에 안으시고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장에서 탄생하신 아드님의 장래를 뜨겁게 축복하시였다.

백두산밀영을 옹위하고있는 수만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정일봉을 배경으로 조선의 미래를 안으시고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것은 정녕 해방된 조국땅에 꽃펴날 조선의 영원한 봄을 기약하는 위대한 화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기상이 넘쳐나는 아드님의 준수한 얼굴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시다가 김정숙녀사께 후대들을 잘 키워서 혁명의 대를 잇게 하자고 하시면서 백두산에서 높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후대들이 대를 이어 들고나가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로부터 백두의 정신을 이어받으시며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밀림의 눈보라 울부짖는 소리와 항일성전의 총포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고 부모님들의 교양을 받으시면서 장군의 기질과 품격을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김정숙녀사와 함께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우리들앞에는 먼저 간 혁명동지들의 몫까지 합쳐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이 바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한다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아드님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고 자제분을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민족의 아들로 억세게 키우시려는 마음을 담아 아드님에게 뜻깊은 자장가를 불러주군 하시

였다.

그러시고는 늘 어리신 아드님께 어서 커서 아버님을 잘 모시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백두산에서 첫걸음마를 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새기신 조국의 모습은 백두산의 장엄한 웅자였고 처음으로 귀에 익히신것은 울부짖는 백두의 눈보라소리였다.

백두산은 정녕 그이의 담력과 기상을 키워준 요람이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백두산밀영과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항일투사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남다른 성장의 길을 걸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여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시작부터가 남다른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수 있은것은 선천적인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한것도 빨찌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찌산들이 지니고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만한 자양이 되여 그의 넋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뫼부리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습니다.》

백두산시절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항일투사들을 몹시 따르고 그들의 세계를 무척 동경하시였다.

그이께서 태여나 처음으로 입으신 옷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포연에 절은 군복을 줄여서 만든것이였다. 덮으신 포단 역시 녀대원들이 백두산밀영에서 자투리천을 모아 만들어 올린 쪽무이포단이였으며 애용하시던 놀이감은 나무권총과 탄피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대밥을 잡수시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용맹한 군사훈련모습도 목격하고 멸적의 돌격구령소리와 천지를 뒤흔드는 총포성을 들으시면서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하고 담대한 성품과 필승의 신념, 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슬기를 한몸에 체현하시며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시였다.

항일투사 김책은 백두의 기상과 장군의 기질을 타고나신 그이를 《어린 장군》이라고 불렀다.

이 호칭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처럼 백두의 슬기와 기상을 지니신 천출명장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투사들의 절절한 념원과 기대가 뜨겁게 담겨져있었다.

백두산의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맞이한 우리 겨레는 휘황찬란한 미래를 락관하며 해방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쉰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사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이 일제의 발악적인 《토벌》공세를 물리치면서 군사정치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도록 령활하게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따뜻한 사랑과 은정으로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소부대, 소조성원들은 사방에 적들만이 욱실거리는 속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에게 몸은 비록 그들과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며 지휘간부들의 손길은 전사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곳에 미치여야 한다고, 우리 지휘간부들은 특히 자신이 배부르고 뜨뜻하게 지낼 때에도 대원들은 배를

곯고 한지에서 지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들의 생활을 친형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지휘관들을 이렇게 교양하시면서 몸소 친솔하시는 소부대성원들로부터 국내와 만주 각지의 곳곳에 파견되여 활동하고있는 소부대, 소조성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원 한사람한사람을 더없이 귀중한 전우로 여기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1940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도현 처창즈치기에 림시비밀근거지를 꾸리고 활동하고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활동지대에로 떠나시기에 앞서 후방밀영에서 병치료를 받고있는 몇명의 대원들이 걱정되시여 그들의 겨울나이준비를 해주고 오도록 사령부의 대원들을 보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밀영병원에 가서 병원막도 잘 꾸려주고 식량도 넉넉히 마련해주어 눈이 온 다음에 환자들이 나다니지 않고도 겨울을 날수 있게 해주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사령부에서 가지고 다니던 얼마 안되는 의약품마저도 다 가져다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밀영병원으로 간 대원들은 우선 가까이에 있는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약품도 얼마간 더 구해다주고 강냉이밭을 통채로 사서는 밤에 이삭을 따들여다 말리여 저장해주었다. 병원막도 불이 잘 들도록 고쳐주는 등 정성들여 겨울나이준비를 빈틈없이 해주었다.

그들은 떠나올 때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에게 눈이 온 다음에는 절대로 나다니지 말고 치료를 받으면서 학습을 하라고 하신 수령님의 간곡한 말씀을 명심하고 겨울을 나도록 당부하였다.

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목이 메여 부디 사령관동지를 잘 모셔달라고 재삼 부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밀영병원에 갔다온 지휘관을 만나주시고 부상자들의 상처가 어떤가, 병원막에 불은 잘 들던가, 식량은 그것이면 넉넉하겠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였다.

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련대소속 소부대에 사령부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파견되였던 통신원이 도중에 적《토벌대》와 맞다들어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그 소부대와의 련계를 회복하려고 여러번 통신원들을 띄우시였다.

하지만 그들도 종시 소부대의 행처를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

왔다.

결국 사령부와 소부대와의 련락은 끊어지고말았다.

유격대에서는 서로 만날 장소와 시간이 어긋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많은 소부대를 각지에 내보내고 다만 몇명의 성원들을 데리고 활동하고계시였다.

사령부와 떨어져서 활동하는 소부대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지만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원쑤들이 집중되여있는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령부의 곤난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런 속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자신께 부닥치는 위험과 곤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시 련계가 끊어진 소부대성원들때문에 주무심도 잊고 끼니도 번지시며 걱정하시였다.

새로운 활동지대를 향해 처창즈치기의 숙영지를 떠나게 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우등불자리에 식량과 새로 지은 겨울옷을 묻으라고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물건들이 상하지 않게 잘 싸서 묻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마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자고 그러시는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이 동무들이 꼭 찾아올것이라고, 소부대로 활동을 하느라고 의복인들 오죽 헐고 배인들 얼마나 곯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대원들의 목은 뜨거운것으로 꽉 메였다.

소식이 끊어진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여 우등불자리에 쌀과 옷을 묻으라고 하신 그이의 어버이심정의 깊이를 어찌 다 헤아릴수가 있겠는가.

언제 돌아올지 모를 자식을 먹이자고 밑창이 드러난 쌀독에서 그래도 한홉, 두홉 쌀을 모아 따로 간수해두던 지난날의 많은 조선의 어머니들의 심정과 사랑인들 이보다 더하였겠는가.

대원들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쌀과 옷을 묻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그곳을 떠나갔다.

약속된 지점에 행처를 모르는 소부대의 겨울나이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떠나시였지만 그들에 대한 수령님의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갔다.

일제가 유격대를 《소멸》해보자고 악착하게 달려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소부대로 활동하자니 걸음마다 위험과 곤난이 겹쳐들었다.

어려운 싸움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고 며칠씩 굶기도 하였다.

식량난을 이겨가면서 행군길을 다그치던 어느날 사령부의 대원들은 몸보신에 좋은 희귀한 산짐승 한마리를 잡게 되였다.

굉장히 큰 놈이였다.

허기증으로 맥을 못 추던 때라 여러 대원들이 달라붙어서 겨우 그놈을 숙영지로 메여올수 있었다.

여러날 굶던 끝에 산짐승을 잡았으니 먹지 않고도 배가 부른상싶었다.

이윽고 저녁준비가 다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대원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수령님께서 수저를 드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국그릇을 마주하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7련대소속 소부대동무들은 어디 가서 끼니나 제대로 에우는지라고 하시며 저물어가는 서쪽하늘가를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국 한그릇을 놓고도 소식이 끊어진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며 수저를 드시지 못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대원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대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끝내신 수령님께서는 남은 고기를 모두 말리여 가루로 만들라고 하시였다.

대원들은 고기를 모두 말리워 가루를 만들어 통채로 싸서 자루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한자루에 넣을것이 아니라 얼마만 한 몫으로 고루 나누어 따로따로 종이에 싸라고 하시였다.

(왜 한자루에 넣어도 좋을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싸라고 하실가? 이렇게 나누어 싸서는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는가?)

대원들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 봉지를 다 만들고나서도 수령님만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봉지가 다 만들어지자 쉰개의 봉지를 앞에 놓고 붓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봉지한봉지에다가 련락이 끊어진 소부대성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쉰명의 이름을 다 쓰시고나서 대원들에게 이것을 잘 건사해가지고 다니다가 소부대를 만나면 주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소식조차 모르는 대원들 한사람한사람을 다 자식처럼 잊지 않고 귀중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매 소부대성원들에게 닿도록 하시려는 생각에서 가루봉지에 일일이 이름까지 적어두시는 수령님의 대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무엇에 비기겠는가!

대원들은 귀중한 쉰개의 가루봉지 하나하나를 배낭속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후 피어린 전투와 간고한 행군이 계속되던 준엄한 나날 식량이 떨어져 눈을 움켜먹으며 험한 벼랑길을 톺아오를 때에도, 대적의 포위를 헤치는 치렬한 격전장에서도 대원들은 언제나 쉰개의 가루봉지가 들어있는 배낭이 다칠세라 소중히 건사하고 다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항상 대원들이 고기가루봉지를 제대로 건사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였다. 때로는 그것을 해빛에 말리고 손질해서 건사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소부대 성원들을 생각하여 이토록 걱정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꼭 돌아오리라 믿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사랑, 이 믿음속에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힘이 있었다.

쉰개의 가루봉지!

그것은 불과 두홉이 될가말가 한, 한끼를 에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적은 량이였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깊은 은정과 뜨거운 사랑은 천근만근의 황금에도 비길수 없었다.

쉰개의 가루봉지,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혁명적

의리로 교양하며 사상의지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는 정신적 량식이였다.

사령부의 대원들은 그것을 지고 다니는 동안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7련대소속 소부대성원들, 아니 전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자기들과 같이 숨쉬며 싸우고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느낄수 있었다.

바로 그 사랑, 그 은정이 있었기에 소식을 모르던 소부대의 성원들도 처창즈치기에 와서 우등불자리에 묻어둔 식량과 솜옷으로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낼수 있었으며 걸음걸음 사선을 넘고넘으며 끝끝내 사령부를 찾아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어온 소부대성원들이 못내 대견하시여 장하다고, 나는 동무들이 꼭 사령부를 찾아올줄 믿고있었다고 하시면서 고생인들 오죽이나 했겠는가, 혁명가들이란 절해고도에 홀로 떨어져있어도 그렇게 굴함없이 꿋꿋이 살아야 하며 혁명대오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 아주 장하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간고한 행군과 수많은 전투로 지치고 상처입은 몸들을 따뜻이 어루만져주시며 당분간 치료도 받고 휴식도 하면서 군정훈련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이뿐

만이 아니였다.

1944년 7월 어느날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고 간백산밀영에서 사업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지휘성원은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백두산밀영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수령님께서는 간백산밀영강습소의 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간백산밀영은 천연요새를 이룬 백두산지구의 대원시림을 리용하여 오늘의 량강도 삼지연군에 꾸려진 밀영으로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던 비밀근거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는 물론 1940년대 전반기에도 여러차례나 이곳에 오시여 국내 여러 지역에 나가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며 전민항쟁준비사업을 조직지도할수 있는 핵심들을 육성할데 대하여서와 비밀근거지와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활동하게 될 소부대들의 활동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었다.

수령님께서는 무산지구진공작전준비도 이 밀영에 계시면서 완성하시였었다.

그날 지휘성원으로부터 간백산밀영의 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신 수령님께서는 이 강습소는 우리가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것만큼 강습생들이 이곳

에서 강습을 받고 나가 국내 도처에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전민항쟁조직들을 조직하고 확대강화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강습소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강습소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느라 어느덧 시간도 퍼그나 흘러갔다.

지휘성원은 머나먼 행군길에 피로가 겹쌓여계실 수령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인차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이윽토록 찬찬히 살펴보시며 지난 겨울에 된감기를 앓고난 뒤에 기침을 자주 한다더니 일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수령님께서 그 일까지 어떻게 다 알고계실가 하는 생각에 그는 엉거주춤하며 말씀드리였다.

《예. 소부대활동을 할 때 감기에 걸려 기침을 좀 한 일이 있는데 여기 강습소에 와서 생활하면서부터는 병이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올리는 그의 얼굴에는 몹시 송구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런 그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통신원을 통하여

동무가 기침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실은 강습소일도 일이지만 동무를 얼마간이라도 휴식시키기 위해 여기 간백산으로 보냈는데 효과를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어떻게 되여 간백산밀영으로 오게 되였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자그마한 종이꾸레미를 그의 앞에 내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랜 기침에는 오미자환이 좋다고 하여 지방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에게 부탁하여 좀 얻었다고, 잊지 말고 매일 먹도록 하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오미자환을 받아든 그는 고향의 친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을 바로 수령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에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날 저녁 그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신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고비마다 동무를 고생시키면서도 언제 한번 조용히 마주앉아 식사 한끼 나누지 못했는데 많이 들라고 거듭 권하시였다.

어느덧 밤이 되여 그가 밀영을 떠날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밤길에 혼자 가기 힘들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경위대원들까지 붙여주시였다.

그는 사령부의 호위를 맡은 경위대원들을 떼여내는것이 마음에 걸려 굳이 사양하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끝내 대원들을 붙여주시였을뿐아니라 약을 잊지 말고 제때에 먹도록 하라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원래 과묵한 성미여서 좀처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였건만 눈가에서는 어느새 뜨거운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은 그대로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끓어넘치게 하였다.

그리고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열화같은 마음을 낳게 하였다.

［일화］

곰열에 깃든 사연

1943년 4월이였다.

어느덧 원동의 지독한 추위도 물러가고 북야영에 봄빛이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약동하는 봄의 시작과 더불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군정훈련으로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항일련군부대에 속하여 북만에서 활동하다가 여기 야영지에 온 한 대원이 건설용으로 산같이 쌓아놓은 통나무무지들이 무너져내리는것을 보고 달려가 한몸으로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출해냈다.

그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동지들은 구원되였지만 그는 그만 의식을 잃고 군의소로 후송되게 되였다.

그러나 당시 군의소에는 그를 치료할만 한 변변한 약이 없었다.

대원들과 간호원들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황경피나무껍질을 벗겨다 짓찧어 허리에 붙여주기도 하고 어혈을 푸는데 좋다는 구새먹은 버드나무토막들도 가져다가 손질하여 밤새워 찜질도 해주면서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그의 소행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군의소를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의식을 잃은채 누워있는 그의 손목을 잡아주시며

충렬이는 죽지 않는다고, 또 죽어서도 안된다고 하시며 부모없는 설음을 안고 유격대에 입대하여 지금까지 죽을고비인들 얼마나 많이 넘어왔으며 전투에서 적들의 총탄에 부상당한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처럼 강한 의지를 안고 꿋꿋이 살아온 충렬이를 살려내지 못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모두 피와 살을 바쳐서라도 꼭 살려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치료를 잘하여 꼭 살려내자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군의소를 다녀가신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손수 마련하여 보내주시였으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도 매일이다싶이 여러가지 약재와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군의소에 찾아오시여 친누이의 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드디여 그는 일주일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여났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남먼저 병원에 찾아오시여 동무때문에 오늘까지 발편잠을 자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마음놓고 자겠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런데 난감한것은 그의 생명은 기적적으로 소생되였으나 허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것이였다.

그 상태를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좀처럼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군의소에 김정숙녀사께서 찾아오시였다.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가시여 병색이 짙은 환자의 얼굴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녀사께서는 간호원에게 더운물을 한사발 떠오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더운물에 무슨 약인지 넣고 휘저으시는것이였다.

간장빛으로 되는 약물을 보며 간호원은 호기심이 동하여 《무슨 약입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녀사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곰열이예요. 어혈진데는 곰열이 제일이예요.》라고 하시며 이 약을 쓰면 허리병이 말끔히 나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 곰열로 말하면 김정숙녀사의 건강을 위해 국내혁명조직들에서 보내여온것이였다.

그런데 그 귀한 곰열이 바로 환자에게 돌려진줄을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후에도 김정숙녀사께서는 여러차례 군의소를 다녀가시며 자신께서 직접 곰열을 풀어 환자에게 먹이시였다.

바로 이렇게 되여 그의 허리병은 씻은듯이 나아지게 되였다.

얼마후 그는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군정훈련에 참가하게 되였다.

반일애국력량과의 단합을 위하여

수십년간의 반일투쟁력사는 우리 겨레로 하여금 주의와 당파를 초월한 민족력량의 굳건한 단합만이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는 지름길로 된다는 하나의 인식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 후반기 반일민족운동자들속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의 합작을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있었다.

민족주의진영이 진정한 혁명가들을 덮어놓고 배척하고 경원시하던 종전의 립장에서 벗어날수 있은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된데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민족해방운동에서 주축을 이루고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반일민족해방전선의 주력군이였고 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의 최고대표자였으며 항일혁명의 조직자, 령솔자였다.

민족해방운동선상에 여러 갈래의 반일세력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적들에게 제일 심대한 타격을 가한것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

일제가 제일 두려워한 존재도 조선인민혁명군이였고 우리 민족이 제일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무장력도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

우리 겨레는 일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낼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력은 조선인민혁명군밖에 없다고 보았다.

민족운동단체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련공의 움직임이 전에없이 활발해지게 된데는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만인이 다 접수할수 있는 민족공동의 투쟁강령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발표와도 관련되여있었다.

국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강력한 전민항쟁력량을 꾸려나가는것은 각계각층의 애국인사들과 민족의 공통된 념원이였다.

온 민족의 단합과 반일애국력량의 총집결로 조국해방을 이룩하는것을 항일대전의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대 전반기에도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대일작전을 준비하던 나날에 더 련마되고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태평양전쟁과 중일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본의 패망을

예고하는 사변들이 도처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었다.

격변하는 정세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하나로 결속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준비할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반일애국력량의 결속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이 도처에서 반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몸소 국내깊이에까지 나오시여 이 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1(1942)년 6월 소부대를 이끄시고 국내로 진출하시여 함경북도 무산군 풍산리 독골에서 지하혁명조직 및 반일애국단체 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에서 활동하던 소부대책임자의 안내를 받으시며 독골에 이르시였을 때에는 이미 회령, 무산지구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온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과 반일애국단체 책임자들이 와있었다.

한 대원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로인과 그일행을 회의장으로 안내할 때였다.

로인이 그 대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회의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참석하신다는것이 사실

이요?》

《예.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회의를 발기하시였을뿐아니라 오늘 몸소 참석하시게 됩니다.》

《원, 이런 경사라구야! 축지법장수 **김일성**장군님을 뵙게 되다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말이 참가자들속에 퍼지자 회의장은 환희로 설레였다.

회의장소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참가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몇번이고 손을 들어 흔드시였다.

장내가 진정되기를 기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학정밑에서도 반일애국의 고결한 뜻을 굽히지 않고 싸우는 여러분들과 만나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면서 오늘 청송우거진 조국의 산중에서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우리 서로 일심단결하여 조국광복을 성취할 방략을 의논하고저 이 모임을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여러분들의 의향을 듣고싶다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였다.

회의는 이렇게 격식없이 시작되였다.

수령님의 소탈하시고 인자하신 말씀에 깊이 감복된 회의 참가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있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서두수수전공사장에 조직된 동향회 책임자가 먼저 자리

에서 일어나 자기들은 전라도에서 온 수전공사장의 로동자들로 동향회라는것을 뭇고 생존의 권리를 위해 악질감독이나 십장놈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동료들간에 호상부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어서빨리 나라를 찾아주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회령지방에서 온 한 유지회의 책임자는 자기 지방 유지들이 겨레의 고통을 덜어줄수 없을가 하여 유지회라는것을 뭇기는 하였으나 고작해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면사무소나 군청에 찾아가서 항의하며 마을에 간이학교나 야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는것이였는데 최근에는 놈들이 걸핏하면 《치안유지법》위반이요 뭐요 하며 걸고들기때문에 그런 일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모든 지하조직들과 반일애국단체들이 일심단결하여 항일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각계층 군중이 일심단결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가 하나의 감옥으로 화하고 온 겨레가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히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한탄만 하고 울분만 토한다면 과연 누가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며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해준단 말인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수 없다, 우리는 오직 제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찾아야 하며 사랑하는 동포형제들을 오늘의 처지에서 구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인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10여성상 혈전의 길을 이어 영웅적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이 철창속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굴함없이 싸우고있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투쟁은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성취하여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그가 조선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조선사람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조선의 운명이 칼도마우에 놓여있는 이 엄혹한 시각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론하거나 남녀와 로소, 재산의 유무를 가림없이 반일구국항전의 마당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우리앞에는 단결이냐 분렬이냐, 투쟁이냐 굴복이냐 하는 길만이 있을뿐이지 그 어떤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 단결하여 투쟁하는 길은 반일애국의 길이고 민족부활의 길이다, 이 엄숙한 력사의 갈림길에서 각자는 조국

과 인민앞에, 후대들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도록 자기 결심을 하여야 하며 자기가 갈길을 똑똑히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그이의 말씀은 자자구구 참가자들의 가슴속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온 민족을 일심단결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반일애국의 기치밑에 온 나라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할수 있는 강령도 있고 그러한 조직체도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취지와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여기에 찬동하는 애국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것이며 설사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되지 않는다 해도 반일애국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들, 애국인사들과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비록 일제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조직이나 단체, 그에 가담한 성원들, 일제기관에 복무하면서 한때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진실로 우리와 손잡고 반일항전에 나서려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손을 잡을것이며 또 그러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각방으로 부단히 노력할것이라고, 이렇게 하는것이 그릇된 길을 걷고있는 동포들을 구원하는 길이며

동포애적의리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반일애국단체들이 자기 성원들과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사람들을 각성시키는데서 정세의 추이와 일제멸망의 불가피성, 일제의 잔악성과 교활성을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이르는 곳마다에서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합법적인 반일애국단체들을 뭇고 단체안의 성원들이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상호부조하는것으로부터 점차 일제의 가렴잡세와 공출, 부역 등 전시정책을 거부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하고 조선인민혁명군과 국내혁명가들을 도와 반일애국투쟁의 길을 걸어나가는데로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반일을 지향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온 민족의 일심단결된 힘으로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고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자고,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반일애국지사 여러분들이 민중의 선봉적역할을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열렬히 호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회의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다함없는 신뢰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수령님곁에 다문 얼마간이라도 더 있고싶어하였으며 한마디의 가르치심이라도 더 받고싶다고 하면서 좀처럼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마치신 후 개별적인 애국인사들을 만나시여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이날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충격을 새기지 못하여 나무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혁명적인 구호들을 썼다.

자욱자욱 피가 고이고 심장을 내대야 하는 조국해방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는 간고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애국단체들과 그 성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3년 7월 20일 함경북도 경원군(당시) 룡계비밀근거지의 정치공작원 및 반일애국단체성원들의 회의와 1944년 6월 하순 백두산밀영의 사령부직속 소부대책임자와 하신 담화, 1944년 7월 15일 연사군 상단산림시비밀근거지의 전국조국광복회 조직책임자회의 등 여러 기회에 민족의 얼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전민항쟁대오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이무렵 수령님께서는 국내에 조직된 조선건국동맹과의 사업에 주목을 돌리시였다.

조선건국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항쟁로선을 받들고 려운형선생이 1944년에 내온 반일지하단체였다.

이 동맹은 려운형선생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일대의 농민들을 기본으로 하여 무은 농민동맹이라는 산하조직도 가지고 있었다.

려운형선생은 건국동맹안에 군사위원회를 내오고 무장투쟁으로 일제의 배후를 교란시키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다.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지향하고있던 전민항쟁로선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

건국동맹을 조직한 려운형선생은 수령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중국 동북지방에 련락원까지 파견하였다.

하지만 그 련락원은 아쉽게도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이 반일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뿐아니라 상해림시정부 인사들을 비롯한 해외의 반일애국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일제가 중국본토를 침략한 후부터 림정은 거처지를 빈번히 옮기였다.

국민당정부를 따라 소재지를 자주 바꾸다보니 사실은 간판이나 겨우 유지할 정도로 고달픈 처지에 있었다.

어떤 때에는 짐보따리를 풀어보지도 못한채 려관구석에 앉아있다가 전쟁의 참화를 피해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독립운동보다는 끊임없는 파쟁과 헌법개정, 개각으로 진통을 겪는 림정은 초보적인 생존조건과 신변의 위험때문에도 고충을 겪고있었다.

김구선생도 후날 그때를 돌이켜보며 경제적곤난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군월급이 20원미만이였으나 이것도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번 송사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는 림정청사마루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거지중에서도 상거지였다고 하였다.

그러던 림시정부는 1940년에 중경에 정착하였다. 그무렵 그들은 광복군과 같은 무장력을 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세력은 구성으로 보나 무장장비로 보나 청소한 무장력이였다.

◇자료◇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중경림정의 편지

김구, 조소앙선생들은 1944년 12월 중순 림시정부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소앙선생이 목전정세와 민심동향을 참작하여 림정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림정의 차후 행동방향을 통보하기 위해서도 **김일성**장군님께 밀사를 파견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반공집단으로 소문난 한국독립당이 **김일성**장군님의 공산주의와 합작을 표시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까박을 붙이면서 밀사파견을 반대해나섰다.

그때 김구선생은 조선독립운동의 주류세력을 이루고있으며 2천만민중의 일치한 흠모를 받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과 일신편지거래도 없이 《3.1의 피의 결실》이요, 《법통정부》요 하는 공념불만 외우고있으니 이 얼마나 게면쩍은 일인가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님께 가까운 시일안으로 첫 편지를 드리는 련락원을 파견할 결심을 피력하였다.

김구선생은 조소앙, 엄항섭, 최동오선생들을 편지초안작성위원으로 하였다.

편지는 김구선생의 비서로 있던 안중근렬사의 조카 안우생이 명주천에 붓글씨로 두통써서 김구의 실인을 찍은 다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밀사의 웃옷과 바지에 각각 한통씩 봉합하였다.

밀사의 출발준비와 출발시일은 김구, 조완구, 안우생 등 몇사람만이 알고있었다.

림정의 밀사는 1945년 새해 첫새벽에 백두산을 향하여 출

발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만주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때 림정이 위대한 수령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의 패망이 완연해지며 조국광복의 최후결전이 림박해오는 이 시각에 3.1운동이래 20여년 망명정부의 형태를 띠고 상해와 항주, 중경에 전전하며 반일독립을 기원해온 우리 대한민국림시정부는 비상국무회의의 결의로서 조종의 산 백두산에 사령부를 두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만주광야와 백두산일대 북부조선의 넓은 지역에서 100만관동군과 일만군경을 상대로 혈투를 벌리시며 올린 그 혁혁한 전과에 고무되여 조국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고 림시정부법통을 고수해왔습니다. 한데 겨우 몇십명밖에 안되는 망명집단으로서의 우리 중경림시정부는 조국광복의 최후결전에 림할 힘도 위신도 없다는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광복운동대렬에 합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단 우리는 종전과 같이 앞으로도 민족도 모르고 조국도 부인하며 민족주의자들을 덮어놓고 배척하는 종파군들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반공의 립장을 견지하겠다는것을 부언하는바입니다.

우리의 련공합작을 위한 밀사로서 리충모를 보내오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접견하시고 우리 중경림시정부에 대한 련계와 합작의 방도를 명시한 회신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우생의 일기장 중경림정편에서 정리)

그것은 일제가 광복군에 대하여 남긴 기록의 한토막을 보고서도 잘 알수 있다.

《광복군의 진용은 림시정부의 과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하며 각 지대원은 불과 1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제5지대만이 총계 50명이 되나 그중 20명은 … 무정부주의자, 기타는 모두 조선인포로로서 문맹에 가깝고 아편을 밀매하는 불령업에 종사하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우 빈약한것으로서 거의 볼만 한 활동이 없이 지내고있었다.》 [황해도경찰부 고등경찰과 소화18년(1943년) 2월]

김구선생이 자기의 자서전에 《… 우리 광복군이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것을 실망》하였다고 쓴것처럼 광복군은 해방의 마지막날까지 조국땅에 총소리 한방 울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의주장이나 정견의 차이보다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애국심을 크게 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하조직들에 과업을 주시여 그들과도 손을 잡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림시정부의 반일애국력량도 조선인민혁명군과의 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모색하고있었다.

광복군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주관한 한 출판물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과 활동내용을

소개하였다.

1942년 12월에는 림시정부파견원의 자격으로 김가성을 가진 사람이 목단강까지 왔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나지 못하고 중경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특히 김구선생은 항일대전의 총소리가 높이 울리는 백두산을 조국해방의 새봄이 밝아올 등대로 바라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인장이 찍힌 편지를 가진 련락원을 파견하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교세력을 반일애국의 기치밑에 묶어세우는데도 주의를 돌리시였다.

1942년말에 녕안현 동경성에 있던 대종교본부의 3세교주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종교의 교인들은 자기 교의 사명이 일본과 만주국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민족에 의한 배달국의 재건을 기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반일활동을 벌렸다.

대종교의 한 교인은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은 불가피한 운명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조국해방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에는 **김일성**장군이 있다, 조선민족의 행복은 독립에 의하여 이룩될것이라는것을 내놓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대종교 교인들을 마구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지하조직에 적들의 탄압책동을 분쇄하고

애국적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반일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민족의 넋을 잃지 않은 각계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전민항쟁을 위한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었다.

도처에 타오른 전민항쟁의 불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3대로선에 따라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전민항쟁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였습니다. 하나는 국내에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더 많은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민항쟁력량을 조국해방작전에 철저

히 준비시키는것이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국내의 전민항쟁 력량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태평양전쟁에서 일제의 패배는 확정적인것으로 되여갔다.

일제가 멸망의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수록 적기관 관리들속에서까지 직무태공현상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적의 통치체계에 생긴 이러한 취약성은 국내항쟁조직들이 통이 크게 전민항쟁준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었다.

각계층의 광범한 군중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와 신뢰의 정을 간직하고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전민항쟁에 떨쳐나설것을 열망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이미 꾸려진 국내의 비밀근거지들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로서뿐아니라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도록 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시였다.

전민항쟁은 무장봉기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고 활동거점이 없이는 성사될수 없는 문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1930년대에 전민항쟁과 관련된 로선을 제시하시면서 백두산줄기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부지역과 압록강연안, 랑림산줄기, 부전령산줄기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내륙지역을 비롯하여 서부지역과 중부지역 등 전국 도처에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이에 토대하여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이러한 비밀근거지외에 조국해방작전수행에서 전략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의 주요요충지들에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로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거지건설을 선행시키면서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이 전민항쟁력량을 조국해방작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도록 하시였다.

국내에 파견된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압록강, 두만강연안의 국경지대뿐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조선일대와 부산, 진해를 비롯한 남부조선일대에까지 진출하여 정치군사활동을 활발히 벌렸으며 광범한 반일군중을 전인민적항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결과 각지의 무장봉기조직들과 광범한 대중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대중적무장폭동으로 합세하자!》라는 구호밑에 도처에서 적극적인 무장봉기태세를 갖추었다.

사람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뢰와 흠모의 정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갔다.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활한 전법들을 칭송한 삐라와 격문들이 곳곳에 나붙었고 여러가지 전설들이 많이 나돌았다.

부산과 시모노세끼를 오가던 일제의 관부련락선 《고안마루》의 3등선실 천정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이 씌여지고 서울 남대문에서 《근일 **김일성**대장 조국개선》이라는 글발이 발견된것도 이무렵이였다.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독립후의 조선의 최고지도자》, 《장래 조선의 대통령》으로 높이 우러르면서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설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무장봉기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지하조직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무장봉기조직들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국내 각지에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는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들로 하여금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성원들로 무장봉기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1943년 2월초 평안북도 철산군 참면 잠봉동(동림군 잠봉리)일대의 핵심청년들로 잠봉로농단이 조직된데 이어 철산애국단, 순안철공소로동자반일무장대 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무장대들이 곳곳에 조직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장봉기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에 진출하여 무장봉기조직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주체32(1943)년 7월 적들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조국에 진출하신 수령님께서는 웅기, 라진을 거쳐 경흥군 록야리 곰산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및 지하혁명조직 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국적범위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인민무장대조직건설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듬해 7월 국내에 또다시 진출하시여 함경북도 부령군 부거면 판장동(오늘의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 판장림시비밀근거지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을 확대강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 파견되여 활동하고있던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 그리고 각지의 당 및 혁명조직들에서는 무장대를 급속히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함경북도에서는 곰산로농무장대, 까치봉무장대, 무산광산백의사, 증산무장대, 일철비밀결사, 라진인민무장대를 비롯한 수많은 무장대들이 조직되여 전민항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쳤다.

함경남도일대에서도 무장대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짐으로써 대진평항일결사대, 삼각대반일결사대, 구국청년회, 문천인민무장대 등 각이한 명칭의 무장대들이 조직되였다.

창성을 비롯한 평안북도일대에서는 삼봉산인민무장대와 비래봉무장대가 결성되여 활동하였다.

무장봉기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은 평양, 성천, 황주, 금천, 벽성, 통천, 이천, 서울 등 중부조선일대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평양에서는 애국적인 청년들에 의하여 조국해방단이 결성되였다.

조국해방단은 애국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망라한 무장봉기조직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합세

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킬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삼고있었다.

그들은 평양 등 우리 나라 중서부의 공장, 농촌지대들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군중들속에 조직을 확대해나갔다. 조직망은 일제의 경찰기관, 관공서, 군수공장들에도 뻗치였다.

성천의 반일행동대, 황주의 천주산반일애국단, 금천의 제적산항일결사대, 벽성의 영천인민무장대, 통천무장대, 이천의 조국광복단들도 최후결전을 위한 싸움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서울에서도 광범히 조직되였다.

1942년 서울에서는 이 일대에서 활동하던 정치공작원의 지도밑에 로동자들과 각계층 인민들로 **김일성**대가 조직되여 제주도 모슬포와 국내 각지 그리고 일본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였다.

김일성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가 되여 조국해방성전에 한목숨바쳐 싸울것을 맹세한 항쟁조직이였다.

그들은 광범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워 항쟁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진공을 개시할 때 거기에 합세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성전에 참가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한편 1944년 봄 서울에서는 정치공작원의 지도밑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울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가 조직되였다.

일명 성대비밀결사라고도 하는 무장봉기조직결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합세할 목적으로 원산, 마산, 서울 등지에서 무장봉기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들은 유격전을 벌리기 위하여 근거지를 꾸리고 시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비밀거점을 꾸리는 사업, 출판물인쇄, 군사정보자료들을 수집하는 사업을 맹렬히 벌리였다.

지어 조선인민혁명군으로부터 무장을 보장받기 위하여 련락원까지 파견하였다.

무장봉기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은 남부조선일대에서도 세차게 전개되였다.

이 시기 남부조선일대의 여러 지역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각성된 애국적인 청년들에 의하여 많은 무장봉기조직들이 결성되였다.

1942년 8월 경상남도 진주군 진주면 주약리(진주시 주약동) 약골에서 여러명의 핵심적인 성원들로 고려구국회가 조직된데 이어 1943년 10월에는 고려구국회의 핵심성원들과 일제의 징병, 징용, 학도병을 기피하여 산속에 숨어다니는 청장

년들을 망라하여 지리산에서 광복무장대가 결성되였다.

한편 징병, 징용을 피해 산속에 숨어있는 청장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리산주변일대의 애국적인민들을 망라한 지리산무장소부대가 조직되였다.

전민항쟁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은 일제침략군에 강제징집된 조선청년들속에서도 벌어졌다.

1944년 진해해병단에 끌려간 조선청년들은 **김일성**장군부대에 달려가 조선독립을 위해 싸울 계획밑에 병영에서 집단탈출하였으며 평양에 주둔하고있던 일본군 제30사단에서도 조선청년들이 반일학도병무장대를 조직하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집단적으로 합류할 계획까지 세우고 활동하였다.

국내에서 이러저러한 조직에 관여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항쟁로선에 접하고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최후결전준비에 합류하였다.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에 의하여 1940년대 전반기 국내에서는 전민항쟁세력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1942년에만도 로출된 국내의 반일지하조직이 180여개나 되고 조직적력량은 50만명이 넘는다고 비명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력량을 국내뿐아니라 일본

본토에까지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일본본토를 중시하신것은 그곳이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본바닥이였기때문이였다.

본바닥을 뒤흔들어놓으면 적의 심장부에 강타를 안길수 있고 식민지통치를 붕괴시키는데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었다.

일본에 가있는 조선사람들 특히 징병,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청년들과 류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만의 반일력량은 국내와 해외에 있는 반일애국력량과 함께 일제와의 최후결전시기 조선인민혁명군에 화합하여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력량이였다.

일본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이미 구축해놓은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더욱 확대하면서 공산주의조직, 민족주의운동조직, 계몽조직들을 전민항쟁준비에로 궐기시켰다.

사실상 이러한 사업은 전쟁의 대포밥이 될 운명을 지닌 조선사람들을 일본파시즘의 마수에서 떼내여 애국애족의 편으로 집단적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투쟁이였다.

정치공작원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던 조선류학생들의 기성조직인 계몽단체를 반일애국단체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 아무런 목표도 방향도 없이 울분속에 모대기기만하던 도꾜의 풍우동경고학생친목회가 반일애국단체로 개편되고 오까야마6고등학교의 조선인학생친목회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되였다.

또한 가나자와조선인학생민족주의그루빠, 오사까의 고학생들로 된 충성회, 고베의 중앙신학교 조선인학생민족주의그루빠 등 항쟁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일본본토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이 시기 조선인류학생들속에서뿐아니라 강제련행된 조선인로동자들속에서도 반일항쟁조직들을 많이 내왔다.

일본의 주요공업지대인 경빈지구, 판신지구 그리고 혹가이도나 니이가다 등 조선사람들이 많이 가있던 곳에 로동자들로 조직된 항쟁조직이 적지 않았다.

로동자들속에서 조직된 반일항쟁조직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도꾜에서 조직된 동맹회였다.

동맹회는 로동자들을 골간으로 하고 거기에 고학생들을 망라하여 꾸린 반일조직으로서 로동자들과 고학생들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다.

일제관헌자료는 동맹회성원들이 진행한 선전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있다.

《… **김일성**은 우리 동포인데 그 세력이야말로 위대한것으로서 일본군대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있다. 때때로 조선내를 습격하여서도 조선동포의 집은 절대로 치지 않고 일본인가옥과 일본인을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은 참으로 우러러볼만

한 행위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소화17년(1942년) 3월분 202페지]

동맹회의 전략은 적의 지원병제도를 역리용하여 일단 군사훈련을 받아두었다가 유사시에 일제에게 총부리를 돌리자는것이였다.

교또의 조선인로동청년들은 장차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독립계획을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여러 공장들에 반일조직들을 내왔다.

실로 북으로는 혹가이도로부터 남으로는 규슈에 이르기까지 일본땅 어디에나 그리고 대학생으로부터 신학교의 학생, 탄광로동자로부터 징용로무자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반일항쟁조직이 뿌리박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일본땅에 꾸려진 전민항쟁조직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민족자주의식으로 더욱 각성되고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조직들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3년 2월 연사군 우적골에서 진행된 전국당조직 책임자 및 당핵심성원들의 회의에서 당창건준비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며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

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중요산업지대와 전략요충지들 특히 청진, 함흥, 평양, 부산, 대구, 목포, 군산, 진주 등 전국 도처에 혁명조직들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로 당조직이 무어지고 확대되였다.

평양, 개천, 남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당소조를 둔 평안남도지구당위원회와 일철을 중심으로 청진지구의 공장들에 당세포를 둔 청진지구당위원회 등 지역적당지도기관들이 조직되여 해당 지역의 조국광복회조직들과 전민항쟁조직들을 지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패망이 다가옴에 따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정치공작원들과 당 및 혁명조직들의 지도밑에 로동자들은 도처에서 파업과 태업, 방화, 폭파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려 일제의 군수생산과 전시수송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42년 2월 신의주에서 7개의 군수물자를 실은 차량이 폭파되고 제지공장이 소각되였다. 선봉에서도 6개의 연유창이 불타고 철도가 파괴되였다.

제주도 일본항공기지에 고용된 조선로동자들은 수십여대의 일본비행기를 파괴하였다. 이곳 로동자들은 전민항쟁조직인 **김일성**대의 지도밑에 대규모적인 폭동도 벌렸다. 그리고 비행기격납고와 활주로 등을 파괴하는 과감한 투쟁들을 벌렸다.

1943년 10월 흥남비료공장 산소탕크폭파사건, 같은 해 경상남도 부산조선중공업주식회사에서 일어난 대화재사건, 1944년 흥남요업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등은 이 시기 로동계급이 벌린 반일반전투쟁의 일단이였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강제공출과 각종 전시부담, 강제동원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비밀결사사건과 동맹휴학사건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징병, 징용, 강제동원을 반대하는 청장년들의 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다.

실례로 1944년 2월 평안남도 대동군의 청년들은 징병장을 가지고 자기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끌어가려는 악질순사를 창포역 대합실에 가두어놓고 그놈의 죄상을 폭로하는 군중선동을 벌린 후 그놈을 징벌하였다.

1945년 2월 강서군 반석면 청년들 역시 징병에 응할것을 강요하는 경찰놈을 때려눕혔고 3월에는 평안북도 삭주군 평산면 청년들이 강제징집을 강요하는 악질주구 면장놈을 징벌

하였다.(《징병제실시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동향》 1941년－1945년 신의주헌병대 47페지－52페지)

일제의 관헌자료에 의하더라도 1944년 10월 조선에서 《징용위반자》로 경찰당국에 검거된 청장년이 10일동안에 무려 1만 2 000명이나 되였다. 그리고 1939년부터 1943년 6월까지 일본에 징용, 보국대로 끌려간 조선청년들가운데서 탈주자는 10만 9 000명이나 되였다.

탈주자들은 산속에 숨어있으면서 항쟁대렬에도 망라되였다.

한편 국내외의 지식인들도 항일의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을 우러르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서울연희전문학교에 조직되였던 적색연구회는 정치공작원과의 련계밑에 자기의 활동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실현하는데로 지향시키였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선각자들을 망라한 비밀조직을 뭇고 민족어를 지키며 민족의 넋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로 총동원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항쟁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게 되였으며 도처에서 전민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일화］

로인의 고백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소부대가 주체31(1942)년 6월초 총검의 숲을 헤치며 조국땅으로 진출하던 도중 훈춘에 있는 어느 한 마을주변에 이르렀을 때 있은 일이다.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휴식할것을 명령하시고 몸소 인민들속에 들어가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멀지 않아 조선이 독립된다는 그이의 말씀까지 듣게 된 마을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동북부를 뜨자 《공산군은 다 없어졌다.》는 일제의 허위선전만을 들어왔는데 이제는 **김일성**장군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옵고 이렇게 끌끌한 우리 군대까지 맞이했으니 조국해방의 그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고 하며 기쁨과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어느덧 대오가 떠날 시간이 되였다.

서로서로 손저어 바래주며 조국이 해방되는 날 다시 만나자는 인사가 오가는 속에 한 늙은이가 마을로 허겁지겁 들어서는것이였다.

친척집에 나들이 갔다가 뒤늦게야 오는 바람에 수령님을 만나뵈옵지 못한 그 로인은 한 유격대원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물었다.

《혁명군젊은이, 이제라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뵈올수 없을가?》

《할아버지, 장군님께서는 곧 떠나셔야 하기때문에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로인은 그의 말을 듣고 한순간 서운해하더니 얼굴색을 달리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옳거니. 조국해방성업에 바쁘신 장군님의 걸음을 잠시라도 지체시켜서야 안되지.》

그러면서도 로인은 그냥 수령님을 만나뵈옵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채 다시 물었다.

《그런데 저… **김일성**장군님께서 혹시 우리 나라가 어느때 해방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그 대원은 신심에 넘쳐 대답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일제와 맞서 싸우면 조선은 곧 독립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말에 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과시 지당한 말씀이요. 하늘이 내신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 모든 백성이 합심해서 싸우면 반드시 조선이 독립되고말구. 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날을 보아야 하겠는데…》

이것이 쓰라린 고달픔과 파란곡절로 살아온 로인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진실한 고백이였다.

3 장

원동훈련기지에서의 나날에

국제련합군결성

1940년대에 들어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의 군사정치활동이 강화되자 일제는 이에 커다란 공포를 느끼고 《토벌》책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한편 《대동아공영권》의 야망밑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일대에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고 책동하면서 파쑈도이췰란드와 함께 이전 쏘련에 대한 침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었다.

국제당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파쑈도이췰란드의 쏘련침공이 기정사실화된 형편에서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이미 1939년 가을에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 련락원을 보내여 국제당이 쏘련의 원동지구에서 소집하는 만주빨찌산 지휘관들의 회의에 참가하여주실것을 초청해왔었다.

하지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지휘하고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장을 뜰수 없는 형편이였으므로 그에 응하실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듬해 10월 중순 또다시 국제당의 초청을 받으시였다.

이때는 수령님께서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한 방도를 구상하신 직후였다.

국제당은 이때 수령님께서 장차 쏘련 원동지구의 하바롭스크에서 소집하게 되는 조, 중, 쏘 세 나라 군사지휘관들의 회의에 참석해주실것과 이를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대표들이 빠른 시일안에 쏘련으로 들어올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그 기회에 동북지방에서 활동하고있는 유격부대들이 쏘련경내에 들어오는 경우 받을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통보해왔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단 원동에 들어와서 한해 겨울을 난 다음 차후활동대책을 실정에 맞게 상론할것을 제기해왔다.

국제당의 초청과 제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안전한 기지를 마련하며 조, 중, 쏘 세 나라 혁명적무장력사이의 실제적인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을 적극화해나가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내용상으로 일치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29(1940)년 10월 하순 안도현 처창즈치기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회의에서 쏘련에 들어가기로 하시고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추신 다음 국제당이 소집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쏘련의 원동지구로 가시였다.

그때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부사령이며 중국공산당 남만성위 서기인 위증민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이 회의와 관련한 련락을 받았다.

그는 국제당에서 주관하는 회의인것만큼 가기는 가야 하겠으나 건강이 허락치 않아 자리를 뜰수 없다고 하면서 수령님께 국제당에 가면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과 남만성위도 대표해달라고 진정에 넘쳐 부탁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석하신 하바롭스크회의는 그해 12월에 소집되여 이듬해 3월 중순까지 계속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및 만주 각 성위의 책임일군들, 국제당과 쏘련측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및 남만성위를 대표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서 론의된 중심의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의 장래활동방향에 관한 문제였다.

다시말하여 조선과 만주에서의 유격투쟁과 쏘련원동군과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그것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적응시키고 강화발전시켜나가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쏘련측은 도이췰란드, 일본, 이딸리아를 비롯한 파쑈세력이 방공련합을 형성하고있고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 확대되고있는 조건에서 련합한 파쑈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북항일련군에 독자성을 포기하고 쏘련군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쏘련측이 원동군과 동북항일련군을 하나로 합치는 군사체계의 창설을 제안하게 된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에 쏘련침공의 구실을 주지 말자는것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대일작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 원동군과 협동할수 있는 동맹자를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안팎에서는 격렬한 론의가 벌어졌다.

그무렵 주보중 등 동북항일련군의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와 자기들이 겪고있는 고충들을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주보중은 일찌기 1930년대 초엽부터 수령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 항일의 기치밑에 공동투쟁을 벌려온 동북항일련군의

주요지휘관의 한사람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주보중을 만나신 기회에 조성된 정세로 보아 쏘련과의 군사정치적협동과 협조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협동과 협조의 구체적형식과 방법은 매개 나라 민족혁명의 리익과 국제혁명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동북항일련군이나 조선인민혁명군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주보중은 수령님의 견해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주보중은 담화를 마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남만대표동지들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반일병사위원회시절에도 김사령의 발언은 매번 우리의 화제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새로운 정황에 맞게 서로 손잡고 일해나갑시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는 그 어떤 형식상지위에 구애되지 않고 수령님을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 조선혁명의 지도자로, 련합군내의 조선측 대표로 인정하고 존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주보중사이의 관계는 깊은 존경과 신뢰에 기초한 동지적, 형제적관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항일련군에 독자성을 포기하고

쏘련군과 통합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회의장에서 국제당이나 쏘련군부측의 의도를 충분히 리해할만 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조선혁명이나 동북혁명을 위하여 피흘려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싸워야 할 우리들에게 독자성을 포기하고 쏘련군대에 통합되라는 제의에는 심중한 문제가 있다, 독자성에 대하여 론한다면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의 힘으로 수행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쏘련인민이 10월사회주의혁명을 단행할 때 남의 힘을 믿고 남을 쳐다보았는가, 그들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우고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켜 혁명에서 승리하였다, 이것은 혁명수행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정당하신 그이의 말씀에 회의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정숙해진 회의장을 둘러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은 일찌기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자신이며 인민의 힘을 조직동원해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확대강화하고 혁명적무장력의 담보밑에 당창건준비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사업을 추진시켜 오늘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뿌리채 괴멸시키기 위한 전인민적반일항쟁준비를 다그쳐나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들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우리에게 《민족주의》감투를 씌우면서 방해하였고 《종주국로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하면 식민지인민들의 혁명도 승리한다.》, 《큰 나라 혁명이 승리하면 작은 나라의 혁명은 그에 따라 승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얽어매려고 하였다. 그처럼 안타깝고 간고하던 때인 1935년 여름에 국제당 집행위원회에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 권리라는것, 항일련군안의 모든 조선혁명가들로 조선인부대를 편성하여 조국으로 진출할데 대한 의견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로선에 대한 전적인 지지였으며 우리에 대한 큰 고무로 되였다.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혁명투쟁에서 자주성은 생명이라는것을 폐부에 더 깊이 새기고 만난을 극복하면서 투쟁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그 우렁찬 소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곡절많고 시련많은 민족해방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분출이였다.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자주성, 독자성문제는 혁명의 원리로 보나 력사적경험으로 봐도 혁명의 생명선이며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열쇠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쏘련측은 수령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나서 공감을 표시하였다. 중국측 지휘관들도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칙적인 립장은 조선, 쏘련, 중국 세 나라 혁명적무장력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회의에서는 조성된 긴박한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조, 중, 쏘 세 나라의 무장력을 각기 독자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통합할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력량을 보존축적하며 대규모적인 유격투쟁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이행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이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확한 방침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의 모든 부대들이 력량보존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본을 소부대활동, 군중공작, 조직건설, 실력배양에 둘것을 합의하였다.

하바롭스크회의에서는 또한 쏘련측이 원동지구에 조선인민

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의 활동기지를 설치할것을 약속하였다.

회의가 있은 다음 쏘련측은 원동지역에 2개의 기지를 제공해주었다.

하나는 워로쉴로브근처에 있는 남야영이였고 다른 하나는 하바롭스크부근에 설치된 북야영이였다.

이때부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원동에 새로운 훈련기지를 꾸려놓고 조선과 만주의 넓은 판도에서 소부대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바롭스크회의이후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이 서로 지지협조하면서 진행한 소부대활동과 정찰활동, 집중적인 군정훈련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연구하시면서 세 나라 무장력의 리상적인 련합형태를 국제련합군으로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조선, 중국, 쏘련 세 나라 무장력의 리상적인 련합형태를 국제련합군으로 보았습니다.》

국제련합군형태는 세 나라 무장력이 하나의 군사체계로 련합하되 매개 나라 무장력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일제를 괴멸시키기 위한 공동작전, 공동행동을 성과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게 하는 리상적인 련합형태였다.

국제련합군편성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대해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동북항일련군안의 조선인 지휘관들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그 구상을 빨리 실현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면서 수령님께 쏘련, 중국측과 협의하여 성사시켜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한때 동북항일련군의 일부 사람들은 만주의 항일무장부대들과 쏘련원동군의 일부 력량으로 하나의 새로운 군체계를 창설하고 공동활동을 할데 대한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의 발기를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대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련합군편성과 관련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것을 토론에 붙이셨을 때 그들은 종래의 립장에서 탈피하여 세 나라 무장력의 련합은 성숙된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였다.

국제당과 쏘련의 군사당국도 수령님의 구상을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2년 봄 국제련합군편성과 관련된 구상을 내놓으시자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을 대표하고있던 쏘련군 장령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지금 정세가 요구하는 가장 적중한 대안은 국제련합군을 편성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상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력독립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국제적협조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기 나라 혁명에도 리롭고 세계혁명에도 리로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주의야 왜 반대하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적을 때려부시자면 힘을 합쳐야 한다, 쏘련과 같은 큰 나라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나라의 혁명력량과 련합하여 투쟁하는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다,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덕을 볼 생각만 하거나 자기 나라 혁명은 다 집어던지고 남의 나라 혁명을 돕는것만이 진정한 국제주의라고 생각하는 사상적경향을 사대주의라고 본다고 말씀하시였다.

쏘련군 장령은 위대한 수령님과의 담화내용을 쏘련군사당국과 국제당에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국제련합군편성과 관련된 문제를 시급한 현안문제로 상정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국제련합군편성문제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척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1(1942)년 7월 중순 동북항일련군과 쏘련원동군의 군사간부들과 함께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련합문제를 최종적으로 토의하시였다.

여기서 세 나라 군사간부들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

련군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국제련합군을 편성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이어 7월 22일 중국혁명가들과 함께 쏘련원동군 사령관과의 합의를 거쳐 국제련합군편성은 최종적으로 락착되게 되였다.

국제련합군은 그 존재와 활동의 비밀을 보장하며 위장을 철저히 하기 위해 축소하여 편성하는 원칙을 세워 려단규모로 조직하게 되였다.

그리고 국제련합군에 대한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 피복과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공급은 쏘련측이 담당하게 되였다.

국제련합군의 대호는 형식상 쏘련원동군 독립 제88려단으로, 부대의 대외번호는 제8461보병 특별려단으로 정하였다.

국제련합군편성문제가 락착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앞에는 국제련합군이 편성되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활동방향을 세워야 할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1942년 7월 26일 훈련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국제련합군의 편성과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방향을 새롭게 규정하시고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대책을 세우심으로

써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다그쳐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인 8월 1일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쏘련원동군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원동기지에서는 국제련합군의 편성이 선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력량으로 편성된 제1지대의 지휘를 맡으시였다.

제1지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국제련합군의 조선지대였다.

그때 군사관등급도 적들의 첩보암해활동으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상징적인것으로 정하였다.

국제련합군의 사명과 기본임무는 조, 중, 쏘 무장력이 공동작전으로 일제를 격멸소탕하기 위하여 훈련을 다그쳐 정치군사간부들을 양성하며 소부대활동을 적극 벌려 일제의 전쟁능력을 약화시키고 대일작전에 필요한 군사정찰활동과 적통치체계와 적군내부를 혼란시키기 위한 투쟁을 폭넓게 벌려나가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구상과 정력적인 활동, 조, 중, 쏘 세 나라 혁명적무장력의 공동의 노력에 의한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조선혁명과 세계 반제반파쑈투쟁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해방의 위업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자체를 종국적으로 괴멸시키기 위한 세계사적인 과업을 겸하여 수행하게 되였다.

국제련합군편성을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인민과의 공동투쟁단계로부터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련합을 내용으로 하는 폭넓은 공동투쟁단계에로, 세계 반제반파쑈투쟁의 거창한 흐름에 합류하는 새로운 공동전선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국제련합군의 결성은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련합을 두려워하던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경내에 훈련기지를 정하고 대일최종작전을 준비하신다는데 대하여 일제는 이렇게 비명을 올렸다.

《**김일성**의 동정에 관한 건

입쏘중의 **김일성**은 … 지난해 여름 쏘련 하바롭스크로부터 … 연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중공요인 모택동, 하룡, 강생 등과 회견하고 일쏘개전전후에 있어 중공당군과 항련군과의 합작행동 기타 항련군의 금후에 있어서의 활동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협의를 하고 다시 연안부근에 있는 조선인공산당원과도 회견하고 각종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일성은 작년말경에 그곳에서 비행기로 쏘련에 돌아와 목하

쏘련 하바롭스크부근에 있으면서 … 대만선 첩보 및 사상공작에 노력하고있다. 또한 **김일성**은 하바롭스크부근 야영학교에 조선인, 중국인공비 기타 입쏘한 선만인불령분자, 피랍치자 등 약 300명을 수용하여 하바롭스크붉은군대…의 지도원조하에 일쏘개전전후에 일제히 만주로 들어와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할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끔 훈련교육중이라 한다.》[남양경찰서장이 함경북도 경찰부장에게 보낸 경찰자료 소화19년(1944년) 2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련합군이 결성된 후 일제를 최종적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였다.

1945년 쏘련은 대일작전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와씰렙스끼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원동군 총사령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3개의 전선군을 배속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바롭스크에서 원동군 총사령부, 제25집단군의 지휘성원들과 협동작전문제에 대하여 자주 협의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이 나날에 수령님께서는 와씰렙스끼와 말리놉스끼를 비롯한 쏘련의 고위지휘성원들과 사업하시면서 군사적협조를 강화하시였다.

대일작전을 앞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군 총참모부가 모스크바에서 소집한 작전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는 와씰렙스끼를 비롯하여 대일작전과 관련되여있는 각 전선사령부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일작전을 위한 쏘련군 총참모부의 총적계획은 3개의 전선군이 여러 방향에서 강력한 타격으로 일제관동군의 기본집단을 포위소멸하는것이였다.

제1원동전선군의 작전지역은 할빈이남 중국 동북의 일부 지역과 조선이였고 제2원동전선군의 작전지역은 할빈이북 하바롭스크서쪽에 있는 중국 동북의 일부 지역이였다. 그리고 쟈바이깔전선군의 작전지역은 할빈서북의 중국 동북지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계획을 통보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쏘련군대와 함께 대일작전에 참가하여 조쏘련합부대의 선견대, 돌격대로서 활동하며 기본주력은 비행기로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신속히 진출하여 이미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펴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온 민족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여 조국을 해방하도록 예견하고있다. …

이어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쏘련군부대들의 련합작전방향에 대하여 론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진격하는 쏘련군부대들과 함께 지상전선과 해상전선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 부대들의 진격로를 열고 전투성과를 급속히 확대해나가며 항공륙전대로서 적후방에 진출한 인민혁명군부대들은 전민항쟁부대들과 함께 적배후를 타격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계획은 쏘련군 고위지휘관들의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일성**동지의 작전방침은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침이며 작전이 개시되면 전 조선땅을 하나의 전구로 전환시켜 전선과 종심에서 동시에 적들을 타격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입니다.》

수령님의 작전방침에 크게 감동된 쏘련 제1원동전선군 사령관 메레쯔꼬브는 그이께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쟁에서는 조선동지들이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대일작전에서 조선동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쏘련, 중국의 무장력과 함께 국제련합군을 편성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면서 국제반제력량과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격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화］

최현이 터친 고백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바롭스크에서의 회의가 끝나신 후 원동의 훈련기지에 도착하시였을 때였다.

수령님을 마중하는 일행중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최현항일투사도 있었다.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멀리까지 나온 그는 급한 성미그대로 이사람저사람을 마구 헤치며 돌아갔다.

그러나 도무지 수령님을 뵈올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수령님을 모신 일행모두가 사민외투에 털모자를 쓴 차림새인데다가 키가 크고 뚱뚱한 쏘련사람이 길잡이로 있었으니 그뒤에서 걸으시는 수령님을 인차 알아뵈올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한참동안 이사람저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오다가 수령님의 앞에 와서 눈이 뎅그래서 투박한 온성말투로 웨치는것이였다.

《웬 신사이신가 했더니 우리 장군님이시였었고마.》

그리고는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며 이렇게 투정하는것이였다.

《무슨 회의를 달을 넘기며 합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이 다 빠지는데…》

그 말에 목이 꽉 메이신 수령님께서도 최현항일투사를 굳게 포옹하시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고, 몸은 건강한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최현항일투사는 눈가에 그들먹이 괴여오르는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훔치며 그이께 말씀드리였다.

《장군님을 뵙지 못하니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것 같고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디다. 아마 이 최현이는 장군님 없인 못사는 인생인가 봅니다. …》

다시는 헤여지지 않으려는듯 서로 굳게 포옹하고 떨어질줄 모르는 수령님과 최현항일투사의 모습을 보며 일행모두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일화]

남야영에 타오른 자력갱생의 불길

1942년 2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군정훈련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선통신훈련상태도 료해하시였다.

당시 남야영에서는 무선통신훈련이 진행되고있었는데 적지 않은 대원들속에서 전자원리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여 애를 먹고있었다.

이것을 료해하신 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에게 발진기를 한번 만들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사실 발진기는 전기적, 력학적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인데 남야영에는 그에 필요한 전자요소나 부속품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만들어낸다는것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수령님으로부터 과업을 받아안은 그 대원은 밤잠을 미루어가면서 악전고투한 끝에 발진기 비슷한 기계설비를 만들어냈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만든 발진기를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동무들 보시오,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소, 안영동무가 이번에 정말 큰일을 하였소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워로쉴로브에서 쏘련군대 고급군관이 밀영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는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 남야영에서 무슨 기적을 창조했다고 하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그의 말에 수령님께서는 **《우린 무슨 기적을 창조한것이 없는데…》**라고 하시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러자 그 군관은 사실은 발진기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 말에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아,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구만. 그 발진기는 당신네가 볼것이 못되오. 훈련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야 재료가 있어야지.》**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그 군관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겁니다.》라고

하면서 어서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것이였다.

잠시후 그 군관앞에 발진기가 놓였다.

발진기를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하고 동작도 시켜본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설하였다.

《기계는 볼품이 없지만 발진은 우리 통신기계공장에서 만든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맨손으로 발진기를 만들었다기에 웬 일인가 해서 왔는데 실지 와서 보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는 수령님께 넌지시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 혹시 여기에 무전강습소를 꾸리자는것이 아닙니까?》

그의 말에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강습소는 안꾸려도 무전수는 자체로 양성해보고싶다고 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그 말씀에 몹시 감탄하면서 자기도 적극 돕겠다고 말씀올렸다.

남야영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은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이딸리아, 일본 등 파쑈국가들은 1943년에 들어서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1943년초 이전 쏘련의 붉은군대는 쓰딸린그라드에서 최신무기로 장비된 파쑈도이췰란드군의 30개 기계화정예사단을 격파함으로써 쏘도전쟁의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았다.

쓰딸린그라드격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 붉은군대는 전반적인 전선에서 파쑈도이췰란드의 강점으로부터 광대한 령토를 해방하면서 계속 진격하고있었다.

쏘도전선에서의 쏘련군대의 승리적인 반공격과 함께 유럽과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반파쑈투쟁은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를 더욱 깊은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딸리아에서는 1943년 7월에 파쑈독재정권이 전복되고 이딸리아는 항복하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던 일제도 이 시기 여러 전선에서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깊숙이 빠져들고있었다.

일제는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연장해보려고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일제는 항일무장투쟁의 영향과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가로막으려고 수많은 병력을 상시적으로 동원하여 국경일대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놓았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원들의 지하활동을 탐색하려고 발악하였다.

한편 《전시》라는 간판밑에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게 보이기만 하면 《부정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선사람을 마구 체포구금하였으며 그 어떤 사소한 반일적 요소에 대해서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1943년 8월 《징병제령》을 조작공포하고 수많은 조선 청장년들을 침략전쟁터에 강제로 내몰았다.

그것도 모자라 1943년 9월에는 《개정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 그해까지 무려 261만 6 900여명을 징용으로 끌어갔다.

일제는 조선의 도시와 농촌에 성한 청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청장년들을 조선과 일본의 군수공장과 탄광, 광산 및 군사시설장들에 강제로 끌어다가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하였다. 또한 저들의 늘어나는 침략전쟁의 물적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경제적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략탈이 강화될수록 조선인민의 반일

감정은 더욱 높아갔다.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층 광범한 인민들은 파업과 태업, 강제공출반대, 동맹휴학, 징병 및 징용기피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반일투쟁은 침략전쟁에서 거듭 패전을 당하고 곤경에 빠져들어가고있는 일본제국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놈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었다.

일제의 멸망은 시간문제로 되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속히 변화되는 국내외정세를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활동을 맹렬하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정치군사적준비를 갖추는데 그 어느때보다도 힘을 넣으시였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조국에 대한 학습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조선혁명에 대한 옳바른 리론과 전략전술, 조국의 력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도덕과 풍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력독립도, 새 조국건설도 할수 없고 혁명에 대한 자주적인 립장과 독자적인 주견도 세울수 없다.

더우기 인민혁명군대원들은 대부분 어려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다가 유격대에 입대한것으로 하여 조국에 대해 잘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조국에 대한 학습을 시키실 결심을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훈련을 벌리던 1943년 9월 중순이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투사 림춘추를 몸소 부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선지도를 큼직하게 그려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산과 강들, 기름진 벌판과 호수들, 무진장한 지하자원과 각 지방의 특산물들 그리고 명승고적과 문화유적까지도 다 알수 있게 잘 그려오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도에 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림춘추투사는 곧 여러 참고서들을 가져다 연구하면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흰종이 넉장을 이어붙인데 이어 거기에 위도와 경도를 긋고 조선지도를 그린 다음 갖가지 색갈로 내용을 하나하나 표시하였다.

완성된 지도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만족을 표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이께서 왜 지도를 만들라고 하시였는지 깊은 의도를 모르고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들과 정치교원들을 사령부결에 있는 강실에 모이도록 하시였다.

강실에 모여든 지휘관들과 교원들은 저마다 환성을 올리였다.

정면벽에 조선지도가 걸려있었던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환성을 올리며 지도앞에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그리운 조국의 모습을 처음 보기라도 하는듯 좀처럼 지도앞에서 물러설줄을 몰랐다.

장내가 흥성거리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실에 들어서시였다.

한동안 미소속에 그들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그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 연설이 바로 주체32(1943)년 9월 15일에 하신 《조선

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국제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가까와오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신데 이어 이러한 정세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이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국의 력사와 지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찬란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각오를 높일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그들의 비위에 맞게 교양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조선의 력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를 잘 알아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혁명을 창조적으로 하고 우리 나라 혁명에 대한 자주적인 립장과 독자적인 주견을 세울수 있다고 하시였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모두가 넋을 잃은듯 수령님의 연설에 심취되였다.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이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시기에 벌린 반침략투쟁과 그후의 조국수호투쟁, 근세에 이르러 용감하게 벌린 반침략투쟁 그리고 일제에게 나라가 강점된

후 인민들이 벌린 의병운동, 독립군운동,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의 반일운동 등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청중들로 하여금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가지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민족의 우수한 전통도 모르고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없으면 비굴한 민족허무주의자로, 사대주의자로 굴러떨어진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열렬한 애국자로, 진정한 혁명가로 살며 투쟁하기 위하여 자기 민족의 력사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지리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투쟁목적이 인민들을 유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데 있는것만큼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공업과 농업, 수산업 등 각 방면에 걸쳐 경제를 부흥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나라의 위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자연의 혜택을 우리 인민이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가들이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인민이 우리를 고대하며 정세가 우리를 재촉하고있다, 모두다 분발하고 긴장하게 훈련을 잘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자고 호소하시였다.

장내는 박수와 환호로 진동하였다.

심장에 불을 지피는 수령님의 연설은 청중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에게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천이였다.

그들은 더욱 분발하여 군정훈련을 다그쳤고 밤을 지새우며 조국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습실에 나오시였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여기 녀대원들속에서도 학습열풍이 불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였다.

《학습하기가 힘들지 않소?》

《학습하기는 좀 힘들지만 무조건 해야 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합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학습을 무조건 해야 하겠다는 그 결심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그래 어떻게 되여 이번에 학습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때 한 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기차게 말씀올렸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사령관동지의 연설을 전달받고 조선혁명을 하겠다는 우리들이 조선의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있은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었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았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제를 옳게 보았다고 하시면서 물론 조선사람으로 태여나 조선의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할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된것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조국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 민족의 고통과 슬픔이 어떤것인지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고, 우리들은 이런 쓰라린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총을 잡고 나라찾는 싸움의 길에 나선 진정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이기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조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두가 깊은 뜻을 담고있는 그이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 안았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그간 진행한 학습정형과 실태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학습은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리해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조선을 잘 알도록 하자는것은 멀지 않아 도래하게 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된 다음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무들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나가 부강한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역군으로 일해야 하기때문에 지금부터 그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하자는것이 기본목적인것만큼 하나를 배워도 알심있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대원들모두는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만들기 위해 학습을 정열적으로 진행하였다.

훈련기지에 학습열풍이 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때로는 대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고 때로는 강연도 진행하시면서 대원들에게 조국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국내인민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조국해방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다듬도록 하시였다.

1943년 9월 하순이였다.

정치과목교원들을 통하여 수령님의 연설을 전달받은 대원들속에서 이에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싶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단에 나서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괄하신 후 지금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휘둘러대면서 보지 말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탄압과 략탈을 감행하고있지만 조선인민은 잠자코 있지 않으며 여러 형태의 반일, 반전투쟁에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금 전국 도처에 각이한 혁명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있는것은 물론 누구나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있다, 그런것만큼 우리들은 이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며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해방된 조국땅에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조선혁명의 주인인 조선의 혁명가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시며 그렇기때문에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하자면 조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대한 학습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얼마나 설득력있고 생동하게 강연을 하시는지 대원들의 눈앞에는 금시 조국의 아름다운 강과 바다, 산들이 보이는것만 같았고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의 문화와 력사를 단시간동안에 환히 꿰드는것만 같았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들이 지금은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러나 슬기로운 민족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은 결코 일제의 올가미에 묶이워 영영 일어나지 못할 그런 인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우리가 내놓은 전민항쟁로선을 받들고 한결같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열렬한 애국자들이며 혁명투사들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의 력사와 지리, 찬란한 문화를 깊이 연구학습함으로써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철저히 분쇄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강연은 대원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으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칠 굳은 신념을 가다듬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조국에 대한 학습을

깊이하는 과정에 조국의 과거와 현실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에서 주체적립장을 똑바로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였다.

［일화］

어명산의 산천어전설

주체33(1944)년 7월 중순경이였다.

소부대를 이끄시고 함경북도 부령군 관해면 라석동 어명산림시비밀근거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당조직책임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전민항쟁준비를 완성할데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이곳 림시비밀근거지성원들은 회의참가자들을 위하여 특식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되였다.

이날 저녁식사에서 만사람의 찬사를 받은것은 산천어료리였다.

상에 오른 산천어료리를 맛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이곳 산천어가 별맛이라고, 아마 그래서 이 산이름도 어명산이라고 부르는것

갈다고 말씀하시였다.

근거지를 책임지고있던 지휘관이 제꺽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옳다고 대답드리고나서 어명산과 관련하여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 옛날 어명산골짜기에는 흰 비단필을 드리운듯 한 폭포가 있었다. 산천어가 어찌나 많은지 고기떼가 춤추듯 돌아치며 곧추 떨어지는 폭포를 타고 쏜살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다시 내려오는것을 볼수 없어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 날아올라 간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이처럼 날쌔고 용맹한 산천어를 사람이 먹으면 대번에 정신이 맑아지고 용맹해지는것은 물론 어깨에 날개가 돋치여 훨훨 날게 된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산천어를 누구도 잡을수 없는것이였다.

이야기는 한입두입 건너 꼬리를 물고 전해져서 회령진의 군사들에게까지 알려졌다.

마음먹고 이곳에 온 그들은 산천어를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도무지 잡을수가 없었다.

3년동안 교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찾아왔으나 매번 허탕을 치군 하였다.

어느덧 삼년석달이 되는 날이였다.

끝내 산천어를 잡지 못한 그들은 폭포앞에서 용맹하고 날랜 군사가 되여 왜적의 침입을 막으려는 자기들의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는 산천어들이 무심도 하다고 저도 모르게 하소연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끝나자 이상하게도 폭포의 용소가 갑자기

잔잔해지면서 산천어들이 기슭으로 펄떡펄떡 나와 눈깜빡할 사이에 군사들을 등에 태우고 용소의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룡궁에 들어가 그들에게 산천어국을 대접하고 이날에 오지 못한 군사들에게 대접할 몫까지 주어 내보내는것이였다.

잠시후 군사들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솟아나고 몸은 마냥 하늘을 날아갈듯 가벼워졌다.

그들은 한동안 어리벙벙해있다가 아마도 산천어들이 자기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을 알아준것 같다고 하면서 몹시 감복해하였다.

그러면서 말 못하는 산천어까지도 왜적의 침입을 막고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를 대대손손 물려가며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마지 않는데 우리가 군사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다 쓰러진다 해도 무슨 원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훈련에 더 열중하여 침입해오는 왜적을 물리쳤는데 그후부터는 적들이 이 지방에 얼씬하지도 못하였다. …

어명산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신통했던지 회의참가자들모두가 정말 그럴듯하다고 연신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런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이 하나의 전설에서도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정신을 읽어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일제를 쳐부실 최후결전준비를 더 잘해나가자고 힘주어 호소하시였다.

어명산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건만 회의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미구에 펼쳐질 동터오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훈련을 실전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군사훈련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군사훈련은 방대한 침략무력을 가진 일본제국주의와의 최후결전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록 정세가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하더라도 조선인민혁명군이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성숙된 정세를 제때에 리용할수 없고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적들을 결정적으로 소탕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지 못할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인민혁명군이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되는것은 항일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매우 중대한 문제의 하나였다.

최후결전을 위한 군사적준비에서 중요한것은 현대전을 능숙하게 벌릴수 있게 준비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전술훈련제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유격전경험에 기초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현대전훈련에서는 전술훈련에 기본을 두고 공격과 방어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락하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스키훈련, 무선통신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유격전훈련은 습격전과 매복전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전술훈련은 소대나 중대단위로 진행하였다.

1943년 여름철야영때의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여름철야영생활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훈련에 진입하였다.

야영생활을 시작하여 3일째 되는 날 전술훈련이 진행되였다.

전술훈련은 이미 꾸려진 전술훈련장에서 하였는데 거기에는 참호와 교통호가 설비되여있었다.

대원들이 한창 훈련에 열중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훈련장에 나오시였다.

전술훈련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소대장에게

적의 화점에서 기관총사격이 맹렬하게 진행되고있으니 다시 구령을 주어 분대들이 공격출발위치로부터 적의 1참호까지 돌격하는 동작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대원들은 공격출발위치를 다시 차지하였다.

이어 지휘관의 돌격구령소리가 울리였다.

일제히 돌격에로 넘어간 대원들은 적의 참호를 향해 각개약진으로 적의 차단물까지 접근하여 이미 개설하여놓은 통로를 따라 1렬종대로 극복한 다음 산개대형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시 돌격으로 이전하여 적의 참호로부터 20～30m 접근한 다음 분대장의 구령에 따라 수류탄을 던지고 만세의 함성을 울리면서 참호에 돌입하였다.

적참호를 점령한 대원들은 기세충천하여 공격출발위치로 돌아왔다.

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있었으나 하나같이 신심과 열정에 넘친 모습들이였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동무들이 오늘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외전술훈련은 좋은 날씨보다도 불리한 날씨의 악조건에서 진행하여야 실전에서 은을 낼수 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불리한 자연

조건이라고 하여 주저하거나 타발하지 말고 훈련하여야 의지를 단련하고 전투조법과 동작을 높은 수준에서 습득할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오늘 동무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지만 엄중한 결함들도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무들은 적의 1참호에 배치된 화점의 기관총화력이 비발치듯 쏟아지는 속을 각개 약진의 방법으로 통과하여 차단물을 극복한 다음 수류탄을 던지면서 적의 1참호에 돌입하였는데 각개 약진법이 고정격식화된 틀에서, 그것도 최대의 공격속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이런 식으로 돌격한다면 적의 화력구역을 통과할 때 살아남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겠는가. 전투의 승리는 고사하고 적의 1참호도 점령하지 못할것이다. 오늘 훈련에서 우리는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동무들의 훈련에서 이런 결함이 나타나게 된것은 훈련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지 못한데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훈련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훈련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전에 벌써 모든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동무들이 훈련장에 설비해놓은 적의 화점에서는 총탄이 직접 쏟아져나오지 않기때문에 그

앞으로 공격해도 죽을 걱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한다면 그러한 훈련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훈련에서 동무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

너그럽게 하시는 말씀이였지만 대원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훈련정황을 실지 싸움마당이라고 다시 생각해보니 등골이 다 서늘해졌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전술훈련을 지도하시면서 훈련의 전 과정이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훈련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해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련기지주변의 어느 한 야산에 두만강연안의 적국경요새를 가상한 훈련장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훈련장을 꾸리도록 하시는 한편 종합전술훈련 계획작성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획작성에 참가한 성원들에게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통하여 지금까지 련마해온 공격전술훈련진행정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고, 그러므로 전술훈련의 전 과정이 실전과 같이 되여야 한다고, 실지 싸움마당에서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들을

타산하여 전술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전술훈련의 성과여부는 계획을 얼마나 면밀하게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의 구체적인 지도밑에 전술훈련계획이 작성되였으며 얼마후 전 부대적인 전술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은 비상소집과 행군으로부터 시작하여 며칠동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부대참모부에서는 조성된 정황에 맞게 전투를 조직하고 각 중대들에 전투임무를 주었다.

중대들에서는 맡은 임무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전투조직을 하였다. 소대, 분대에 이르기까지 전투조직이 끝난 다음 드디여 공격개시명령이 하달되였다.

강 건너편에 있는 적진지에 대한 준비타격이 진행되고 부대의 강행도하와 진지점령, 적의 차단물통로극복과 적화점파괴, 적참호에 대한 돌입, 적방어종심으로의 성과확대와 적집단포위소멸 등이 눈깜빡할 사이에 벌어졌다.

모두의 사기는 기세충천하였다.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은 조국으로 진격하는 심정으로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야말로 조국해방의 그날을 향한 진짜싸움

이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현대군사적기술을 짧은 기간에 습득해나갔다.

항공륙전대작전을 위한 락하훈련은 훈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락하훈련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시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따라 주력부대가 급속히 국내의 깊은 종심에 진출할수 있는 능력을 미리부터 소유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련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조직지도하시면서 락하훈련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락하훈련의 특성을 헤아리시고 비록 이 훈련이 어렵다 하더라도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누구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면서 몸소 앞장에서 대원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며칠후에 있게 될 비행기에 의한 첫 락하훈련을 앞두고 마지막 예비훈련에 열중하고있던 1944년 5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훈련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대원들은 놀라움

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뜻밖에도 락하산복을 입고 비행기앞으로 다가 서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락하시범동작을 보여주기 위하여 훈련장에 나오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대원들은 그이의 앞을 막아나서며 시범훈련만은 삼가해주시기를 거듭 간청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신변을 념려해주는데 대하여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진행하는 락하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무들에게 락하훈련을 하라고 요구하며 그를 지도할수 있겠습니까. 안심하시오.

대담하게 마음먹고 침착하게 뛰여내리면 조금도 위험할것이 없습니다. …

그러시고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대원들에게 미소를 보내시면서 서슴없이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타신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져나가다가 하늘로 떠올랐다.

비행기는 일정한 고도에 이르자 훈련장우를 유유히 선회하더니 푸른 하늘에 까만 점을 떨어뜨리였다.

그 점은 쏜살같이 내려오다가 목화꽃송이처럼 피여났다.

락하산은 서서히 내려오면서 점점 그 륜곽을 드러내기 시작

하였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락하산이 수림공지의 풀밭에 내려앉았다.

긴장하게 주시하던 대원들은 《사령관동지!》라고 부르며 일제히 달려갔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사이에 락하산을 접어안으시고 대원들을 향하여 마주 걸어오시였다.

그들의 축하와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락하훈련도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결심만 단단히 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전투에서 일제놈들을 족치던 그 본새로 말입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에서 커다란 충격과 고무를 받은 대원들은 용기백배하여 훈련에 더욱 정력적으로 참가하였다.

드디여 비행기에 의한 락하훈련을 진행하는 날 모든 대원들이 단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무사히 락하지점에 착지하였다.

대원들은 이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후공격작전명령만 내리시면 땅과 바다, 하늘 할것없이 그 어디로든지 진출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다는 흥분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락하훈련에는 녀대원들도 참가하였다.

락하훈련은 육체적부담과 용감성을 요구하는 훈련이여서 녀대원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훈련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녀대원들은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대원들에게 뒤질세라 훈련에 이악하게 참가하였다.

이 나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녀대원들의 앞장에 서시여 락하훈련을 진행하시였으며 대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락하훈련을 강하훈련, 항공륙전대훈련과 배합하여 진행하였다.

항공륙전대훈련에서는 저항하는 적을 락하하면서 소멸하는 동작, 락하하여 신속히 전개하는 동작, 적의 배후를 타격하는 동작 등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락하훈련과 함께 사격훈련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사격훈련에 열중하고있던 어느 날이였다.

대원들의 사격훈련모습을 보아주시며 나타난 결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던 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의 곁으로 다가가시였다.

그는 사격자세를 취하고 나타난 목표를 조준하고있었는데 자세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데가 있었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이자 방금 방아쇠를 당길 때 총탄이 날아갔다면 그것이 목표판에 명중되였겠소?》

대원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 대원의 총을 받아드신 수령님께서는 몸소 사격자세를 취하시고 목표판을 조준하신 다음 침착하게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다시한번 사격동작을 해보라고 이르시였다.

그는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격자세를 취한 다음 침착하게 호흡조절을 하면서 방아쇠를 슬그머니 당겼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이번에 쏜 탄알은 명중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대원들의 사격훈련을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모든 동무들이 사격훈련에 정열적으로 참가하여 높은 사격술을 련마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은 훈련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다고, 그런데 일부 동무들은 실탄사격이나 많이 해야 사격술이 높아지는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전술훈련을 통하여 실지 싸움에서 써먹을수 있는 전투조법을 완성하는것과 같이 사격도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적을 단방에 쏘아잡을수 있는 묘리를 체득하게 되는것이라고, 그러므로 동무들은 사격훈련에서 총탄이 날아가지 않는 방아쇠를 당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명중사격의 비결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명중사격의 비결에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은 대원들에게 많은것을 깨우쳐주었다.

모두가 그이의 말씀을 새겨가며 사격훈련을 맹렬히 진행하였다.

드디여 1944년 3월 8일 원동훈련기지에서 사격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에는 국제련합군안의 각 구분대들에서 선발된 사격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서도 여러명의 선수들이 선발되였는데 김정숙녀사께서도 이 경기에 출전하시였다.

이날의 사격경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개인별순위에서는 녀사께서 우승을 쟁취하시였다.

끝없는 긍지와 행복감에 넘쳐있는 선수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의 사격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대원들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해주시면서 동무들은 경기에서 항일혈전의 간고한 투쟁과 사격훈련에서 련마하고 다져온 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적위력을 훌륭히 과시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사격경기에서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보여주신 김정숙녀사께 표창으로 소형권총을 수여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선의 지리적특성에 맞게 수영훈련과 스키훈련 등 다양한 훈련도 많이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도래할 때 랑림산줄기나 함경산줄기를 타고앉아 유격전을 벌리자고 해도,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조국해방작전을 하자고 해도 이 훈련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맹렬히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매 대원들은 유격전도 할수 있고 현대전도 능숙하게 수행할수 있는 높은 군사기술을 소유하게 되였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전투적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러한 준비밑에 1945년 여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따라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하였다.

종합전술훈련은 그때까지 최후결전준비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대원들의 전투력을 종합적으로 검열하는 최종훈련이였다.

훈련에 앞서 부대와 구분대들에서 훈련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전투벽보와 속보들이 발간되였다.

종합전술훈련은 조국해방을 위한 전략적구상에 따라 유격전과 정규전, 소부대활동과 대부대활동을 밀접히 결합한 적극적인 공격행동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에 참가한 모든 대원들은 적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였다.

그야말로 조국을 해방하는 결전의 마당을 방불케 하는 정경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훈련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후결전태세를 충분히 갖추고있음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군사훈련을 정력적으로 조직진행한 결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전투력을 소유하게 되였다.

전체 대원들은 수령님께서 총공격명령을 내리실 시각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일화]

공병훈련을 실전과 같이

원동림시기지의 겨울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동기군정훈련과제를 수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야외에서 공병훈련을 진행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따라 날씨는 몹시 추워 뼈속까지 얼어들 정도였는데 대원들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각종 대상물에 대한 폭파방법에 정통하기 위한 훈련을 맹렬히 진행하고있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훈련장으로 나오시였다.

소대장으로부터 훈련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훈련을 계속 진행하라고 하시고 그들의 훈련모습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이날 훈련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훈련이 끝난 다음 수령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대원들을 둘러보시다가 소대장에게 물으시였다.

《오늘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동무들은 없소?》

《소대전원이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오늘과 같은 추운 날씨에도 야외훈련장에서 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였다.

군사훈련에서는 일반전술훈련과 사격훈련도 중요하지만 공병훈련도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공격과 방어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정규전에서는 물론 습격전투와 매복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유격전에서도 공병이 노는 역할이 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전투에서 누구나 다 공병보장임무를 받으면 그것을

◇자료◇

북야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주체32(1943)년 1월 상순 원동림시기지의 북야영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유리하게 전변되여가는 혁명정세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준비를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지난 10여년간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했으며 놈들의 멸망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정세를 상세히 분석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다음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정세하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이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작전방향을 세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최후공격작전방향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공격작전방향은 조선인민혁명군

능숙히 수행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그러시면서 적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비롯한 국경의 중요 군사요충지들에 콩크리트나 토목으로 방어축성물들을 설비하여 요새화하였기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자고 해도 그렇고 비행기, 포를 비롯한 각종 무기전투기술기재를 파괴소멸하거나 군용렬차를 비롯한 적들의 운수수단들을 파괴하자고 해도 그에 대한

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는것이였다.

회의에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방략을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당면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우선 조국해방의 중추적력량이며 선봉대, 돌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며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이 모든 지역에서 지리적 및 지형적특성에 맞게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설치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인민무장대들을 꾸리고 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무장과 후방물자들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것과 함께 혁명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사령부의 방침이 어김없이 관철되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혁명조직들이 사령부의 방침에 부합되게 자기의 조직을 군사적성격을 띤 조직으로 전환시키며 일단 유사시에 전민항쟁을 일으킬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과 그 보장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보충완성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폭파훈련을 잘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그 어느곳에나 공병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것만큼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공병의 임무를 누구나 다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대원들은 지난 시기 공병훈련을 소홀히 대하여온 자신들의 그릇된 견해를 심각히 반성하면서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진행하여 능숙한 폭파수로 준비해나갈 마음속의 결의들을 다지였다.

북만의 전우들과 함께

원동훈련기지에서의 나날은 서로 멀리 떨어진 전구에서 싸우던 관계로 오래도록 만나보지 못하던 그리운 전우들과의 상봉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항일투사 김책을 비롯하여 북만에서 온 여러 전우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바롭스크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전 쏘련의 원동지역에 도착하신 1940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북만성위 겸 제3로군 정치위원으로 활동하던 김책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수령님을 향해 달려오며 《장군님! 제 김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성위동지!》

《장군님!》

《성위동지, 우리는 첫 대면인데 구면같습니다.》

《장군님, 저도 장군님이 초면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속으로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어 길림에 찾아갔댔습니다.》

《그게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다음해 여름에 있은 일이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때 사흘이 좀 지나 우리 동무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홍계라고 하는 혁명가가 나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후에 그 김홍계라는 이름이 성위동지의 본명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물이 글썽하여 《그때 길림에서 장군님을 만나뵈웠더라면 그동안 마음고생도 그렇게는 안하는건데…》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방안에 들어와 자리를 정하고 앉은 다음에야 수령님의 손을 놓으며 혼자소리로 《김사령을 만나는 길이 왜

이다지도 멀었는지…》 하며 말끝을 흐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시였다.

《길은 여러 갈래이지만 대문은 하나라고 서로 그리며 마음속정을 나누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길림의 그날부터 꼭 10년만에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습니다.》

그날 김책은 자기는 젊어서부터 혁명을 하느라고 뛰여다녔지만 태반은 감옥이나 로상에서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인생사를 돌이켜보았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다음해 겨울 그가 만주에 있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산하 어느 한 세포에서 입당할 때였다.

《동무, 위대한 맑스동지의 탄생일을 알고있소?》

총국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던진 첫 질문이였다.

그는 어찌하여 입당심의 첫 질문으로 맑스의 생일에 대하여 묻는지 얼떠름한 생각이 들었으나 대답하였다.

《예. 1818년 5월 5일입니다.》

《음, 그날이 무슨 요일이요?》

그는 어느 책에서 피뜩 본 생각이 들었으나 종시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총국책임자라는 사람은 두눈을 무섭게 뜨고 우리 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신 맑스가 탄생한 요일을 모르다니, 바로 오늘 화요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입당심의도 화요일에만 한단 말이요라고 뇌까렸다.

맑스를 흉내내여 머리며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옷도 제낀양복에 조끼를 받쳐입고 넥타이를 맨 그는 이날 우리 화요만이 조선공산당의 정통파라고 하면서 앞으로 엠엘이며 서상파를 쳐갈기는데서 한몫해야 한다고 줴쳤다.

그러던 어느날 밤중에 김책에게 한가지 과업이 떨어졌다.

총국책임자라는 사람이 신문지만 한 흰종이 한장을 주면서 일본령사관 맞은켠 담벽에 붙이고 오라는것이였다.

신입당원이였던 그는 령사관정문을 코앞에 둔 그곳에 은밀히 접근하여 일을 성사하고 돌아왔다.

이제 그 《삐라》를 보고 기절초풍할 일제놈들의 몰골을 그려보며 그는 그밤 잠들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 종이장은 왜놈들을 전률케 하는 삐라가 아니라 엠엘파의 지도부성원들을 공개하는 고발장이였던것이다.

일본령사관에서는 그 고발장을 입수하자마자 경찰들을 풀어 시내 곳곳에서 엠엘파소탕전을 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 그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책임자라는 사람을 찾아가 같은 조선사람끼리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고 들이댔다.

그러자 책임자라는 사람은 《조선공산당안에는 하나의 파즉 우리 화요만이 있어야 해. 그래야 국제코민테른에서 우리 화요를 조선공산당지도부로 인정할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당조직책임자의 권한을 휘둘러 방에서 몰아내며 절대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뒤그루를 박았다.

그런데 며칠후 화요파의 지도부성원들이 모인 자리에 갑자기 령사관경찰들이 달려들어 29명전원에게 쇠고랑을 채웠다.

시내정미소 뒤골방에서 화요파거물급들의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내탐한 엠엘파가 복수전을 벌려 일본령사관에 밀고한 것이였다.

김책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 이런게 당이라면 내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았을걸… 이런 놈들이 어떻게 대중을 령도하여 일제와 싸울수 있단 말인가. 더러운 파쟁군들, 네놈들과 다시는 상대를 안할테다.)

종파놈들의 비굴한 권모술수와 야심으로 가득찬 파쟁놀음을 뼈에 사무치게 목격한 그는 그때부터 아예 화요의 울타리를 뛰쳐나오고말았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서울을 떠날 때 누군가가 만주의

공산당재건그루빠를 한번 찾아가보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향을 조심스럽게 내비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두부모 자르듯 거절해버리고말았던것이다.

위인의 손길을 찾아 헤매이던 그는 한 동료로부터 길림소식을 듣게 되였다.

길림방면에 기성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새 세력이 등장했다는것, 그 지도자가 김성주라는 청년인데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인망이 있고 친화력이 강하다는것, 그 청년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량을 대표하시는분이라는것, 길림반동군벌에 체포되여 옥중투쟁을 하시다가 석방되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것이였다.

그는 그 소식을 듣기 바쁘게 길림으로 떠났다.

그러나 파쟁분자들이 일으킨 무모한 5.30폭동의 여파로 군벌들이 날뛰고있는것으로 하여 길림에서 수령님을 만나뵈올수 없었다.

그는 길림을 떠나 북만으로 가게 된 사연과 국민당군대에 붙잡혀 길림, 심양, 할빈형무소들에 1년나마 끌려다니던 일, 9.18사변후 감옥문을 나서기 바쁘게 또다시 군벌경찰에 체포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곡절많은 그 로정을 괴롭게 더듬었다. …

이처럼 파란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민족을 위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은 김책이여서 수령님께서는 그와 만난 기쁨이 더욱 크시였다.

《나도 오늘에야 다섯해전 여름의 그 아쉽던 마음이 풀리는것 같습니다.》

그러시고는 제2차 북만원정을 할 때 그를 꼭 만날것을 계획하였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현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억하시였다.

《장군님, 그때 장군님의 군복이 늘 땀에 젖어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책은 열정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수령님을 우러렀다.

소문에 듣던것보다 더 젊고 미남이시고 걸음걸이며 몸짓, 손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장군답게 씨원스럽고 활동적인데다가 소박하고 친근한 그 음성, 그 미소는 얼마나 자애로운가!

《장군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가짐을 바로잡고 이렇게 아뢰였다.

《저는 오래전부터 장군님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조선의 진짜 장군으로 받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장군님휘하에서 싸우다가 장군님의 곁에서 죽겠습니다. 장군님곁에만 있게 된다면 난 군직도 당직도 다 필요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위가 아니라 김책동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의 진정에 넘친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방안이 떠나갈듯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옛날부터 10년지기는 형제간과 같다고 하였는데 성위동지는 나보다 나이도 9년이나 이상이고 또 혁명년한도 오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의 입에서 불같은 말이 쏟아져나왔다.

《예로부터 장군이 군졸을 거느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령을 받드는 군졸이 되고 장군님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소원이 정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동지가 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힘껏 싸웁시다. 김책동무!》

《장군님!》

《김책동무, 우리 서로의 심장과 심장을 얹고 동지적우정과 사랑을 확약한 오늘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력사적인 첫 상봉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다.

그때부터 김책은 한생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여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이를 따르고 받들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을 신뢰하였는가 하는것은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하바롭스크회의가 끝난 후 그가 북만에서 싸우는 소부대들을 지도하기 위해 만주에서 활동할 때의 일이다.

1942년과 1943년의 대부분을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그는 소부대에 대한 지도가 끝난 다음에도 기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국제련합군지휘부에서 여러번 무전을 쳐서 기지로 철수할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매번 일을 다하고 돌아간다는 답전을 보내왔다.

그가 기지로 돌아가지 않은데는 나름대로의 가슴아픈 사연이 있었다.

북만의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들이 전사한 다음 그의 가슴은 그들의 몫까지 합쳐 일제를 족치고싶은 생각으로 차넘쳤던것이다.

그러던중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무전을 보내주시였다.

김책은 즉시 무전수를 불러 장군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업을 결속하고 곧 출발하겠다는 답전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는 대원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였으면 내가 곧 돌아가는것이 옳은 처사이다, 그러니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답전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책동무가 우리의 호출무전을 받고 기지를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김책동무가 돌아온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김책동무의 40돐생일이 지난 8월 14일이였는데 그가 돌아오면 생일40돐을 우리가 잘 차려줍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준비하는 연예공연도 잘 준비하여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김책동무를 기쁘게 해줍시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였다.

원동의 훈련기지에 들어와 장군님의 이 말씀을 받아안은 김책은 감격에 젖어 눈굽을 적시였다.

그는 늘 대원들에게 우리 장군님은 전체 조선인민이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는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모든 승리의 상징이시다, **김일성**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하나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으로 변함없이 받들어모시려는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길림

시절에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을 령도의 중심으로 내세웠다면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는 김책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이 자신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였다고, 자신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에서는 령도중심이 형성되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바롭스크에서 최용건항일투사와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그는 뜻밖에 숙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꼭 잡으며 장군님께서 인차 하바롭스크에 도착하실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와계실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맞게 되여 미안하다고 거듭 사례의 말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려고 련락원을 네번씩이나 파견하였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장군님을 더 일찌기 만나뵙지 못한것이 일생일대의 회한이라고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나도 최용건과 같은 군사전문가와 일찍부터 손을 잡지 못한것이 여간 아쉽지 않다, 김책이나 최용건과 같은 사람들이 동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선혁명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것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당신들과 같은 골간들이 북만에 가서 항일의 불을 지폈기때문에 그 고장에서 사는 조선사람들도 혁명화하고 항일운동도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당신들이 북만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중국의 해방을 위한 일인 동시에 조선의 해방을 위한 일로도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최용건과 함께 동만과 북만에서 무장대오를 꾸리느라고 바삐 뛰여다니던 1930년대초의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최용건은 북만의 농민들속에 훈련소를 내오고 무장대오를 조직했지만 력량을 늘이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했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전민항쟁을 주장하신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전민을 어떤 방법으로 항쟁에 동원시킬 생각이신지 그 구상에 대하여 말씀해주실것을 청드렸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선민족의 대다수가 극한상태에서 민족의 재생을 갈망하고있는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그들을 무장시키면 수십만대군이 생기게 된다, 어떤 식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가, 일하면서 무장활동을 하는 반군사조직들을 도처에 내오자는것이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북부조선일대에서는 벌써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돌격대들이 조직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앞으로 그런 조직들을 전국 각지에 다 내오자는것이다, 누가 조직하는가,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골간들이 각 지방

에 파견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결코 료원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몇해안에 최후결전의 시각은 반드시 온다, 그런 시각이 오면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온 나라의 항쟁조직들을 다 불러 일으키는 전민항쟁의 방법으로 최후결전을 해야 한다, 이것이 조국해방작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이며 자력독립로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그는 자기는 하바롭스크에 오면서도 쏘련과의 군사적협조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조선국내에서의 전민무장이나 조국해방작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도 백두산에 가서 싸우고싶었다고, 평대원을 해도 좋고 아무것을 해도 좋으니 백두산에 가서 장군님의 부하로 싸우다가 백두산에 묻히고싶은것이 소원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진정에 넘친 맹세에는 여러해를 두고 품어온 숙원이 담겨져있었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령도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그 두리에 집결하려는 확고한 지향과 의지의 반영이였다.

강건, 박길송을 비롯한 북만의 수많은 투사들도 오래전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만주일대에서는 물론 보천보와 무산지구를 비롯한 국내깊이에까지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하시고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전략적지도를 진행하여 전국을 항일무장투쟁의 판도로 전변시키신 동시에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여 거족적인 혁명력량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왔다.

그들은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4 장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위하여

백학산비상회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파쑈도이췰란드는 1945년 5월 9일 드디여 패망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의 패망은 그 주요동맹국이였던 일본제국주의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는 모든 전선에서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였으며 자국내에서 날로 첨예화되는 계급적모순과 지배층안에서의 심각한 알륵과 갈등으로 하여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일제는 파쑈도이췰란드의 항복에 즈음해서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아무리 전쟁형세가 달라졌어도 전쟁을 끝까지 할것이라고 하면서 최후발악하였다.

한편 1945년 2월 얄따에서 진행된 쏘, 미, 영 3개국 수뇌자들의 비밀회담에서는 쏘련이 파쑈도이췰란드패망이후 2～3개월후에 대일전쟁에 참가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시각이 다가옴에 따라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5월 국제련합군에 망라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의 모임을 여시고 조국해방과 관련한 작전문제를 토의하시였다.

론의의 초점은 자력독립과 전민항쟁에 대한 문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임에서 조선혁명가들은 누구나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해야 한다는것, 그러자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국내의 항쟁조직들을 잘 준비시켜 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작전을 벌릴 때 그에 합세하여 전인민적인 항전을 벌려야 한다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쏘련, 중국의 무장력과의 군사적련계를 강화하고 쏘련의 전반적대일작전과의 깊은 련관속에서 협동작전준비를 잘해나갈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휘성원들의 모임에 이어 5월 10일 원동훈련기지의 북야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의 총적목적과 기본형식, 력량편성, 쏘련군대와의 련합작전문제 등 최후공격작전방향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이후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부대, 소조들과 전민항쟁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로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기 위하여 국내 진출의 길에 오르시였다.

주체34(1945)년 5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주요지휘성원들을 친솔하시고 조국땅으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대오는 새벽에 두만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섰다.

그곳에서 련락을 받은 한 소부대가 수령님을 마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성원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다음 이 일대의 적정과 소부대가 진행한 사업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그들의 사업성과를 치하해주신 수령님께서는 얼마후 컴컴한 수림속을 헤치시며 백학산림시비밀근거지로 향하시였다.

백학산마루에 아침해살이 밝게 비쳐들무렵 행군대오는 이곳 근거지의 경대바위봉에 이르렀다.

경대바위봉에서 한동안 주변일대를 부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시비밀근거지가 유사시에 한몫할수 있는 좋은 곳에 자리잡았다고, 지형도 묘하고 경치 또한 절승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조국산천은 볼수록 아름답소. 우리 강토는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이르는 곳마다에 명승지가 있고 여기 동북단에서부터

남해기슭까지 어데 가나 살기 좋은 고장이요. 말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이지.》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할 인민의 락원을 세우자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오를 이끄시고 회의장소로 가시였다.

키높이 자란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들어선 수림속의 자그마한 공지에 회의장이 자리잡고있었다.

회의장소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던 소부대, 정치공작소조 및 지하조직책임자들이 모여있었다.

5월 13일 이곳에서 비상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팎의 정세를 분석하시면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5월 9일 파쑈도이췰란드가 패망하고 파쑈국들의 방공동맹이 종국적으로 붕괴됨으로써 외토리신세가 된 일제가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강력한 반일항전과 전 전선에서의 거듭되는 패전으로 궁지에 빠지고 놈들의 통치기반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쏘련이 지난 4월 5일에 쏘일중립조약을 페기한 사실과 멸망에 직면한 일제가 최후발악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언급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조성된 긴박한 정황에서 전체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앞에 나서는 지상의 혁명임무는 일제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임의의 시각에 벌릴수 있는 만단의 결전태세를 시급히 완성하는것이다, 객관적정세가 아무리 유리하여도 모든것은 혁명의 주인인 우리 인민자체의 투쟁에 달려있다, 우리는 혁명과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독립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의 장구한 나날에 육성하고 보존축적하여온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총동원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려야 한다, **《모든 힘을 항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전군, 전민이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항일대전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최후결전의 시각은 바야흐로 목전에 도래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병사들, 혁명조직성원들과 애국적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면서 최후결전을 위한 결전태세를 시급히 완성할것을 제기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장내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끓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있는 회의참가자들을 둘러보시고나서 일제와의 결전태세를 완성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결전태세를 완성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전군, 전민이 명령만 내리면 자력독립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최후결전의 마당에 떨쳐나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다음으로 모든 부대들과 소부대, 소조들이 임의의 시각에 총공격을 벌릴수 있는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며 혁명조직과 인민무장대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호응합세하는 전인민적봉기와 배후련합작전을 벌릴수 있는 결전태세를 완성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승리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한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편에 있다고, 전군, 전민이 모든 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걸어온 혈전 수십만리길을 조국의 해방으로 이어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을 멸적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끓게 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태세를 완성하는데 힘과 지혜를 깡그리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리고 백학산에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력사의 자욱을 우뚝 솟은 천연바위와 푸르청청한 소나무에 아로새겨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가도록 하자고 열렬히 토로하였다.

그들은 회의장결에 서있는 소나무와 주변의 나무들에 절절한 념원을 담아 글발을 아로새겼다.

《**김일성**천출명장 민족의 태양》

《2천만동포여 자랑하라 조선이 낳은 불세출 위인 **김일성**대장》

이러한 구호문헌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백학산비상회의는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여 전민, 전군을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민족자력으로 항일혈전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의의깊은 회의였다.

회의가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상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지휘성원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대

들에 파견하시였다.

그때 김정숙녀사께서는 동해안의 북부조선일대의 혁명조직들을 비상회의방침관철에로 조직동원하시기 위해 백학산립시비밀근거지에 남아 활동하게 되시였다.

백학산립시비밀근거지에서 비상회의를 성과적으로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로 되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눈앞에 다달은 정세하에서 이미부터 무르익혀오시던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더욱 완성하며 그 계획을 하달하시기 위하여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를 향하여 그곳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학산립시비밀근거지를 떠나 북부조선동해안일대와 무산, 연사지구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들의 실태를 료해하시면서 창평비밀근거지를 거쳐 삼지연못가에 이르신것은 5월말이였다.

허리에 두손을 올리시고 저으기 사색깊으신 안광으로 삼지연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시던 수령님께서는 황홀한 경치에 눈을 팔며 못을 바라보고있던 대원들에게 잊을수 없는 못입니다, 백두산을 조종의 산이라고 부른다면 삼지연은 어머니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오, 저 멀리 백설을 머리에 이고 창공에 높이 솟은 백두산은 그대로 조선민족의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상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태고의 수림

속에 백두산을 비껴안은 삼지연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 마치 부드럽고 강직한 어머니의 품속과 같습니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매혹된 대원들은 날이 어두워지는줄도 모르고 조종의 산 백두산과 삼지연의 아름답고 숭엄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 여러곳에 나가 활동하던 소부대책임자들로부터 적정변동과 전민항쟁준비정형을 알아보시면서 조국해방의 작전계획을 완성하시느라 거의 뜬눈으로 밤을 밝히시였다.

다음날 수령님께서는 대오를 친솔하시고 간백산밀영에 이르시였다.

간백산밀영에는 각지에 파견되였던 지휘성원들과 백두산일대에 전개되였던 여러 부대들이 모두 집결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요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그사이 준비하신 조국해방작전계획을 협의에 붙이시였다.

작전계획은 모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6월초 어느날 간백산밀영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병사들이 모인 가운데 군정간부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하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 간백산밀영에서 제시된 과업수행에로 온 민족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 6월 중순 대오를 이끄시고 또다시 간고한 행군길에 오르시였다.

그때 지휘성원들은 불철주야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문 하루만이라도 휴식하고 떠나실것을 청드렸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의 마음은 알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휴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휴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 우리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전체 소부대, 소조들에 한시바삐 알려주어 온 나라, 전민족을 조국광복성전에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대사를 앞에 놓고 휴식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시고는 앞장에서 대오를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산, 연사, 라진일대로 진출하시여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지하혁명조직,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봉기조직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소부대, 소조들과

인민무장대들의 전투준비상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나타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소부대, 소조들과 국내의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봉기조직들의 최후결전준비상태와 이 시기 조성된 유리한 국제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이미부터 심혈을 기울여 무르익혀오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주체34(1945)년 7월 30일 원동훈련기지의 북야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때 우리는 간백산일대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예정된 통로로 진출하여 각 도들을 해방하며 원동의 훈련기지에 집결되여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항공편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이미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은 항쟁조직을 대대적으로 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온 민족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최후공격작전계획에 일관된 전략적의도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공격작전과 그에 배합한 전민항쟁으로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작전계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소부대, 소조들과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봉기조직들앞에 적들을 완전격멸한 후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청산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당과 인민정권기관들을 내올데 대한 임무도 설정하시였다.

최후공격작전계획은 당시 우리 나라가 처한 군사정치정세하에서 튼튼히 준비된 력량으로 단시일내에 일제를 격멸하고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를 명시한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작전계획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전계획에 따라 부대의 전투서렬을 재편성하시고 김책, 안길, 강건, 최춘국, 류경수, 김일, 최현, 오진우 등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로 중요도시들과 지구별 책임자들을 임명하시였다.

이때 수령님께서는 몸소 평양과 평안남도지구에 진출하여 최후공격작전전반을 지휘할것을 계획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최후공격작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무기들과 각종 전투기술기재들, 군수물자들을 충분히 공급

하여주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최후공격작전개시에 앞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공격작전수행을 위한 출발진지들을 차지하도록 하시였다.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지상으로 국내에 진격하게 될 부대들은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춘 다음 조쏘국경과 쏘만국경연선을 따라 지적된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였다.

해상륙전대와 항공륙전대로 행동하게 될 부대들도 임의의 시각에 함선에 승선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하여 해상 및 공중수송으로 지적된 지역에 상륙 또는 투하할수 있게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간백산밀영에 집결하고있던 부대들은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반영된대로 진출준비를 갖추었으며 국내 도처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소조들도 인민무장대들과 함께 이미 활동하고있던 지대들에 배치된 적의 중요대상물들을 타격할 태세를 면밀히 갖추었다.

만주전선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도 쏘만국경연선을 따라 지적된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고 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준비는 보다 짧은 기간에 완성되게 되였다.

［일화］

두만강에 대한 추억

1945년 6월 하순 백학산림시비밀근거지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령부지휘성원들과 함께 근거지일대를 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휘성원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북부국경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부대, 소조들과 지하혁명조직들,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전민항쟁조직들의 활동정형과 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체험한바와 같이 조국해방을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이 확고히 마련되였을뿐만아니라 그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지휘성원들이 간백산밀영 군정간부회의를 비롯하여 이번 국내진출과정에 진행한 회의들에서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로 인민혁명군부대들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지하혁명조직들과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항쟁조직들을 총발동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초대바위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한 지휘관에게 이렇게 물으시였다.

《두만강하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길을 타고 가면 70리쯤 됩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사색깊은 안색으로 두만강하류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두만강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잊을수 없는 강이다.

내가 열네살때 압록강을 건는 후 처음으로 조국땅에 다시

나온것이 카륜회의가 있은 직후인 1930년 가을이였다. 그때 나는 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온성지구로 나왔는데 강을 건느자니 생각이 많았다.

나를 안내하던 오중화동무는 나라잃은 인민들이 조국땅을 떠나 하루에도 수백명씩 피눈물을 뿌리며 두만강을 건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만강가에는 또한 의병들과 독립군들의 원한의 피가 스며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강을 우리 인민의 원한과 눈물을 싣고 흐르는 《루만강》이라고 부른다고도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바로 겨레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가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밝혔고 그 길을 따라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벌리기 위하여 이 강을 건느는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인민들의 원한과 눈물을 싣고 흐르는 이 강을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싣고 흐르는 락원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억세게 싸울 투쟁의 맹세를 다시한번 다지자고 말하였다.

참으로 백두산과 두만강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듯이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과정은 두만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

추억깊은 그 말씀은 동행한 성원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20여년전 두만강은 나라잃은 우리 겨레가 피눈물을 뿌리며 살길을 찾아 낯설은 이국땅으로 건너가던 원한의 강, 눈물의 강이였다.

바로 그 두만강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그날로부터 항일무장투쟁사를 증명하는 력사의 강, 투쟁의 강으로 되였으니 이제 멀지 않아 오게 될 조국해방의 그날에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싣고 흐르는 락원의 강으로 되리라는 가슴벅찬 사실에 그들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지휘성원들에게 이번에 진행한 회의내용들을 각지 혁명조직들과 인민무장대들에 시급히 전달하여 그들이 즉시 동원태세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업을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에게 맡긴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믿음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어떻소, 자신있소?》라고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두만강가에 둥지를 틀고있는 적의 기본집단을 단매에 요정내고 승리의 만세를 높이 부르겠다는 그들의 힘찬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한번 본때있게 싸워보라고 하시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승리는 확정적이며 미래는 우리의것입니다.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둔 저 두만강의 흐름이 영구하듯이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대를 이어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입니다.

우리모두 승리의 그날을 위해 최후결전을 힘있게 벌립시다. …

이렇듯 국내에 진출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총공격과 그에 합세하는 인민무장대들의 배후련합작전, 대중적인 무장봉기사업을 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연깊은 두만강을 건너 원동의 훈련기지로 향하시였다.

력사에 전할 숭고한 의리의 세계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가슴저미는 슬픔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날에 날을 이어 계속되는 적들과의 피어린 격전,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 끊임없이 겹쳐드는 굶주림…

항일투사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풍상고초를 이겨내며 청춘의 끓는 피를 조국과 겨레의 운명,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다 바쳤다.

사랑하는 전사들을 잃었을 때의 그 쓰리고쓰린 슬픔은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살을 에이는 마음의 고통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진 고난과 시련,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헤매이는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과감히 이겨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내에 진출하시여 소부대들의 활동을 지도하시던 1942년 6월 상순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이끄신 소부대는 함경북도 경흥군 록야리의 어은동 곰산림시비밀근거지에 머무르고있었다.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행군길에 지친 대원들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때 수령님께서는 한몸의 피곤도 무릅쓰시고 한 지휘관과 함께 이곳 림시비밀근거지를 돌아보고계시였다.

그런데 이때 어둠속에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을 찾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령님께서 그쪽으로 다가가시자 한 대원이 그이를 알아뵙고 인사를 올리였다.

그의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그런데 이 밤중에 웬 일인가고 물으시였다.

그런데 웬 일인지 그 대원은 대답을 드리지 못한채 울먹울먹하다가 그만 고개를 숙이는것이였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것을 예감하신 수령님께서는 그를 사령부천막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여 무슨 일이 생겼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 손태춘동무가 희생되였습니다. 어제 낮에 적들과 조우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그만…》

그는 치밀어오르는 울분으로 말끝을 채 잇지 못하다가 마음을 진정하고 그이께 그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웅기뒤산의 림시비밀근거지에 와계시는

동안 그이의 신변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있던 이곳 소부대에서는 뜻밖에도 지하조직으로부터 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통보를 받게 되였다.

그때 손태춘항일투사는 아직도 웅기지구에서 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의 신변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소조성원들에게 시내에 내려가 적들의 동향을 알아보고 시급히 대책을 세우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2명의 소조성원들과 함께 시내로 들어갔다.

그들이 부두부근의 길가에 들어서니 경찰들이 이골목저골목 싸다니는가 하면 밀정인듯 한 사나이들의 눈초리가 행인들을 훑어보고있었다.

이날 아침 조선인민혁명군 공작원들이 침투했다는 련락을 받고 적들이 비상경계망을 폈던것이다.

그들은 정황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골목에 있는 국수집으로 들어갔다.

국수를 청해놓고 옆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강구고있을 때 건달군처럼 보이는 한 밀정이 사복차림을 한 경찰에게 어제밤 **김일성**부대가 웅기에 왔다가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소곤거리는것이였다.

그러자 그 경찰은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가고 욕질하며 밖으로 막 뛰여나가려 하였다.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였다.

손태춘은 한몸을 바쳐서라도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밑에 두놈에게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놈들을 그 자리에서 까눕혔다.

그런데 인차 적들이 국수집을 포위하며 달려들었다.

손태춘은 소조원들에게 뒤로 빠지라고 신호를 하고 놈들을 유인하여 싸움을 벌리였다.

그날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지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그는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의 최후에 대하여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태춘동무가 잘못되다니. 그렇게도 혁명에 충실하고 대담하던 사람이…》**라고 하시며 절통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잠시후 무거운 걸음으로 천막안을 거니시던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참으로 아까운 혁명동지를 잃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조국을 광복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던 사람이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날을 보지 못하고 가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손태춘동무가 해방된 조국에서 한순간이라도 행복을 누리다가 생을 마쳤다면 가슴이 이다지 아프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령전에 화환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장례도 크게 해주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나라를 찾고 그의 이름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여줍시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곧 대원들을 모이게 하신 다음 한동안 침묵속에 잠겨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손태춘동무는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자였으며 사령부의 명령지시에 언제나 충실한 혁명전사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어린 자욱이 어려있는 두만강연안일대를 확고히 장악하기 위해 분발하며 그가 생전에 그렇게도 사랑하던 조국땅우에 그가 념원한대로 인민의 락원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몫까지 합쳐 더욱 억세게 싸워나갑시다. …

그러시고는 한 지휘관에게 즉시 웅기로 되돌아가서 그의 시체를 안장해주도록 하며 그 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의 신변안전대책을 단단히 세우라고 이르시였다.

이윽하여 그를 바래우시려 멀리까지 가시였던 수령님께서 사령부천막으로 들어오시였다.

사랑하는 전사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참기 어려우신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혼자말씀처럼 손태춘동무를 되살려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몇번이고 거듭 되뇌이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용히 《빨찌산추도가》를 부르시는것이였다.

《빨찌산추도가》와 함께 사랑하는 전사와 영결하시는

그이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끝없이 고여올랐다.

이렇듯 수많은 무명유명의 투사들이 민족해방위업에 고귀한 청춘을 바쳤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떠나간 전사들을 못 잊어하시며 그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다.

그들속에는 해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떠나간 전사도 있다.

그가 바로 항일투사 김봉석이다.

그는 1934년부터 아동단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적후에 파견되여 학생들속에서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지하공작을 능숙하게 하였다.

박인진도정을 호위하여 서울에까지 가서 천도교인들의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상층인물들에게 투쟁의 물을 먹인 유격대원이 바로 김봉석투사였다.

1936년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그는 그해 가을부터 사령부 전령병으로 활동하였다.

전령병이 된 그는 수령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언제 어디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행하였으며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싸웠다.

그가 자기 맡은 임무에 그토록 충실할수 있은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김봉석이 사령부 전령병으로 된 어느날 김정숙녀사께서는

그를 만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전령병의 책임이 얼마나 중해요.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철벽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신속정확히 전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전령병들에게 달려있어요.

사령관동지를 보위하는것은 조선혁명을 보위하는것이예요.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이 오직 사령관동지께 달려있어요.

김일성장군님은 진정 민족의 태양이시고 우리모두의 어버이이시예요.

우리 목숨을 열백번 바쳐서라도 장군님을 보위하자요.》

녀사께서는 그후에도 그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는 녀사의 가르치심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용감히 싸웠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 각지는 물론 동만일대의 여러곳을 오가며 련락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이 개시되였을 때에도 그는 최전선부대들에 사령부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쉬임없이 달리였다.

어느날 그는 최후발악하는 적들의 저항을 짓부시며 아군부대의 진격로를 열어제낀 어느 한 부대에 청진상륙작전에 참가할데 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전달하려고 달려갔었다.

1945년 8월 15일 새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전도에 해방된 지역들을 표시하며

최후공격작전을 지휘하고계시였다.

이때 한 지휘관이 침통한 얼굴로 사령부로 들어섰다.

그는 《사령관동지!》 하고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다음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를 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인가고 다급히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 김봉석동무가 그만…》

《그래 김봉석동무가 어떻게 됐단 말이요?》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짐작하시였지만 믿어지지 않으시여 이렇게 되물으시였다.

《김봉석동무가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적탄에…》

지휘관은 말을 못 맺고 흐느꼈다.

《뭐라구? 김봉석동무가 희생되였단 말이요?》

사랑하는 전사를 잃은 슬픔으로 하여 그이의 음성은 몹시 갈리시였다.

비통함을 금치 못하시며 한동안 두만강쪽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일제놈들의 무조건항복이 오늘, 래일에 달렸는데 해방을 눈앞에 두고 희생되다니, 김봉석동무는 참으로 혁명에 충실한 동무였소, 그는 우리가 주는 임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수행하군 하였소, 그러던 그가 희생되다니, 우리는 참 아까운 동무를 잃었소라고 하시며 슬픔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잇지 못하시고 장막이 드리운 두만강쪽을 바라보시며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시였다.

그 전날 긴급전투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김봉석은 어느 한 집에 들리여 잠시 숨을 돌리게 되였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 휴식한 집의 주인이 적의 밀정이였다.

조국해방의 포성이 국경일대를 진감하고있던 그때에도 그놈은 김봉석을 적에게 밀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적들과 조우하게 되였다.

그는 적들과 싸우면서 두만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그의 뒤를 집요하게 따르다가 강을 건너가는 그에게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용감히 싸우던 그는 조국해방을 하루 앞두었던 1945년 8월 14일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주체75(1986)년 8월 14일 백두산밀영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지가지의 항일무장투쟁사적들을 감회깊이 회상하시고나서 40여년전에 떠나간 전사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투쟁업적을 하나하나 내세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참 아까운 동무가 조국해방을 앞두고 전사하였다고 못내 서운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자기들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항일선렬들의 불멸의 위훈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민족사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일화］

두번다시 태여난 대원

1943년 여름 훈춘현 북차구에 파견되였던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는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기지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런데 그일행중에는 부상당한 한 대원도 있었다.

대오가 샘물이 흐르는 어느 한 산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그 대원은 힘들게 몸을 일으키더니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것이였다.

《동무들은 지체말고 어서 떠나야 하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시오. 한시바삐 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올려야 하오. 이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오. 내 걱정을 말고 어서 떠나시오.》

이것은 그가 행군도중 계속 생각해오고있던 문제였다.

사실 그곳에서 부대까지 가자면 건강한 몸으로도 열흘은 실히 걸려야 하였다.

그런데 부상당한 자기때문에 대오의 행군속도가 떠지고 게다가 적《토벌대》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판이였다.

그의 말에 다른 대원들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너무도 확고한 그의 결심을 돌려세울수가 없었다.

대원들은 떠나기 전에 주변의 봇나무에서 껍질을 벗겨다가 땅에 펴고 그의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리고 곧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오.》

그들은 몇번이고 당부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떠났다.

대원들이 수림속으로 사라지자 그는 긴장되였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그만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린것은 3일후였다.

인적없는 수림속에 홀로 누워있던 그는 한동안 걷잡을수 없는 착잡한 생각에 빠져있었다.

한순간 고독과 불안, 절망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러던중 문득 그의 뇌리에는 혁명가는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서도 심장이 고동치는 한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를 악물고 상반신을 일으킨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배밀이도 하고 굴기도 하면서 먹을만 한 풀잎들을 뜯어먹었다.

날이 갈수록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처에서는 구데기가 나고 썩어들어가며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다.

그는 상처를 물에 씻고 약초라고 생각되는 나무잎을 붙여

각반으로 동이고 기여다니군 하였다.

한편 그와 헤여진 소부대성원들은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보름만에 부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소부대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곧 훈춘지방을 잘 아는 한 지휘관에게 그를 찾아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한 소부대가 그날로 부대를 출발하게 되였다.

출발준비를 갖춘 소부대가 정렬하였을 때 수령님께서는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성국동무를 꼭 찾아야 한다고,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안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소부대성원들은 낮에 밤을 이어 8일만에 현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나흘동안 그 일대를 샅샅이 훑으며 찾았으나 종시 그의 행적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중 어느날 밤 그들은 끝내 우등불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부상병을 발견하게 되였다.

모두가 애타게 그를 부르고부르기를 그 몇십번…

전우들의 애타는 부름에 그는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열흘후에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당도하게 되였다.

소부대가 돌아온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몸소 보초소에까지 나오시였다.

온 대오가 격정에 울고 웃었다.

사랑하는 전사를 보고 또 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도 뜨거운것이

어리였다.

《성국동무, 잘 싸웠소. 훌륭하오. 용히 살아왔소!》

수령님의 품에 안긴 대원은 감격과 기쁨에 목이 메여 아무 말도 드리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였다.

항일대전에서의 승리

드디여 기다리고기다리던 최후결전의 시각이 다가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후공격작전개시에 앞서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일부 부대들로 적의 국경요새구역에 대한 습격전투를 조직하시였다.

일제는 10여년에 걸쳐 국경일대의 요새구역들에 관동군과 조선주둔군관하 부대들을 비롯한 륙해공군의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켜놓고 이 요새구역들을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장담하고있었다.

적들이 구축한 요새들은 모두가 비밀지하요새였다.

일제는 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을 비밀담보의 명목으로 학살해버렸다.

이 요새들은 공격작전수행에서 최대의 장애물로 되고있었다.

당시 쏘련의 고위군사지휘관들은 요새선뒤에 있는 일제의 관동군을 크게 보면서 그를 소멸하기 위한 싸움을 어렵게 생

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보다도 적의 요새선돌파를 난문제로 보시고 개전에 앞서 국부적인 싸움을 벌릴데 대한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그러자 쏘련의 지휘관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자면 적의 군사요충지를 몇군데 답새겨 적들이 은밀히 증강해온 방어체계와 은폐해놓은 유생력량과 화력기재들을 단번에 로출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술적방안에 따라 습격임무를 맡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개전전야인 1945년 8월 8일 밤 웅기군 토리에 대한 습격전투를 단행하였다.

토리는 경흥요새구역 동남쪽과 선봉－라진요새구역 동북쪽에 있는 일제의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토리를 잃게 되면 적들은 이 일대의 종심 근 30리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경흥요새의 익측과 선봉－라진요새가 위험에 빠질수 있었다.

때문에 일제는 여기에 토리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하고 일본군 소속 수비대 등 수많은 병력을 집중배치하고 견고한 방어시설을 갖추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로 1개의 습격

조와 2개의 차단조를 편성하시고 소부대지휘관들에게 토리에로의 진출경로와 철수경로, 습격방법 등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부대는 은밀성과 민활성을 보장하면서 재빨리 대상물에 접근하였다.

부대지휘관의 신호에 따라 습격선을 차지하고있던 대원들이 복수의 총탄을 안기며 적들을 쓸어눕혔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저항하는 놈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삽시간에 토리를 해방하였다.

토리전투의 승리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덕이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가하고 적들의 두만강요새의 한 모퉁이를 허물어버림으로써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토리습격에 대한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접한 일제의 선봉—라진요새사령부에서는 서둘러 토리에 증원부대를 출동시켰으나 놈들은 공포에 질려 토리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웅상령에서 되돌아서고말았다.

토리습격전투와 때를 같이하여 훈춘현 남별리와 동흥진에 대한 습격전투가 벌어졌다.

습격부대성원들은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적의 요새구역의 요충지

들에 뚫고들어가 습격전을 과감히 벌렸다.

결과 일제의 국경요새구역들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적들의 방어상태와 약점이 드러나게 되였다.

이로 하여 적의 국경요새구역들을 일거에 돌파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자 쏘련의 대일선전포고와 때를 같이하여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 부대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45년 8월 9일 쏘련은 동맹국들과의 협약에 따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대와 교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총공격에로 넘어가 대일전쟁에 참가한 쏘련군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면서 조국으로 진격하였다.

(부모형제들이 기다리는 그리운 조국을 한시바삐 해방하자!)

총을 억세게 틀어쥔 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는 환희와 격정이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최후결전의 선두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조국해방성전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다.

경흥요새구역으로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8월 9일 새벽 저항하는 적들을 모조리 쓸어눕히면서 두만강을 단숨에 도하하여 요새구역의 중심부에 있는 경흥을 해방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원한에 사무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들의 화력기재를 모조리 짓뭉개며 무서운 기세로 진격하여 경흥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흥요새구역을 돌파한 부대들을 두대로 나뉘여 선봉—우암리방향과 회령방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는 훈춘방향으로 진격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다른 부대의 국경선돌파를 위한 격렬한 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훈춘요새구역을 점령하는것은 만만치 않았다.

훈춘요새구역은 전선 70km, 종심 12km의 지대안에 영구화점 400여개, 토목화점 350여개, 포진지 100여개, 철근콩크리트은페호 70여개, 장갑시설물 40여개가 설치되여있었다.

일제는 이 요새구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수많은 병력을

집중배치하고있었다.

그가운데서도 훈춘근방 대반령에는 적들의 견고한 방어진지가 구축되여있었고 관동군의 대부대가 그에 의거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고있었다.

대반령을 점령하는것은 훈춘을 해방하고 조선국경진지들을 돌파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정황은 매우 위급하였다.

이때 적후습격조가 공중으로부터 대반령 적종심에 락하하였다.

습격조는 견고한 방어진지에 의거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적들과 결사전을 벌리며 공격부대가 대반령을 점령하고 훈춘을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적들이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떠벌이던 국경요새들은 아군의 드센 공격에 의하여 물먹은 담벽처럼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말았다.

국경요새지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려던 기도가 파탄되자 일제의 대본영은 《만주전토는 전진기지로서 할수 없으면 버려도 좋으나… 제국전반의 전황상 조선은 최후의 1선으로서 절대적으로 틀어쥐고있는것이 필요》하다고 떠벌이면서 제17방면군을 관동군사령관의 휘하에 넣고 그 관하사단들을 급히 남부조선으로부터 서울이북지역에로 기동

시키는 등 조선을 최후의 결전장으로 유지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전선정황을 예리하게 살피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시였다.

적의 요새구역을 돌파한 부대들은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공격속도를 높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집단을 격멸소탕하며 종심으로 작전의 성과를 확대하였다.

지상부대들의 노도와 같은 진격에 발맞추어 해안상륙부대는 선봉—라진요새를 타격하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벌리였다.

경흥일대를 해방한 지상부대들이 선봉—라진요새의 동북쪽을 위협하면서 적의 주목을 송진산계선으로 끌어붙이고있을 때 해안상륙부대의 선견대에서 활동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8월 11일 선봉에 상륙하여 이곳을 순식간에 해방하였다.

해안상륙부대는 지체없이 놈들이 도사리고있던 선봉—우암리사이에 있는 만향고개의 영구화점을 까부시는 전투를 벌리였다.

만향고개의 영구화점을 까부시는것은 선봉—라진요새지대의 적을 소탕하는데서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습격조는 만향고개로 돌진하여 영구화점에 의지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놈들을 모두 살상포로하였다.

해안상륙부대는 이날 새벽 국경연선을 돌파한 지상부대들과

협동하여 선봉일대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해안상륙부대는 불과 며칠사이에 라진, 청진항들을 해방한데 이어 원산항에도 상륙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다른 부대들은 수령님의 작전명령을 받들고 작전의 보조방향인 백두산동북부와 서남부의 두만강, 압록강연안일대에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수령님께서 왕청방향으로 진출시킨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동흥진을 해방한데 이어 서토문자를 해방하고 금창일대에서 1개 사단의 력량을 소멸하였다.

전선부대들은 맹렬히 진격하여 8월 11일에는 목릉을 해방하고 15일에는 관동군 제1방면군 사령부가 있던 목단강시를 해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의하여 《일본룩군의 꽃》이라고 자랑하던 관동군은 만신창이 되고말았다.

관동군사령관 야마다는 아군부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앞에 겁을 먹고 사령부를 장춘으로부터 통화로 옮기던 끝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나중에는 100만의 관동군을 내버리고 도망치다가 포로되고말았다.

간백산밀영을 최후공격작전의 출발진지로 차지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소조들, 전민

항쟁조직들과 함께 각 도들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작전에 합세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배합하는 전민항쟁의 불길이 기운차게 타번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호응하여 이미 국내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각지에 조직된 무장부대들이 일제의 경찰, 헌병기관들과 군사시설들을 습격파괴하며 패주하는 적들과 그 주구들을 처단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함경북도 라진인민무장대는 쏘련군대가 상륙하기 전에 이미 라진을 해방하였다.

라진해방작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도해주신 작전이였다.

1945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학산비상회의후 최후결전준비를 위해 국내에 진출하시여 소부대와 소조들의 사업을 지도하실 때이다.

라진지구의 소부대와 소조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이곳 당조직책임자와 인민무장대 책임자를 만나주시였다.

그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최후결전을 벌릴 때 라진인민무장대가 어떻게 라진해방작전을 벌려나가겠는가 하는것을 함께 의논해보자고 하시였다.

라진시가가 바라보이는 사향산에서 라진시가의 전경과 라진만일대를 주의깊게 둘러보신 수령님께서는 지도에 표기된 현지대상물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사향산에 들리기 잘했다고, 훈련기지에 있는 부대들의 라진일대를 가상한 상륙작전훈련을 지도하면서 아무때건 현지에 나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면 했는데 오늘에야 그 소원이 실현된셈이라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현지에 와서 직접 보니 모든것이 더 명백해진다고, 더 지체할것없이 라진인민무장대의 최후작전계획을 의논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라진인민무장대 책임자가 소부대의 도움을 받아 세운 작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만하면 작전계획이 괜찮게 세워졌다고 하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수령님께서는 그러나 이 작전계획을 라진인민무장대의 사명에 맞게 더 완성해야 하겠다고, 대담하게 작전을 펴고 전격적인 공세를 들이대도록 계획을 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작전계획을 완성하려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선 라진인민무장대는 륙상과 해상으로부터 진격해들어오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내에 진출하는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그전에 라진시가에 감쪽같이 돌입하여 요새사령부와 병영, 군수창고, 부청, 헌병대, 경찰서 등 놈들의 중요대상을 일시에 번개같이 들이치고 소탕하는 공격전투를 벌려야 하며 다음으로 라진항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자료◇

명 령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과 전체 지휘관, 병사들에게 하달하신 명령.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령에서 먼저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시각이 왔다는것과 쏘련군의 대일전쟁참가는 극동의 정치군사정세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게 될것이며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과 전체 지휘관, 병사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조국강토에서 완전히 격멸구축하기 위한 최후결전에 총출동할것.

둘째,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 혁명

작전을 대담하고 주도세밀하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접한 성원들은 대담하고 기발한 작전구상에 탄복하여 환성을 올리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라진해방전투를 잘 조직해야 한다고, 이 작전을 성과적으로 벌리는것은 전반적인 조국해방작전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조직성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에 호응하여 도처에서 전 민중의 반일항쟁을 조직전개할것.

셋째,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인민무장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합세하여 적의 배후에 대한 타격전을 과감히 전개할것.

넷째, 조선인민혁명군 정치일군들은 대원들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며 해방지역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치기관들을 창설하고 반동들의 책동을 분쇄하며 치안유지와 사회질서수립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할것.

수령님께서는 명령의 마지막부분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과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간악한 일제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은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방도와 조국해방위업의 실현과 함께 해방된 조국에서의 새 조국건설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는 길을 명시한 력사적인 명령이였다.

공격작전과 그에 합세하는 인민무장대들의 배후련합작전, 대중적인 무장봉기를 성과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에 혁명의 붉은기가 높이 휘날릴 자력독립의 그날을 앞당겨가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작전계획에 따라 라진인민무장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발맞추어 라진해방작전에 돌입하였다.

인민무장대의 한 소부대가 밤중에 시내에 은밀히 들어가 요새사령부와 헌병대, 경찰서에 총격을 가하고 일본륙군 군수창고에 불을 질렀다.

그러는 사이에 대기하고있던 인민무장대의 기본대오가 시내로 쳐들어가 적들을 답새겼다.

이처럼 라진해방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끊임없는 로고에 의하여 마련될수 있었던것이다.

라진해방전투에 참가하였던 쏘련의 한 군관은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우리들이 도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관총의 따르륵소리와 포사격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변두리로 나온 조선농민들이 손을 휘저으면서 <만세> 소리를 웨치고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시내에서는 벌써 이틀째 **김일성**빨찌산부대와 일본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것이였다. 라진시의 조그마한 광장들과 좁다란 길거리들은 적군의 자동차들과 짐수레들로 미여질듯 꽉 차있었다.

조선빨찌산들이 일본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갈수 없게 만들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들과 빨찌산들사이에 갇히게 된 일본사무라이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포로로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도시변두리로부터 우리를 향해 급히 달려오는 100여명의 무장인원을 보았다. <우리들은 **김일성**빨찌산 대원들입니다.>라고 급히 부대지휘관이 땅크병대좌에게 말했다.》(《조선에서의 수기》중에서)

다른 국내인민무장대들도 전국 도처에서 각이한 명칭을 가지고 일제를 격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였다.

각 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인민무장대가 활동하였다.

경흥, 선봉지구에 조직된 인민무장대는 최후공격개시초기부터 아군의 공격에 합세하여 용감히 싸웠다.

까치봉무장대는 최후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투행동을 개시하여 퇴각해오는 패잔병들을 원정, 청학, 마유산계선에서 소탕하였고 자체의 힘으로 회령을 해방하였다. 이 무장대는 적의 비행기와 고사포 등 수많은 장구류와 피복류를 로획하였으며 놈들의 화약고와 연유창을 폭파하였다.

청진, 길주, 성진지구의 무장부대들은 적패잔병들을 소탕하고 도시와 공장들을 장악하였으며 경찰기관들을 기습소탕

하였다.

합경남도일대의 항쟁조직들은 부대가 진격해오기 전에 수많은 경찰서와 적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였다.

강원도의 철원, 법동지구와 평안북도의 염주, 삭주지구 항쟁조직들도 용감히 싸웠다. 신의주지구의 항쟁조직들은 총공격명령이 내린 날부터 경찰관파출소와 국경경비초소들을 들부시고 도경찰부와 도청을 점거하였으며 비행장에 박혀있던 패잔병들을 무장해제하였다.

평안남도와 평양지구에서는 조국해방단을 중심으로 무어진 큰 항쟁대오가 병기창을 습격하고 도청과 부청을 점거하였으며 적패잔무력을 제압하였다.

황해도의 항쟁조직들도 여러 지역의 적들을 습격, 제압하였다.

인민들은 진격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적정을 탐지하여 알려주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길안내를 맡아나서는 등 모든 힘을 다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지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진격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작전전반을 지휘하시는 한편 평양과 신의주, 함흥을 비롯한 주요지대들에 락하할 항공륙전대들을 인솔하고 돌격준비를 최종적으로 끝내시였다.

바로 이러한 때 아군부대들의 맹렬한 공격과 적극적인 전

민항쟁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일제는 최후공격작전이 시작된지 1주일만인 8월 15일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다.

일본 도꾜에서 1947년에 발간된 잡지 《문화조선》에 실린 글 《**김일성**론》에서는 그때의 실태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일본이 점차 패전의 길에 빠져 쏘련이 정의의 무기를 가지고 일본에로의 공격을 준비하고있을 때 **김일성**장군은 다시금 부하의 정예들을 파견하여 관동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 모든 요충에 군대를 배치하고 비행기 20여대도 준비되여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 징병, 학병 등 일본군대내의 조선인장병들과 련락하여 들고일어날 계획이였다.

그래서 이 세기적계획을 바야흐로 실현시키려고 하던 그 직전에 일본의 항복을 보게 되여 유감스러우나 이 계획은 무효로 시키고 중지되였던것이다.

만일 이 계획을 조금만 빨리 세웠거나 혹은 일본이 좀 늦게 항복했어도 **김일성**장군은 그 전률할 전략전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요란한 비행기프로펠라소리와 함께 또한 장렬한 군대의 포성과 함께 함성높이 보무당당히 입국하였을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지휘

성원들과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방금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조건항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아군련합부대들의 노도와 같은 진격과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진출앞에서 그처럼 오만무례하게 기승을 부리던 일제의 <대본영>은 드디여 저들의 완전한 패망을 자인하고 우리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김일성**장군 만세!》

모여섰던 전체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던 날인가!

온 삼천리강토가 해방의 환희로 설레였다.

《조선독립 만세!》

인민들이 목청껏 웨치는 이 열광적인 환호성은 해방된 조국강산을 진감하였다.

해방의 은인이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장구한 항일대전에서 우리 민족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고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이 흘린 귀중한 피의 대가로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던 해방의 새날은 마침내 이 땅에 밝아왔다.

5장

새 조선이 나아갈 길

새 조선건설로선 제시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결과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국내정세도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었다.

조국이 해방되자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국내조직에 망라되였던 애국자들과 항쟁조직성원들이 핵심이 되여 도처에서 당단체와 군중단체조직들도 내왔다.

로동자들은 무장자위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 항만 등을 스스로 보위하였다.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그러나 38°선이남에 미군이 기여들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었다.

1945년 7월 미국은 일본군부우두머리들을 필리핀의 마닐

라에 불러다놓고 포츠담선언과는 배치되게 일본에서의 천황제유지와 군국주의재생을 적극 지지할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공산주의자들과 마지막까지 싸우라고 부추기였다.

한편 국제무대에서 조선문제에 비법적으로 간섭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와 배치되게 조선을 분할할데 대한 강도적요구를 내놓았다.

미국은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직후에도 저들이 조선에 상륙할 때까지 일제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을 진압할데 대한 비밀훈령을 주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16일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조선군관구사령부는 《정치운동단속요령》을 공포하고 각지의 침략군부대들에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을 진압할데 대한 지령을 떨구었다.

놈들은 조선주둔군은 엄연히 건재해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기화로 그 어떤 독립운동을 벌린다면 단호하게 무력을 행사하겠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위협해나섰다.

이것은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후에도 조선에서 전투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조선인민혁

명군 부대들과 국내의 항쟁세력들이 저항하는 일제침략군 패잔병들과 적통치기구들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소탕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전민항쟁세력은 각지에서 저항하는 일제침략군을 최종적으로 격멸소탕하고 적들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고 당조직과 지방자치기관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새 질서를 확립하고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산업, 문화시설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국내의 항쟁조직들과 무장대들은 8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1주일동안에만도 근 1 000개소의 적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였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해보려고 발악하던 일제의 책동은 분쇄되였다.

새로운 지방자치기관들이 나오고 전반적지역에서 새 질서가 서가게 되였다.

해방의 만세소리가 삼천리를 뒤흔들던 그때 전체 조선인민은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었다.

온 나라가 해방의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로의 출발을 서두르지 않으시였다.

사실 스무해동안이나 타향의 차디찬 눈비를 다 맞으시며 혈전의 수천수만리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잊으신적 없었던 그리운 고향땅과 조국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돌아가더라도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였다.

그 준비란 다름아닌 새 조국건설과 관련한 준비, 새 조국건설의 명확한 로선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조성된 정세는 해방된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하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는 인민들에게 한시바삐 정확한 로선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 조직동원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민족국가가 나아갈 앞길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제국주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민족에게 있어서 더욱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할 때 비록 민족적독립은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발전의 길에서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으며 다시금 렬강들의 롱락물로 굴러떨어지는 운명을 면할수 없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혈을 바쳐가시며 사색을 거듭해 나가시였다.

대원들은 장군님께서 조국으로 돌아가시면 새 조국건설로

쉬지 못하시겠는데 조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항일전의 나날 쌓이고쌓인 피로를 풀도록 하여주실것을 간절히 청드렸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의 창가에는 새벽녘까지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1945년 8월 20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우리 인민은 마침내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며 조선인민앞에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열려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했다.

총탄이 귀뿌리를 스치는 항일전장에서 돌격구령을 내릴 때에도, 밀림의 긴긴밤에 찬눈을 깔고 지새면서도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새 조선건설의 휘황한 앞길인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그 휘황한 앞길이 열려지게 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는 대원들의 가슴은 숨이 가쁘도록

벅차올랐다.

(바로 그것을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심혈을 바치시였구나!)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 우리 민족이 새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건국로선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뚜렷이 명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우리앞에는 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에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우리 인민의 손으로 이룩한것처럼 새 조국건설도 그 누구의 손이 아닌 바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남의 식이 아닌 우리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빛나는 안광으로 장내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민정권

을 세움으로써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인민무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면한 이 3대과업은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루도 지체할수 없는 긴급한 혁명임무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건당, 건국, 건군을 위한 투쟁방향과 과업,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하신 연설은 력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였다.

해방후 불과 5일만에 제시하시였다는데도 그 의의가 있지만 철저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명시해주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을 명백히 밝힌 불멸의 기치라는데 건국로선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건국로선은 해방직후 조성된 정세와 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참답게 반영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였다.

건국로선은 독립을 이룩한 매 나라와 민족의 장래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후의 복잡한 정치정세하에서 그것을 자기 나라와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선택하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전복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고 온갖 주의주장이 란무하고있었다.

더우기 렬강들이 저마끔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고 획책하는 속에서 사실 새 조국건설의 옳바른 길을 밝히는것은 민족지도자의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수 없는 문제였다.

그때 나라가 해방되자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는 조국을 찾는 일이 어렵지 일단 찾은 다음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이야말로 독립투쟁에 못지 않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히신것은 미군이 38° 선이남에 진주한다는 소식에서였다.

전패국도 아닌 우리 나라 땅에 외국군대들이 주둔하는것은 그 구실이나 명분여하에 관계없이 결국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손상시키고 자주적발전에 장애로 될것이였다.

때문에 새 조국건설에서 옳바른 건국자세와 립장을 견지하며 자주적인 건국로선을 내세우고 투쟁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또다시 외세의 롱락물로 될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지나온 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갑오농민전쟁때 일본과 청나라가 각각 우리 나라에 저들의

군대를 출병시킨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 인민은 그들의 덕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전란에 부대끼고 이 나라 강산은 황폐화되였다. 량군의 출병은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일제의 식민지강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해방후 쏘미량군의 주둔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력량은 또다시 분렬될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있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조선에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통치를 강요하려는 야망을 추구하고 친미파로 변신한 어제날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새 조국건설로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실로 운명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여든 형형색색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별의별 주의주장을 다 들고나왔던 사정도 건국로선작성에서 최대의 심중성을 보장하고 정확한 로선을 내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당시 복잡다단한 시국속에서 민족의 장래발전에 대한 그 어떤 똑똑한 정치적견해도 못 가진 《지도자》들은 제가끔 저들을 《암야의 등불》이요, 《탁류중의 청류》요 하고 자칭하며 갖가지 궤변들을 들고나와 새 조국건설의 길을 밝히는

사업에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해방된 조선은 미국의 도움으로 부르죠아제도를 세우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전 쏘련의 도움으로 당장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해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나라를 세울것을 주장하고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인민들속에서 사상적혼란을 일으키고 민족력량을 분렬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 투철한 자주적립장과 해방된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건국로선을 제시하시고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으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은 철저히 제힘으로 새 조국을 일떠세울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명백히 선포하시였던것이다.

이것은 그때까지 세계정치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실로 경이적인것이였다.

당시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은 대개 쏘련이나 미국에 의거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건국하려는 립장에 서있었다.

이런데로부터 자기의 건국로선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똑똑한 일가견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쏘련이 건설한 사회주의를 그대로 모방이식하는 방식으로 건국하려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식자본주의방식을 택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경우는 어떻든지간에 문제는 그들모두가 다같이 자주적으로 제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자세에서 건국로선문제를 대하지 못하는데 있었다.

어떠한 자세와 립장에서 건국로선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였다.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세계적범위에서 이 문제는 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두가지 문제로 압축되고있었다.

일찍부터 모든것은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해나가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투철한 신념으로 간직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사업은 오직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에 기초하여 자기힘으로 해나가야 하며 그래야 우리 민족의 쓰라린 과거도 되풀이하지 않게 하고 래일의 장래운명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결심과 구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확고히 자리잡은것이였으며 피어린 항일혈전의 나날에 철석의 의지로

다져진것이였다.

조국해방을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대일작전과 관련한 회의가 끝난 며칠후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비서인 쥬다노브와 담화하시였었다.

쥬다노브는 쓰딸린의 위임에 의하여 쏘련을 무장으로 적극 옹호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수령님과 대일련합작전과 해방후의 새 조국건설문제를 놓고 론의하였다.

그때 쥬다노브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사람들이 나라가 해방된 후 몇해동안이면 독립국가건설을 실현할수 있을것 같은가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늦어도 2～3년이면 해낼것이라고 확신에 넘친 어조로 대답하시였다.

그러자 쥬다노브는 두손을 마주 비비며 기뻐하면서도 전혀 뜻밖이라는듯 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반신반의의 표정을 짓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짐작하시였다.

그 까닭이란 다른것이 아니였다.

얄따회담에서 전후 조선문제처리에 대한 론의가 벌어질 때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신탁통치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기

때문이였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밑에 《민주적제도속에서 교육되여야 한다.》는것이 루즈벨트의 주장이였다.

루즈벨트는 1943년 봄에 워싱톤에서 미국무장관, 영국외상들과 회담할 때부터 조선은 강대국들의 신탁통치하에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1945년 2월 얄따회담에서도 그 산물인 《신탁통치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었다.

우리 민족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의 망발에 분격을 금할수 없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고 단련되였다.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해나갈수 있는 견실한 지도핵심과 광범한 애국력량이 준비되였고 풍부한 투쟁경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능숙한 조직력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지게 되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난 쥬다노브는 해방후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쏘련이 도이췰란드와 4년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르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페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시였다.

철저한 민족자주, 민족자력의 원칙으로 일관된 말씀이였다.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쥬다노브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전에 만났던 동유럽의 어떤 나라 지도자가 그에게 자기의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락후한데다가 전쟁피해가 막심해서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쏘련이 큰집이 된셈 치고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였던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자주적인 건국립장과 태도였던것이다.

해방된 조선에서 제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명백히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커다란 감명을 받은 쥬다노브는 그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주적인 새 조국건설로선은 이렇듯 투철한 자주의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앞으로 일떠서게 될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주체적인 국가건설의 대강이였다.

동시에 그것은 새 조국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국가건설을 위한 로선과 정책작성에서 어떠한 자세와 립장을 견지하고 어떠한 로선과 정책을 내세워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가르쳐준 실로 커다란 세계정치사적의의를 가지는 건국의 대강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3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면서 소조들도 조직하고 파견지도 확정해주시였다.

한편 수령님께서는 조국으로 떠나기 전에 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을 여러차례 조직해주시였다.

그로부터 한달이 가까와오던 9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잊을수 없는 추억이 어려있는 항일의 전구를 떠나시여 조국개선의 길에 오르시였다.

조국개선의 길에 오르신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조국이 해방되였다고 우리의 투쟁이 끝난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

니다,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하고 복잡할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도 쉴 사이도 없으며 또 아직은 쉴 권리도 없습니다, 동무들에게 하루밤이라도 잘 시간을 주지 못해 안됐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해방된 조국땅우에 우리 인민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지상락원을 건설하고 푹 쉬도록 합시다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사랑하는 전사들을 단 하루도 휴식시키지 못하고 어려운 초소로 떠나보내셔야 하는 그이의 모습에서 대원들은 자애깊은 사랑을 읽으며 눈앞이 흐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령관동지! 우리는 준비되여있습니다. 어서 새로운 임무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고맙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정을 누르시는듯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이제 파견지에 가서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과 사업방법으로부터 각 지방풍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개 선

외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고 20년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감회는 참으로 깊으시였다.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도 끝끝내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한 기쁨속에 개선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해방된 조국으로 함께 오지 못하는 혈육들과 친지들, 전우들에 대한 생각이 꽉 차있었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 20년기간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동생, 삼촌을 잃으시였다.

항일전의 길에서 쓰러진 전우들은 또 그 얼마였던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 리광, 오중흡, 마동희, 권영벽, 리제순, 김주현, 최희숙, 박록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혈육들과 친지들, 동지들을 이국의 고혼으로 남겨두고 스무해만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설명할수 없는 일희일비의 심정이였다고 가슴쓰리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귀중한 혈육들과 동지들을 잃으시는 그 모진 아픔을 그들의 뜻을 기어이 실현하여 조국해방과 민족독립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라는 정신력으로 이겨내시였으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독립성전에 바치는 자신의 투쟁열로 바꾸어나가시였다.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너무도 조용히 조국에 개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은 오랜 기간에 걸친 피어린 항일대전의 력사적승리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전민족적인 경사였으며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참담한 나날에도 백두산을 우러르며 모든 희망과 기대를 오로지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던 우리 인민은 해방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학수고대하고있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게 된 기쁨으로 설레였다.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

원회들이 조직되였으며 전체 인민들은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개선의 광장에 높이 모실 력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 준비를 서둘렀다.

평양시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려고 붉은기와 대형구호판들을 만들었으며 연단도 꾸렸다.

서울에서도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수령님을 모시려는 남녘인민들의 열망이 하늘에 닿았다.

이무렵 남조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울에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8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고 서울역에 도착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서울의 거리거리는 이른아침부터 수많은 군중들로 물결쳤다.

광화문거리, 종로거리와 역전광장은 손에손에 붉은기와 환영구호판들을 든 시민들의 물결로 차고넘치였다. 집집의 창문과 지붕우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이였다.

서울역전광장쪽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실 연단이 꾸려졌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우리의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크게 쓴 글발이 나붙었으며 붉은기가 바람에 펄럭이였다. 여기저기 춤판이 벌어지고 농악이

울렸으며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할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것은 8.15직후 수령님에 대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열렬한 흠모와 신뢰의 반영이였다.

항일투사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연단에 높이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력사적인 그날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실것을 수령님께 거듭하여 청드렸다.

수령님께서는 그때마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축하나 받아서 무엇하겠는가고 하시며 굳이 사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문도 없이 조용히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해방직후의 복잡한 국내외의 정치정세와 나라의 실정을 료해분석하시면서 하루의 휴식도 없이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당, 국가 및 무력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항일투사들을 전국 각지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방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에게 해방된 인민대중에게 조선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한편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지방정권기관들을 조직하고 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또한 혼란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며 파괴된 산업을 복구정비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들을 정비운영하고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유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서와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업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투사들은 어떤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도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굳은 각오를 안고 여러 지방을 향하여 떠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 각지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정치인, 문화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조성된 정세도 해설해주시고 조선이 나아갈 길도 가르쳐주시였다.

해방된 조선이 과연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옳바로 밝혀주는것은 당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국내의 어느 당파나 어느 조직도 인민들에게 똑똑한 건국로선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요, 민주요 하면서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우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지어 일부 세력은 봉건제도를 되살리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불타는 건국열의로 들끓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나아갈 길을 똑바로 알려주어야 그들이 새 조국건설에 더욱 목적의식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착잡하게 뒤엉킨 해방후 형세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다름아닌 우리의 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3일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강의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의에서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 우리 인민이 어떠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 줄수 있습니다.》

진보적민주주의의 길, 이 길이야말로 해방된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약속해주는 참된 길, 자주의 길이였다.

진보적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급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을 들씌우는 수단으로 리용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주주의이다. 또한 쏘련식민주주의와도 구별되는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줄것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참다운 민주주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각계각층 인사들은 한결같이 《막혔던 가슴이 후련해지고 앞길이 탁 트인다.》고 하면서 기쁨과 희망에 넘쳐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데 이어 몸소 현지에 나가 광범한 인민대중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1945년 10월 9일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기둥이 될 로동계급을 만나 그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강선제강소로 향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강선으로 가시던 도중 만경대를 지나게 되시였다.

자동차가 만경대로 굽어드는 갈림길목에 이르자 수령님께서는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만경대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20년만에 보시는 고향의 모습이였다.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대원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주시던 고향, 항일의 나날 어느 하루도 잊으신적 없었던 고향이였다.

이 순간 그이께서 고향에 들려가고싶으신 심정이 오죽하시였으랴.

그러나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성스러운 책임감이 자리잡고있었다.

당을 창건해야 하고 인민정권을 세워야 하며 민주개혁도 실시해야 하는 등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이의 손길을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참동안 눈에 익은 만경대의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차에 오르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생활형편이며 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로동계급은 공장과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제강소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확장하여 우리 나라의 큰 강철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새 조국건설에서 자기들앞에 나선 임무를 똑똑히 깨닫고 공장을 복구하여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건국투쟁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제기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업들을 마치시고야 조국인민들과 상봉하시였다.

1945년 10월 13일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담은 삐라가 비행기로 뿌려졌으며 방송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는 환희와 감격으로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 모란봉공설운동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해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평양의 거리들과 수십리 주변의 농촌들로부터 수천수만의 군중들이 이른새벽부터 대회장으로 밀려들었다.

청진, 혜산, 신의주, 함흥, 원산, 해주 등은 물론 멀리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도 대표들이 군중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서둘렀다.

그들은 모두 기쁨의 감격과 흥분속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을 추켜들고 렬차에 몸을 싣고 평양으로

달려왔다.

대회장은 온 나라 곳곳에서 모여온 수십만의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각 오후 1시 그처럼 우러르며 흠모하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연단에 오르시였다.

순간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터져올랐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세월 오직 민족의 태양으로 항상 마음속깊이 흠모하며 기다리던 **김일성**장군님, 일찌기 민족해방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간고한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비분에 처하였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김일성**장군님.

해방된 우리 겨레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실 **김일성**장군님을 뵈옵는 환영군중은 기쁨의 감동으로 설레이였다.

당시 《평양민보》는 이날의 열광적인 군중대회광경을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하였다.

《평양의 력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

… 특히 대회를 력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름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이 울음을 울었다.》

삼천리강산을 진감시킨 그 열광적인 환호는 성스러운 민족해방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숨져가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에 대한 전인민적감사의 폭발이였다.

귀여운 소녀들이 올리는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환영군중에게 답례하시였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우리 인민들과 력사적인 개선광장에서 상봉하시던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할 숭고한 사명감을 다하신 더없는 행복감으로 넘치시였다.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였다.

《10여만군중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를 한몸에 받으며 단상에 서있을 때 나를 지배한것은 그 어떤 미사려구를 다 동원해도

그려낼수 없는 행복감이였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순간이였다고 대답할것입니다. 민중의 아들로서 민중을 위해 싸웠다는 행복감, 민중이 나를 사랑하고 신임한다는것을 느끼는데서 오는 행복감, 그 민중의 품에 안긴 행복감이였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고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호소하시였다.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습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하신 력사적인 개선연설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는 오늘도 민족사에 뜻깊은 한페지로 아로새겨져있는 불멸의 호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절절한 호소는 그대로 단결의 기치밑에

진정한 인민의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자는 력사적인 호소였으며 자주적인 새 민주조선의 출발을 선포한 장엄한 메아리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이 땅은 단결된 조선인민이 울리는 건국의 우렁찬 마치소리와 민족부흥의 노래소리로 들끓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전체 조선인민들과 인사를 나누시고서야 비로소 오매에도 그리던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고 할아버님, 할머님을 비롯한 그리운 일가분들 그리고 고향사람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먼저 개선인사를 하시고서야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천리강토는 또다시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으며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정은 더욱 깊어졌다.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개선의 광장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모든 곤난과 애로를 박차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새 민주조선건설로선관철에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화]

《나는 <금의환향>을 바라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때부터 항일투사들은 그이께 고향 만경대에 다녀오실것을 여러번 말씀드리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님, 할머님, 삼촌, 숙모를 비롯하여 그리운 일가분들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지만 당을 창건하고 조국인민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만경대를 찾아보겠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각 지방에 파견되였던 항일투사들은 평양에 온 기회에 한가지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만경대로 가실 때 리용하실 길부터 닦자는것이였다.

그 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과 얽혀진 가지가지의 사연들로 잊을수 없는 고향길이였다.

그런데 그 길은 길폭이 좁거나 둔덕지고 패인 곳들이 많았다.

항일투사들은 수령님께서 그 길로 고향집을 찾으실 때 불편을 느끼실수 있는데 그러면 인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제껵 닦아드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였다.

《동무들이 나를 위해 만경대로 가는 길을 닦으려고 한다는데 무슨 쓸데없는 일을 벌려놓으려고 합니까.》

투사들은 수령님의 뜻깊은 고향방문을 위해 길을 잘 닦아드리고싶은것이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길을 닦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를 위해 길을 닦는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일부 사람들은 나의 만경대방문을 놓고 <금의환향>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큰 벼슬자리에나 오르고 고향을 찾아가는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자신을 큰 인물이라고 생각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은 동무들과 같이 지난날에는 조국광복을 위해 싸운 한 혁명가였고 오늘은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해 분투하고있는 한 일군일따름이라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결연한 목소리로 《나는 <금의환향>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항일전의 그날에는 백두산의 전설적인 청년장군으로 이름을 날리시고 건국의 오늘에는 동방에 솟아오른 인류의 태양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신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는 만경대고향길마저 마다하시는 그이의 고결한 풍모를 새길수록 투사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는 그들을 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나는 조국해방을 이룩하고 조국에 돌아올 때에도 소문없이 왔는데 만경대에도 조용히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는 스무해동안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조국해방을 위해 싸운 만경대의 아들로서 만경대에 가서 그리운 일가분들도 만나보고 고향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리운 조국인민들에게 개선인사를 하신 후에야 고향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소문도 없이 조용히 나루배를 타시고 고향땅에 자욱을 새기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해방된 조국땅에 첫봄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1946년의 뜻깊은 봄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함흥을 찾으시였다.

수령님을 자기들의 도에 모시고 새 조국건설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그 나날 함흥시민들은 해방의 봄을 안고 조국에 개선하시여 부강조국건설의 진두에서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그이께 백성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누를수 없었다.

그리하여 함흥시민대표들은 그이를 환영하는 연회를 베풀기로 토의하였다.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요청이 하도 절절하여 수령님께서는 소박하게나마 정성다해 마련한 연회장에 나오시였다.

연회장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로 떠나갈듯 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령수를 모신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휩싸인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가슴을 들먹이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그리고 기업가, 상인, 종교인들…

그 열광적인 환영의 파도속에서 머리를 가로 빗어넘기고 자주색넥타이를 단정히 맨 한 청년의 격동된 모습이 유표하게 드러났다.

아, 우리 장군님! 우리의 태양!

그는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연신 이렇게 웨치며 두팔을 머리우로 높이 쳐들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그러다가는 양복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여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어넣는것이였다.

그가 바로 시인 리찬이였다.

시인의 심장은 이름할수 없는 감동과 격정, 흥분으로 세차게 고동쳤다.

아, 나라의 앞길, 민족의 행복이 밝게 비낀 그이의 미소!

한번 노려보시면 백만대적도 서리맞은 가을풀같이 쓰러지고

자애로운 웃음속에 한번 바라보시면 마른나무에도 꽂이 핀다는 전설적인 그이의 안광!

그리고 또 얼마나 젊고 름름한 청년장군이신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나라잃은 식민지청년의 운명이 어떤것인가를 너무도 뼈아프게 체험한 시인, 조선청년의 불타는 심장으로 자유를 부르짖은것이 죄가 되여 형무소의 차디찬 감방에 얽매였을 때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전설같은 이야기로 가슴을 불태웠던 시인이였다.

그에게는 해방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에서 울리신 총소리를 지척에서 듣고 허둥지둥 달려가던 그밤이 떠올랐다.

압록강반의 쓰러져가는 귀틀막 광솔불아래서 재생의 광명을 안겨주신 그이의 연설을 전해듣고 감격에 목메여 《눈내리는 보성의 밤》을 사람들앞에서 읊던 잊지 못할 그 밤이 떠올랐다.

아, 그런데 그 위대한 전설적영웅을 이렇게 몸가까이 뵙게 되다니, 이게 정녕 꿈아닌 현실이란 말인가.

시인은 자기 가슴에서 끓고있는 숭고한 감정, 이 나라 만백성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우리 인민에게 새 생활의 참된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감사와 영예를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그이

앞으로 다가가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장군님! 설음많던 식민지청년시인이였던 리찬이 장군님께 삼가 문안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이윽고 그는 연회참가자들앞에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감동에 젖은 시인의 열기띤 목소리가 정숙해진 연회장을 울렸다.

우렁찬 박수갈채가 련이어 터져올랐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시랑송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

가 터져올랐다.

1946년 4월 시인 리찬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격정에 넘쳐 읊은 헌시 《**김일성**장군 찬가》는 조국의 해방을 안아온 위대한 태양을 맞이한 우리 인민모두의 열화같은 심정이였다.

끓어넘치는 감격의 열풍속에 연회가 끝났을 때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노래한 시인을 둘러쌌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시인을 축하해주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불멸의 태양송가를 창작해줄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였다.

이것은 함흥시민들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해방후 전체 조선인민들은 나라와 인민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여주시고 암담하던 조국에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 해방의 은인으로, 이 나라에 새 아침을 가져오신 빛나는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람찬 새 생활창조의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줄것을 절절히 요청하는 수많은 편지들과 청원서들을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에 보내여왔었다.

1946년 5월 어느날 항일투사 김책이 많은 편지묶음을 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찾아왔다.

그는 녀사앞에 그 편지묶음을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방금 선전선동대를 이끌고 지방에 나갔던 한 일군으로부터 사업보고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로부터 영명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달라는 청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혁명송가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녀사께서는 이미전에도 인민들의 그런 진정서와 청원서들을 보시였었다.

이날도 많은 편지묶음을 보시면서 녀사께서는 인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는것이 정말 기쁘다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장군님의 노래를 지었으면 하고 생각해오던 참이였다고, 이것이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더는 미룰수 없는 인민들의 소원으로 된것만큼 지체하지 말고 우리 장군님의 노래를 잘 짓도록 하자고 하시였다.

당시 김책은 소박한 연회석상에서 헌시를 읊은 시인 리찬에게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지을데 대한 과업을 주었었다.

그때 시인을 만난 그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 첫 시기에 벌써 그이께 조국과 인민의 밝은 앞날을 가져

다주실 광명의 새별로 칭송하여 《조선의 별》이라는 혁명송가를 지어드린 우리 인민인데 해방된 조국땅에서 부를 태양의 노래가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동무가 헌시에서 소리높이 웨친것처럼 《우리의 태양》, 《인류의 태양》을 노래하자고 열변을 토하였다.

청년시인의 가슴은 활화산처럼 타번지기 시작하였다.

인류의 위대한 태양을 칭송하여 울리는 불멸의 혁명송가,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시인들이 창작완성해야 할 지상의 과업이며 력사의 대제가 아니겠는가.

시인의 결심은 굳어졌다.

그날부터 불멸의 혁명송가 가사창작에 정력과 심혼을 다 바쳤다.

동흥산기슭에 자리잡은 그의 작은 집 창가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야 송가의 시행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혈전혈투를 벌리시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시여 자유로운 인민의 새세상을 안아오신 **김일성**장군, 오늘은 부강조국건설의 맨 앞장에 서시여 인민의 봄을 활짝 꽃펴가시는 **김일성**장군.

민족해방투쟁사에 별처럼 빛나는 이러한 내용과 불멸의

업적을 담아 위대한 태양을 칭송해올려야 하겠는데 그것이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았던것이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조선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벌린 항일혈전사에 대해 자신이 너무도 모르고있었던것이였다.

어느날 시인을 도와주고있던 김책으로부터 창작실태를 료해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의 체험이 없는 그로서 만고의 령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하여 노래하자니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자그마한 수첩을 내놓으시였다.

그 수첩은 혁명가요집이였다.

《이 노래집을 시인선생에게 보여주십시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항일혈전의 불바다속을 헤치며 투사들이 부른 이 혁명의 노래들은 백두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 두만강의 수많은 굽이들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그를 도와줄것입니다.》

소중한 수첩을 받아안은 시인은 혁명가요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혁명송가의 주옥같은 가사들을 찾아 시를 써나갔다.

그로부터 얼마후 김정숙녀사께서는 몸소 시인을 만나주시였다.

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다정히 물어주신 녀사께서는 그에

게 오늘 노래가사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선생이 장군님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을 잘 알아야 장군님을 칭송하는 훌륭한 노래를 지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겪으셨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시인은 녀사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깊이 들으며 수첩에 적어넣었다.

그러는 시인을 보시며 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는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깃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발자취는 백두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굽이굽이에도 어리여있습니다. 또 광복을 맞이한 이 나라의 꽃동산에도 깃들어있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는 만주광야의 찬바람을 헤치면서도 그리고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긴긴밤을 지새우면서도 조국과 인민앞에 바치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을 꼭 옛말삼아 이야기할 때가 올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장군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은 곧 시인의 심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송가의 높고 장중한 시상으로 되였다.

드디여 우리 인민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불멸의 태양송가의 가사가 완성되여 시대의 힘찬 메아리로 장중히 울려퍼지게 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20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녀사께서는 가사가 완성된 다음 일군들을 만나시여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곡이 없으면 노래가 사명을 다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좋은 가사에 명곡을 빨리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곡이 완성되게 되였다.

1946년 여름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뜻깊은 시청회가 열리였다.

시청회에는 항일투사들과 당, 정권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청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대한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자 장엄한 선률이 장내를 진감하며 울렸다.

우리 인민이 그토록 부르고싶던 수령의 노래,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길이 부를 태양의 노래는 조국의 맑은 하늘로 힘차게 메아리쳐갔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였던 그 시절부터 얼마나 부르고싶던 흠모의 노래, 충정의 노래인가!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행복에 겨워 모두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뜻깊은 연주회가 있은 때로부터 여러날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송가를 우렁차게 부르며 거리로 행진해가는 학생들의 대오를 보시였다.

한동안 그 행렬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무실에 와있던 김책을 바라보시며 기어코 동무들이 노래를 내보냈구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다시 학생들의 행렬로 시선을 옮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책동무, 노래를 들으니 조국과 인민앞에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인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이의 말씀을 새기는 항일투사 김책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아올랐다.

(**김일성**장군님은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조국과 인민앞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이신가!

하늘의 빛나는 별이 만일 훈장이라면 그것을 모두 따다

장군님께 드리고싶고 이 땅의 모든 꽃들로 축복의 인사를 드리고싶은데 그이께서는 그처럼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도 우리 인민이 지어드리는 한편의 노래앞에서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걸머지신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오늘 우리 조국과 전세계에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이렇게 창작되였다.

우리 인민들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며 즐겨 랑송하고있는 서사시 《백두산》도 해방후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시인 조기천에 의해 창작되였다.

조기천은 당시 《평양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서정시 《두만강》을 비롯한 여러편의 시를 창작하였었다.

그는 시에서 해방된 조국땅의 자유로운 현실과 밝은 미래를 노래하였다.

그러던 그는 해방된 이듬해 봄 항일투사 김책을 만나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쓸 결심을 하게 되였다.

그는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의 줄기가 뻗어내린 이 땅에서 사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김일성**장군님을 칭송하지 않을수 있으며 백두산

을 노래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제 꼭 써보겠습니다.》

시인은 창작적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집필에 착수하였다.

김책은 이 사실을 위대한 수령님께 그대로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시인을 만나주시고 그의 요청대로 항일무장투쟁이야기를 자정이 넘도록 들려주기도 하시고 또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령님의 거듭되는 지도와 항일투사 김책의 방조밑에 시인은 어느덧 서사시초고를 끝냈다.

주체36(1947)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인을 만나주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시인을 맞아주신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서사시를 다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고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서 작품을 보자고 하시며 원고를 받아드시고 한장두장 읽어내려가시였다.

이때 시인이 자기가 시를 읊어드리겠다고 말씀올리고나서 열정에 끓는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서사시의 랑송이 끝났을 때 수령님께서는 시인을 바라보시며 수고했다고, 시가 아주 좋다고 다시금 평가해주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서사시의 기본사건으로 설정한 보천

보전투장면을 더 잘 형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 서사시의 핵을 이루는 보천보전투장면을 따로 하나의 절로 설정`하되 바로 그것이 서사시의 전반흐름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시였다.

《시에서 빨찌산대장을 주인공으로 그렸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주인공을 유격대원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시인은 놀라 자리에서 펄쩍 뛰여일어났다.

《장군님, 그것만은 안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칭송의 마음을 시인으로서 원고지에 올렸을뿐이라고 간절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유격대원을 주인공으로 그려야 한다고, 꼭 그렇게 하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그날 항일투사 김책의 방으로 돌아온 시인은 장군님께서 하시는 다른 모든 가르치심은 다 받아들여도 주인공을 빨찌산대장이 아니라 유격대원으로 그리라고 하신 그 말씀만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김책은 시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도 장군님께서 승인해주시여 보급되였

습니까. 앞으로 세월이 50년, 100년이 흐른다고 해도 장군님께서 <백두산>을 출판하라고 비준해주시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장군님은 이렇게 겸허하신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김책은 보천보전투장면을 잘 형상할데 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자로 하여 작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자고 몇번이나 당부하였다.

시인은 뜨거운 열정을 안고 시를 완성해나갔다.

그는 시창작을 위해 백두산과 그 일대를 답사하면서 일제의 백만대적을 벌벌 떨게 하시던 백두산호랑이, 절세의 위인으로서의 수령님의 위인상을 시에 담았다.

이렇게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첫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창작되게 되였다.

서사시는 나오자마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사람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해방후 전체 조선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형상한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여 우리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사업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종　　장

민족이 령도자를 잘 만나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누리고 부흥과 번영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 그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이것은 부정할수 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복중의 복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이라는 날말이 생겨나게 된것은 바로 그래서이며 《민족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는 철리도 여기로부터 생겨나게 되였다.

한 민족이 지니게 되는 행운과 그 민족의 력사에 트이게 되는 대통운은 아무때나 있게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만방에 떨쳐나갈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민족적영웅의 출현과 잇닿아있다.

우리 민족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심으로써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걸출한 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시는 더없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총대로 민족해방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선군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ㅌ.ㄷ》의 강령을 시원으로 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구상하고 무르익혀나가시는 과정에 창시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아버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으시고 <ㅌ.ㄷ>의 기치를 높이 드신 때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전 과정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사상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를 돌이켜볼 때 10대의 나이에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것을 목표로 하는 혁명조직을 결성하신것도 경이적인 사변이였지만 총대에 의한 반제적립장을 강하게 천명한 강령을 제시하시고 총대중시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참으로 특기할 사변이였다.

물론 선행리론에서도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폭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일련의 사상들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투쟁방식은 로동계급을 각성시켜 그들의 단결된 힘으로 계급해방을 이룩하자는것이였지 군사를 앞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대의 나이에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총을 무기로 제국주의를 타도할것을 엄숙히 선포하시고 간고하고도 복잡한 민족해방투쟁의 앞길을 개척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투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군대를 먼저 건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밀고나갈데 대한 총대중시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부터 창건하시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조국의 해방은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으로 된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민족의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모든 공동체성원

들의 삶과 행복을 위한 기본권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권은 첫째가는 생명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빼앗기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형태가 남아있어도 제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나라를 잃고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은 상가집 개만 못하다는 말은 우리 인민이 40여년간의 망국노의 생활속에서 얻은 피의 교훈을 함축하고있는 말이다.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당한 온갖 멸시와 천대, 빈궁과 고통의 화근은 결국 자주권을 빼앗긴데 있었다.

일제는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자주권을 강탈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자주적권리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생존권마저 유린당하는 식민지노예로, 망국노로 만들었다.

극악무도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조선은 말그대로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고 인민들의 원한과 신음소리는 구천에 사무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총대로 나라를 찾아주신것은 자주권을 빼앗긴것으로 하여 생사기로에 헤매이던 우리 인민을 재생시키고 나라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한 민족의 대경사였다.

이때부터 우리 인민은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고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지도우에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특기할 사변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전취물이였다.

노벨문학상수상자이며 20세기 전반기 인디아의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타고르 라빈드라나트는 1929년에 서정시 《조선》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의 예언은 20년도 못되여 해방된 조선에서 현실로 증명되였다.

타고르의 그 예언, 동방의 밝은 빛으로 빛날 새 조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주의 건국대강으로 해방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그때부터 온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였다.

정녕 나라의 독립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20성상은 민족의 걸출한 영웅이신 수령님의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이 활화산처럼 분출되여온 장엄한 서사시적로정이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불보다 뜨거운 민족적사명감을 지니시고 해방투쟁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그 존재마저 영영 없어질번 했던 우리 민족을 재생시켜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제일영웅,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받들어올리였다.

해방의 그해 《해방일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민족사적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무기를 잡고 분연히 일어서서 일본의 강폭한 야만군대를 대항하여 용전분투 20년!

황막무연 만주의 광야에서 천험의 국경을 돌파하고 북조선일대에서 일본군대를 전률케 하던 우리의 민족적영웅!

…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요, 진실한 지도자이시다.

8월 15일전에 우리의 민족으로 찬연한 투쟁사를 가졌다면 그 중요한 페지는 **김일성**장군의 투쟁에 드리지 아니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이 진정한 지도자를 가졌다면 **김일성**장군을 첫손가락에 꼽지 아니할수 없을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 그이는 최악의 조건에서 강대하고 포악한 제국주의침략자와 맞서 기나긴 세월 피어린 무장투쟁을 벌려 30대에 민족재생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영웅중의 영웅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자주성의 기치밑에 전개되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확대되고있는 현실은 그에 대한 옳바른 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 자주적인 길을 개척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종주국혁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투쟁이며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자신이라는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시였다.

자력독립은 항일무장투쟁의 근본리념인 동시에 근본원칙이였으며 바로 여기에 선행한 모든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항일무장투쟁의 본질적특징이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지도사상과 로선도 우리 인민자체의 요구와 의사에 기초하여 창조하고 관철하시였으며 무장투쟁의 방식과 전법도 우리 인민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따라 규정하고 적용하시였다.

사대와 교조는 항일무장투쟁의 최대의 적이였으며 자주와 창조는 무장투쟁의 생명선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할 때 비로소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으며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써만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식민지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 승리는 민족해방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 불패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렇듯 자주, 자력의 무장투쟁으로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한 여기에 항일무장투쟁이 가지는 세계사적의의가 있으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만년초석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신것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력사적뿌리이고 혁명발전의 전 행정에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혁명위업이 어떤 광풍에도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밑천이다.

혁명전통은 력사가 남긴 유산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다.

매개 민족은 자기의 애국전통과 문화전통 등 여러가지 민족전통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통이 곧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오직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끄는 과정에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전통만이 혁명전통으로 된다.

조선인민은 오랜 기간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도 있었고 3.1봉기와 같은 전민족적인 반일항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들은 비록 애국적인 투쟁이긴 하였으나 부르죠아민족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시대적제약성과 자체의 약점으로 하여 실패하고말았다.

조선혁명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수령으로 모신 그때로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의 길로 발전하였으며 그때에야 비로소 혁명의 뿌리,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여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오시는 과정에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주체의 전통으로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유일적인 사상체계로 이루어져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한 유일적인 사상체계로, 수령님을 중심

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한 사상체계로 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대오안에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적인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운 사상체계로 되였다.

주체의 사상체계와 함께 백두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속에서 창조하신 혁명정신으로서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의 최고귀감이다. 여기에는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정신과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헌신성과 희생성,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참다운 국제주의정신 등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혁명이 언제 승리하고 조국의 해방이 어느때에 가서 이룩될지 기약할수 없는 조건에서도 오직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고결한 혁명정신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락관성으로 이겨나간 강의한 혁명정신, 맨주먹으로 항일대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수행해나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혁명투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숭고한 혁명정신이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높이 발휘되고 전통화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과 인정미에 매혹되여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오는 혁명실천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되고 전통화된것으로 하여 불변의것으로 되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시는 영광스러운 행로에서 당건설과 인민정권건설, 무력건설, 대중단체건설, 문화건설, 통일전선운동을 비롯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쌓으시였으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창조하시였다.

이와 같이 주체의 혁명전통은 사상과 령도에 있어서나 덕망

에 있어서 력사가 알지 못하고있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거창한 혁명투쟁과정에 창조된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이 있어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웠던 환경속에서도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치렬한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오늘도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총대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가장 정확한 건국대강을 제시하시여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자주적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해방의 은인,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시며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탁월하고 세련된 혁명의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

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시여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전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등의 구호문헌을 보시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해방전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혁명정신은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조선

혁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민족자력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오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시려는 결심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는 자신의 드팀없는 의지를 천명하시면서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올해는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해이면서도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신년사에서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빛을 뿌리는 통일강성국가는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해방의 은인

저　자　　림이철, 박혁철
장　정　　리 성 일
교　정　　김 철 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4(2015)년 8월 3일
발　행　　주체104(2015)년 8월 8일

ㄱ-1221ㄷ

DPR Korea
ISBN 978-9946-31-002-2